

30 year anniversary Korean mission in cambodia

이 포럼집이 앞으로 캄보디아에서 선교를 감당하는
후배 선교사들에게 길잡이가 되고
등불이 되는 귀한 책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캄보디아

한인선교



주년
포럼집



KMAC
Korean Missionary Association in Cambodia
주캄보디아한인선교사회



Book

Written by

All rights reserved.

Korean Edition Copyright © 2023 by DesignM

2023년 3월 28일 발행

편집장 | 오창수

편집위원 | 백의성/김태권/김동구/김정빈

편집디자인 | [디자인미션]정영신

펴낸곳 | 한인선교 30주년 실행 위원회

주 소 | Phnom Penh, Cambodia

이 책의 저작권은 저자와 한인선교 30주년 위원회가 소유합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한인선교사님들의 30년간의 수고와 눈물 그리고 땀
에 관한 귀한 포럼에 대하여 그동안 수고해주신 30주
년 출판부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각 지역 각각의 선교사님들을 방문하고 자료를
모았으며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 출고시키기 위해 많은 수고와 발품을 하
셨기에 오늘 이렇게 귀한 30주년 포럼집이 완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뒤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묵묵히 수고하신 분들이 계셨
기에 이번 한인선교사 선교 30주년의 책자가 나온 것은 많은 분들의 수
고와 기도 그리고 땀의 결과로 이번에 옥동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이 포럼집이 30주년 행사용이 아닌 앞으로 캄보디아에서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 후배들에게 길잡이가 되고 등불이 되는 귀한 책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거듭 이 포럼집과 더불어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인선교 30주년 선교대회장 **오창수** 선교사



1993년 1월.

캄보디아 땅에 한국의 선교사 한 가정이 첫 발을 디디었다. 이것이 한국 선교사의 캄보디아 선교의 시작이 되었고 이제 30돌이 되었다. 초기 캄보디아 상황의 열악함을 어떻게 설명하고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메콩강의 흙탕물을 길어다가 먹어야 하는 어려움을 어떻게 말해야 지금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한국의 선교사들은 한 사람, 두 사람 캄보디아로 들어왔고 그것이 30년이 되었다.

2년 전 2021년에 캄보디아 한인 선교 30주년을 준비하는 모임이 선교사회에서 결의되었다. 나는 뒤늦게 합류하게 되었고 그 때부터 30주년을 고민하게 되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그래서 시작한 것이 선교 포럼이었고, 연구를 통하여 한국 선교사들의 선교를 정리하고 싶었다. 그리고 첫번째 주제가 “왜 캄보디아 선교 30주년인가”였다. 이 주제는 참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10년 전, 캄보디아 선교 20주년을 맞으면서 주 캄보디아 한인 선교사회에서는 선교 포럼을 열었다. 한인 선교사 뿐 아니라 캄보디아 목회자와 서양 선교사의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었다. 그 때에 만들어진 역사 자료에 한국 선교사의 캄보디아 선교에 대한 기록이 있기는 하지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학술적인 자료로써 한국인의 선교 출발을 다루고 싶었다. 발제와 논찬을 통하여 한국인에 의한 캄보디아 선교의 시작을 명확히 할 수 있었다.

그 이후로 10차례에 걸친 포럼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한인 선교사의 캄보디아 사역에 대한 조명을 시작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캄보디아 선교의 결과와 전망을 다루는 포럼이 준비되고 있다. 우리 한국 선교사들은 참으로 적극적인 선교의 자세를 가지고 사역을 해왔다. 자화자찬이 아니라 다른 타국의 선교사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캄보디아 곳곳에 선교의 열매와 흔적을 남겼다. 우리는 선교 포럼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정리하기를 원했고 결과를 보며 앞으로 나아가는 선교의 전망을 제시하기를 소망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연구된 한인 선교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주인은 캄보디아 성도들이며 그들에 의해 성장해 가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또한 서구의 선교사들과도 교류하며 협력하여 선교의 열매를 거두어야 한다는 사실에 도달하게 되고 더 나아가 좀 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이 번에 발간된 “주 캄보디아 한인 선교사회 한인 선교 30주년 선교 포럼집”을 통하여 이 땅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인 선교사들의 선교 현장이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또한 우리 한인 선교사들은 더욱 연구하는 자세로 우리가 진행했던 사역들을 한인 선교의 모델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땅에서 사역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지혜와 역사가 있기를 기도한다.

주캄보디아 한인선교사회 한인선교 30주년 실행위원장 **김태권** 선교사

FORUM

01

캄보디아 한인 선교 30년 출발의 의미 8

발제 : 장완익 선교사

FORUM

02

선교전략으로 본 캄보디아 선교 17

발제 : 김동구 선교사..... 18

<선교전략으로 본 캄보디아 선교의 분석과 평가>

논찬 : 임성철 선교사..... 47

FORUM

03

개척부터 이양까지 마무리된 사역 사례 발표 55

발제 : 송진섭 선교사..... 56

논찬1 : 조학현 선교사..... 70

(캄보디아 감리교회, MCC 를 중심으로)에 대한 논찬

논찬2 : 김창훈 선교사..... 76

FORUM

04

캄보디아 장로교단이 캄보디아 개신교에 미친 선교적 가치와 사명 91

발제 : 장완익 선교사..... 91

(캄보디아 장로교회의 역사, 현황과 미래 방향을 중심으로)

논찬 : 조진태 선교사..... 104

FORUM

05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선교 발자취 및 50주년을 준비하는 발걸음 111

발제 : 노태근 선교사..... 112

논찬1 : 김조동 선교사..... 124

논찬2 : 오태근 선교사..... 135

FORUM

06

<송년특집 대담> 여선교사가 본 선교 30년

143

대담자 : 윤옥 /이세금 /고정숙 선교사

1. 사진의 추억(지난날의 캄보디아)
2. 캄보디아에서의 에피소드
3. 캄보디아 선교와 삶의 소회
4. 가족들에게 미안한 점과 감사한 점
5. 앞으로의 각오와 기대 혹은 소망

FORUM

07

캄보디아 교육선교의 현황과 전망

147

발제 : 김용순 선교사..... 147
 캄보디아에서의 학교를 통한 교육사역
 -프놈펜에 외곽에 위치한 캄보디아 희망학교를 중심으로

논찬1 : 노진태 선교사..... 165

논찬2 : 유남숙 선교사..... 172

FORUM

08

캄보디아에서의 의료선교

179

발표1 : 최정규 선교사..... 180
 KMAC 30년 의료선교사역의 전략적 유형

발표2 : 김우정 선교사 (헤브론 의료원)..... 181
 캄보디아 의료선교 (진료와 교육)

발표3 : 이철희 선교사(아시아교육봉사회 소속)..... 185
 지역사회보건 선교

FORUM

09

캄보디아에서의 학사선교의 실제와 전망

197

발제 : 박훈용 선교사..... 198
 캄보디아 학사 사역의 회고와 방향에 대한 소고

논찬1 : 유창준 선교사..... 208

논찬2 : 김동구 선교사..... 214

FORUM

10

캄보디아 신학교 사역

225

발제 : 표명대 선교사 (캄감신 학생처장) 226
 캄보디아 신학교육의 현황과 진단 그리고 미래과제들

논찬1 : 조봉기 선교사 (캄장신 교목) 243

논찬2 : 김동구 선교사

<부록> 호산나 축구 선교회 - 축구를 통한 선교

261

대담 : 하종필 /오태근 /노진태 선교사

사회 : 김태권 선교사





01

주캄 한인선교사회

한인선교 30주년 포럼

발제

캄보디아 한인 선교 30년 출발의 의미

장완익 선교사 (KMAC 회장)

캄보디아 한인 선교 30년 출발의 의미

장완익 선교사 (KMAC 회장)

1. 들어가는 말 / 경과보고

1993년 1월 10일부터 캄보디아에 장기 주재하기 시작한 한인 선교사는 2021년 3월 현재, 1,500명 정도로 추산하며, 그 가운데 반 정도는 주캄보디아한인선교사회 (KMAC: The Korean Missionary Association in Cambodia, 이하 KMAC)에 가입되어 있으며,¹⁾ 나머지 반 정도는 미가입 상태로 파악되고 있다.²⁾ KMAC에서는 만 8년 전인 2013년 5월 20일, 사단법인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The Korean World Mission Association, 이하 KWMA)와 공동으로 『캄보디아 선교역사』 단행본을 발행하였으며, 같은 해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프놈펜 기독교연합봉사관에서 <캄보디아 개신교 90주년 선교포럼>을 역시 KWMA와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1) 이는 전 세계에서 사역하는 한인 선교사 22,259명 가운데, 국가별 기준으로 7위에 해당한다. 한국선교연구원(KRIM). “2020년 12월 한국선교 현황” 『한국선교 KMQ (통권 77호)』, (서울: 한국선교KMQ, 2021), 117과 125.

이는 캄보디아에 한인 선교사가 장기 주재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 갖는 일이었으며, 캄보디아 개신교 선교를 구성하는 세 선교 세력-캄보디아인 개신교회, 캄보디아 주재 비한국인 선교사, 캄보디아 주재 한국인 선교사-이 공식적으로 만나 대화 및 선교 전략을 나누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 만 2년 뒤인 2023년 1월 27일과 28일,³⁾ 캄보디아 개신교회는 <캄보디아 (개신교)복음 100주년>을 맞이하며, 이 준비위원회에는 KMAC 소속 선교사도 참여 하고 있다. 아울러, 2023년 1월 10일은 캄보디아에 처음 입국한 한인 선교사가 30 주년을 맞이하는 날이다. 이를 위해, KMAC에서는 2020년 11월 24일, 제 26회기 정기총회에서 “캄보디아 복음 100주년(협력)과 한인 선교 30주년(주최)”을 결의하였으며, 지난 1월 25일, KMAC 정기회의의 시에는 “캄보디아 한인 선교 30주년 준비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 안디옥연구소(Antioch Institute) 대표인 스티브 하이드(Steve Hyde)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장기주재하며 사역하는 외국인 선교사는 2,500-3,000명이며, Steve Hyde. “A Critique of “Unnecessary Yoke” article and including the related book “We Are Not Hero: a Missionary’s Guide for Sharing Christ, Not a Culture of Dependency” by Jean Johnson, Cambodia Mission Forum (Phnom Penh: CRRC/Phnom Penh Forum, 2014), 74. 그 가운데 반 정도를 한인 선교사로 보고 있다(필자 주). KMAC에서는 미국 국적의 한국인 선교사도 회원으로 받고 있는데, 이는 해외의 한인 교회(교단)나 선교단체로부터 파송 받은 미국 국적의 한국인 선교사를 넓은 의미의 한국인으로 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주캄보디아한인선교사회 요람(2020년). 5와 7.

3) 캄보디아에 첫 개신교 선교사를 파송한 C&MA(Christian & Missionary Alliance) 그리고 캄보디아에 세워진 첫 민족 교단 KEC(Khmer Evangelical Church)에서는 아더 하몬드(Arthur L. Hammond) 선교사 부부의 캄보디아 입국일을 1923년 1월 27-28일로 추정하였으며, 2023년 캄보디아 개신교 (복음) 100주년 기념을 그 일자에 갖기로 하였다.

이제 30주년 준비위원회의 책무 그리고 이 출발점과 의미는 무엇인지 등을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2. 30주년 준비위원회의 책무

KMAC는 앞으로 약 2년 동안, 정기총회와 정기회의 결의로 세워진 “캄보디아 한 인 선교 30주년 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 귀한 업무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8년 전, 이를 실무적으로 섬겼던 필자의 경험으로는 1년의 준비가 너무 촉박하였기에 2년(2021년 1월-2023년 1월) 동안 이를 준비하고자 하였는데, 현실적으로 조직과 리더십 그리고 기능에 따른 역할 분담의 벽에 직면하였다.

즉, 매해 11월에 갖는 정기총회 시 회장과 임원의 행정 리더십이 교체되는 현실에서, 이 책무가 잘 감당될 수 있을까? 라는 염려가 대두되었는데, KMAC 회장/임원과 30주년 준비위원장/임원 사이의 협력에 대해, 한두 가지 애로가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KMAC 회장과 30주년 공동 준비위원장 겸임이 적합한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며, 1년으로는 부족하기에 2년 기한으로 세워진 준비위원회인데 실제 준비는 금년이 아닌 내년에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은 관계자 사이에서 조정과 이해가 필요한 것 같다. 30주년 준비 업무를 “30주년 준비위원회 임원” 안에서만 공유하고 있기에, 지난 1월 25일 구성되어 참여 중인 50여 명의 준비위원에게는 지난 2개월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는 지적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크고 작은 문제는 초기에 해결하는 것이 향후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 한다. 이에 필자는 ‘30주년 공동 준비위원장’이라는 직책 대신 실무진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이번 기회에 30주년 준비위원회 임원뿐 아니라 준비위원 50여 명이 함께 만나, 2023년 1월까지의 로드맵과 역할 분담을 나누기 바란다.

3. 캄보디아 한인 선교 30주년 출발점

이번 포럼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논의된 점은 한인 선교 30주년의 출발점을 언 제로 하며, 이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그러한 점에 있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느냐? 등에 대한 것들이었다.

이에 대해, 필자는 비록 1993년 1월 10일, 강창윤/지주옥 선교사 캄보디아 입국 이전에도 몇 한인 선교사 또는 민간인이 캄보디아 국내 또는 난민캠프에서 캄보디아인 대상의 선교 사역을 했을지라도 그러한 사례는 ‘캄보디아 한인 선교 30주년’의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 사유는 각각 캄보디아로 파송 받은 선교사, 장기 거주 및 캄보디아 국내 사역 등의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1993년 1월 10일은 캄보디아 한인 선교가 시작된 시점이며, 강창윤/지주옥 선교사는 캄보디아 한인 선교의 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어떠한 의의(疑意)도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4. 캄보디아 한인 선교 30주년의 의미

2년 뒤의 캄보디아 한인 선교 30주년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 30년은 보통 한 세대를 의미하며, 일생 중 가장 꽃다운 나이 또는 사역 성숙기(요셉 창 41:46, 다윗 삼하 5:4, 예수 그리스도 눅 3:23)에 해당한다. 그렇기에 이제 캄보디아 한인 선교는 어린이-청소년기를 지나 성숙한 단계에 접어들어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 2년 뒤인 2023년 1월에는 지난 30년 동안의 캄보디아 주재 한인 선교사 사역을 돌아볼 수 있는 “주캄보디아 한인 선교사 백서(白書)” 또는 “KMAC 종합선교보고서” 등을 편집 출판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캄보디아 개신교회 앞에 캄보디아 한인 선교의 참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둘째, 캄보디아에서 동역 중인 캄보디아인 개신교회와 캄보디아 주재 비한국인 선교사와의 정기적 교제 그리고 선교 전략 공유가 필요하다. 이런 면들이 부족할 때, 상호 간 오해나 불신이 발생하는데, 위의 정보 자료를 캄보디아 영어로 번역하여 그들과 공유하면 캄보디아-건강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셋째, 위와 같은 사역을 위해서는 교단과 교파 그리고 연차와 성별 등을 초월하여 정말 신실하게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참여해야 한다. 정치적인 계산이나 기득권 또는 명예욕을 배경으로 이 일에 참여할 경우, 그 개인은 물론 KMAC 또는 캄보디아 주재 한인 선교사 전체에 불명예를 끼

칠 수 있다. 아울러, 몇 사람만의 의 기투함이나 사조직이 아니라 더 많은 KMAC 회원 그리고 나아가서는 캄보디아 주 재 한인 선교사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30주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바른 역사 를 기술하는 사관(史官)의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5. 나가는 말 / 캄보디아 개신교회에의 기여

크메르 민족은 지금부터 불과 600-1,000년 전, 시엠립에 크메르 제국을 건설하 였으며, 이 제국은 당시 서양의 로마와 견줄 수 있었다. 지금의 캄보디아 개신교회 가 어떻게 하면, 그러한 크메르 민족의 영적 정신적 힘을 배경으로 크메르 민족 복 음화를 이룰 수 있을까? ‘물속에는 악어가 땅 위에는 호랑이가 있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⁴⁾ 주변국을 경계하며 살아가는 역사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그리고 선 교의 하나님께서는 왜 많은 한인 선교사를 지금 이 시대 캄보디아로 보내주셨을까? 그 이유는 단 하나, 한국 교회 그리고 한인 선교사의 섬김을 통해 캄보디아에 건강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 거 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남은 2년 동안, 캄보디아 한인 선교 30주년 준비위원회 그리고 KMAC는 이러한 선교의 하나님 앞에서 더욱 신실하게 준비하며, 2023년 1 월, “캄보디아 개신교(복음) 100년” 그리고 “캄보디아 한인 선교 30년”을 통해 수 많은 크메르인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감격스러운 역사를 그려본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 126:1)



<그림 1, 캄보디아 개신교(복음) 100주년 로고>

참고 목록

주캄보디아한인선교사회 요람(2020년). 5와 7.

한국선교연구원(KRIM). “2020년 12월 한국선교 현황”『한국선교 KMQ (통권 77호)』, (서울: 한국 선교 KMQ, 2021), 117과 125.

Alain FRESSANGES.『Khmer Saying (크마에 속담집)』(Phnom Penh: Khmer Community Development), 70.

Steve Hyde. “A Critique of “Unnecessary Yoke” article and including the related book “We Are Not Hero: a Missionary’s Guide for Sharing Christ, Not a Culture of Dependency” by Jean Johnson, Cambodia Mission Forum (Phnom Penh: CRRC/Phnom Penh Forum, 2014), 74.

4) Alain FRESSANGES.『Khmer Saying (크마에 속담집)』(Phnom Penh: Khmer Community Development), 70.



02

주캄 한인선교사회 한인선교 30주년 포럼

발제

선교전략으로 본 캄보디아 선교

Cambodia Mission as a Mission Strategy

김동구 선교사

논찬

임성철 선교사

주캄 한인선교사회 **선교30주년** 준비위원회
제 2차 포럼
2nd FORUM

선교전략으로 본 캄보디아 선교
Cambodia Mission as a Mission Strategy

2021년 6월 29일(화) am. 10:00~

- 발제 : 김동구 선교사
- 논찬 : 임성철 선교사
- 방법 : Zoom 온라인 회의

제 3차 포럼 발제 예정 : 송원섭 선교사



선교전략으로 본 캄보디아 선교

차례

서론

1. 다른 전략들과의 비교를 통한 선교전략 이해 20
 - (1) 선교전략과 군사 및 경영전략
 - (2) 선교신학 속 선교전략
2. 선교신학, 정책, 선교전략, 선교전술의 관계 24
 - (1) 선교전략과 정책에 대한 견해
 - 1) 윌버트 생크의 견해
 - 2) 피터 와그너와 말트 윈터의 견해 3) 데이튼과 프레이즈의 10단계
 - (2) 선교신학과 전략과 전술 그리고 정책과의 관계
 - 1) 선교신학과 전략 그리고 정책과의 모호성
 - 2) 선교정책과 선교전략의 모호성
 - 3) 도표로 본 네 용어의 관계
3. 전략적 선교를 위한 전제들 28
 - (1) 성경과 선교와의 대화
 - 1) 총체적 선교
 - 2) 상황화 선교
 - 3) 약함으로부터의 선교(십자가 선교)
 - (2) 사회과학적 분석과 평가 도구 활용- 선교정책과 전술적 측면
 - 1) 선교지역연구
 - 2) 환경분석의 툴(tools) 이해도
 - 3) 예측가능성
 - 4) 생산성과 효율성
 - 5) 평가와 피드백 가능성
 - (3) 선교사의 자기이해 - 한국적 신학에 대한 반성과 성찰

결론

43

선교전략으로 본 캄보디아 선교의 분석과 평가

- 주캄 한인선교사¹ 사역을 중심으로

김동구² 선교사

선교전략에 관한 기존연구들을 보면서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다.

첫째, ‘이미’와 ‘아직’의 구조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으로 이 땅에 임하고 진행되고 있는 증거적인 입장에서 선교전략이 통전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음을 보았다. 선교신학 자체도 복음주의 선교신학과 에큐메니칼 선교신학으로 양분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각각의 선교신학에 의해 선교전략도 다르게 연구되고 있었다.

둘째, 메시지와 메신저와 메시지가 선포되어 드러낼 결과물에 대한 이해도 제각각이었다. 복음주의 선교신학은 메시지와 메신저에 대한 관계에 대한 이해에 관심이 크게 없었고, 메시지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것으로 보였다. 반면에 에큐메니칼 선교신학은 메시지가 선포되어 드러나게 될 결과물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것으로 보였다.

셋째,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총체적 선교전략, 상황화 선교전략, 약함으로부터의 선교(십자가 선교 전략) 등은 선교신학과 전략으로 혼합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넷째, 서구 기독교 선교의 반성에 있어 제기되는 이 세 가지의 전략들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메시지와 메신저의 삶과 메시지의 결과의 통전성에 대해 강조하는 것보다 서구 기독교 선교의 반성물로 연구되고 이해되는 것처럼 보였다.³ 이같은 관찰을 통해 선교전략을 통전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1. 다른 전략들과의 비교를 통한 선교전략 이해

(1) 선교전략과 군사 및 경영전략

수많은 전략들 가운데 우리의 돕기를 위해 크게 세 가지 전략으로 나누어 본다.

첫째, 경영전략이다. 경영전략은 생산성과 효율성의 향상을 통해 기업의 매출을 증대하고 기업의 부를 증대시키는 전략이다. 그러나 오늘날은 생산성과 효율성도 중요한 매출의 증대요소이긴 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더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면서 가치 경영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목적은 이윤추구와 생존에 있기 때문에 가치 경영이 이 두 가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폐기될 수 있다.

둘째, 군사전략이다. 군사전략은 승리를 위한 전략이다. 이 전략은 패배를 상정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인권과 공훈의 요소가 작용하지 않는다. 오로지 승리만을 위해서 상대방을 패배시키고 무릎 꿇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상대방이 죽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셋째, 선교전략이다. 선교전략은 어떤 전략보다 복잡하고 전략의 요소들이 서로 뒤엉켜 있어 하나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선교전략은 경영전략처럼 생산성과 효율성을 추구한다. 생산성과 효율성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전략에 대한 기초이해에 이를 수 없다. 선교가 전략으로 행해진다고 하면, 생산성과 효율성에 대한 기대가 포함된다. 예를 들자면, 오늘날 전 세계 인구의 50%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다. 그래서 생산성과 효율성에 입각하면 당연히 도시선교가 맞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을 선교의 무대로 택하지 않으시고 갈릴리 이방의 땅으로 선택하셨다. 변방을 선택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선교전략은 경영전략과 달리 효율성과 생산성에 의해서만 판단되어서는 안 되는 특징도 있다.

또한 선교전략은 무조건적인 승리만을 추구하지 않는다. 군사전략은 오로지 승리만을 추구하는 전략이다.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용서와 자비 등이 포함될 수 없다. 선교 전략은 하나님의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확장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당연히 승리주의적인 관점에서 전략이 세워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무능하게 죽으셨다. 군사전략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빌라도로 대표되는 로마 권력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경제 정치적으로 부강한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는 십자가에서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죽었다.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당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온 인류를 구원하고 인종간의 차별을 극복하게 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게 하는 무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선교전략은 반드시 승리만을 위한 전략이 아니다. 그러므로 선교전략은 신학적인 판단과 분별에 의해 권면을 받고 제한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⁴ 선교전략은 그 전략을 실행하는 사람의 인격과 삶 그리고 사상과 깊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⁵

(2) 선교신학 속 선교전략

오늘날 선교지 안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선교신학 혼란의 문제이다. WCC가 전 통적 선교에 대하여 주장한 하나님의 선교는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과 바울 복음의 연 관성 사이에서 선포된 교회의 복음에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구속을 창조의 회복으로 이해하고 이것을 문화적 명령으로 해석함으로써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 없는 평화의 세상으로 주장하는 단계에까지 나아가자 WCC자체 안에서도 반성이 일어났다. 복음주의 안에서도 WCC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여 기독교 선교에 있어 사회 참여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이러한 하나님 의 선교개념의 발전의 역사와 복음주의 선교의 자기 반성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선교사들은 이 두 관계가 정립되지 않는 관계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다. 그래서 떡이 먼저냐? 복음이 먼저냐? 떡과 복음이 동시에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등? 필요 없는 논의와 논쟁들이 선교사 들간의 연합과 연대를 방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와 병원 사역과 같은 사역들도 복음 전도의 부수적 수단으로 취급을 받아 복음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와 병원 자체를 발전시키고 선교지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지?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병원에서 현지 목회자 한 명을 고용해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한 것이다. 직접적인 복음 선포가 없으면, 복음주의 선교가 아닐 수 있다는 외부의 평가와 스스로의 이해에 기 인했을 것이다.

그러나 정직의 문제로 보면, 직접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 간접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어쩌면 현지인을 기만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황금률을 넘어서는 희생적 사랑이다. 그러나 우리의 선교는 이렇게 되면 ‘Give and Take’ 식의 선교 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직접적인 복음 선포를 위한 선교에 부수적 사역들이 도움이 되지 않으면, 부수적 사업은 동력을 잃게 된다. 실제로 캄보디아 선교사들 사이에서 구제 사역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 있다.⁶ 왜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 이것은 WCC가 주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복음주의적 차원에서 방어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차원에서만 선교를 이해했기 때문이다.⁷ 복음주의가 하나님의 선교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의 복음과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 나라복음의 연관성 사이에서 복음의 참모습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⁸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의 참모습은 이 두 가지의 연관성 안에서만 제대로 파악될 수 있기 때문이다.⁹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 전한 구원의 복음을 중심으로 복음 메시지를 형성하고 그 메시지의 기원이 되었던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대로 깊이 바라보지 못했다.¹⁰

2. 선교전략, 정책, 선교신학, 선교전술의 관계

(1) 선교전략과 정책에 대한 견해

1) 윌버트 쉥크의 견해

윌버트 쉥크는 앞의 두 가지 관점을 간략하게 인간의 사역과 하나님의 사역으로 분류했다. 쉥크는 ‘하나님이 선교 역사와 정책 그리고 전략 속에 어떻게 개입하고 계시는가? 구별해 내는 것이 고 민이었다. 그는 선교정책과 전략 연구에 존재하는 모호성과 양면성(Ambivalence toward Strategy)을 지적하면서 문화적 역사적 상황에 따른 전략(Strategy Culturally and Historically Conditioned)이 있음을 인정했다.¹¹ 그러나 그는 선교 정책과 전략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의 관점에서 본 것으로 평가를 받는다. 그래서 그가 이해한 선교 정책과 전략이란 유감스럽게도 측정하기 어려운 주의를 환기하는 정도에 그치게 되었고 엄밀히 말해 선교전략과 정책으로 보지 않게 되었다.

2) 피터 와그너와 랄트 윈터의 견해

선교정책과 전략은 하나님의 사역을 전제하고 선교 현장에서 활동하는 모든 계획과 전망을 제시 한 것이다. 이들은 예수님의 대위임령에 의거하여 주님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세워가는 것을 전략을 설명하는 기본으로 이해한다.¹²

3) 데이튼과 프레이즈의 10단계

이 두 사람은 선교정책과 전략을 만드는 외형적인 틀을 좀 더 구체적으로

10단계의 과정으로 다 루었다. 1선교에 대한 정의 2전도대상 3전도사역의 주체 4수단과 방법 5전략수립 6예상 결과 7전도해야 될 선교사의 역할 8 목표와 계획 9 행동과 재계획 10평가가 그것이다. 이들은 지금까지 이해한 영역보다 더 넓게 이해하고 현재 사용하는 수단과 방법을 활용할 때 미래선교를 전망할 수 있다고 보았다.¹³

(2) 선교신학과 전략과 전술 그리고 정책과의 관계

1) 선교신학과 전략 그리고 정책과의 모호성

선교정책과 전략을 구성하는 ‘선교목적-선교신학’, ‘선교목표-선교정책’, ‘선교전략-선교방법’, ‘선교 전술-선교 접근력’ 등의 관계는 서로 간의 이해와 해석에 따라 상호 보완하거나 혼용되고 혼란스럽 다.¹⁴ 이훈구는 이에 대한 실례로 넓은 의미에서 선교를 하나님 나라로 다루다가 갑자기 선교 현장에 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교전략으로 보기도 하고 또한 선교전략이 선교 현장에 따라 전술로 전환되기 도하고때로는선교전술이전략이되는현상을지적한다.¹⁵ 이에서한걸음더나아가박영환은 라틴아메리카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개신교 선교는 복음주의의 복음 선포 선교가 선교신학 혹은 선교정책이었고, 에큐메니칼 선교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며,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복음의 행동으로 선교신학을 선언한 것으로 평가한 뒤, 에큐메니칼 선교 신학이 가진 구체적이고 현장에 민감성이 큰 이유로 인해 복음주의 선교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해되어 복음주의 선교에서 선교정책과 전략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을 바르게 지적한다.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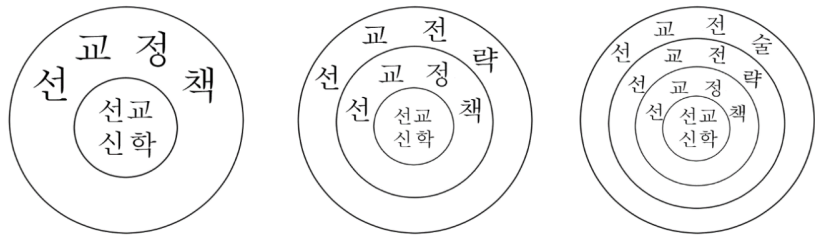
2) 선교정책과 선교전략의 모호성

모호성은 선교정책과 선교 전략 사이에도 발견된다. 선교정책과 전략의 개념은 선교 현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선교 정책이 선교 전략을 계획하며 실천하는 데 ‘선교 전략 안에서의 선교정책’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또 다른 견해는 선교 정책과 전략을 범위와 한계로 접근하기보다 선교 현장의 사 역들이 수단과 방법들로 이루어지다가 그 후에 이론적 틀을 만들면서 선교 역사에서 정책과 전략이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이다.¹⁷ 초기 선교 역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선교정책과 전략은 혼용 되어 사용되고 모호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을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선교를 지역별로 나누어 수행하고 있는 GMS 같은 경우를 보면, 지역별로 선교전략이 수립될 수 있 기 때문이다. 이 때 선교전략은 본부의 선교정책과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본부의 정책은 14개 지역 모두에 적합한 정책을 세워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역입장에 있어서는 선교전략이 세워진 이후에야 바른 선교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와 이론을 갖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선교전략이 우선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그러므로 선교 전략과 선교정책의 모호성은 선교주체의 주도권에 의해 생겨난 것임을 알 수 있다. 전통적으로 선교 에 있어 현장 선교사와 선교지가 선교 전략과 선교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 배제가 되었다. 역사적으로 윌리엄 캐리의 선교회를 통한 선교 정책은 선교전략으로 바뀌다가 오늘날은 선교의 기본요소로 바뀌었다.¹⁸ 결국 이 둘 사이의 모호성은 선교사와 선교지가 선교전략과 선교정책의 주도권을 분명 하게 갖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갈 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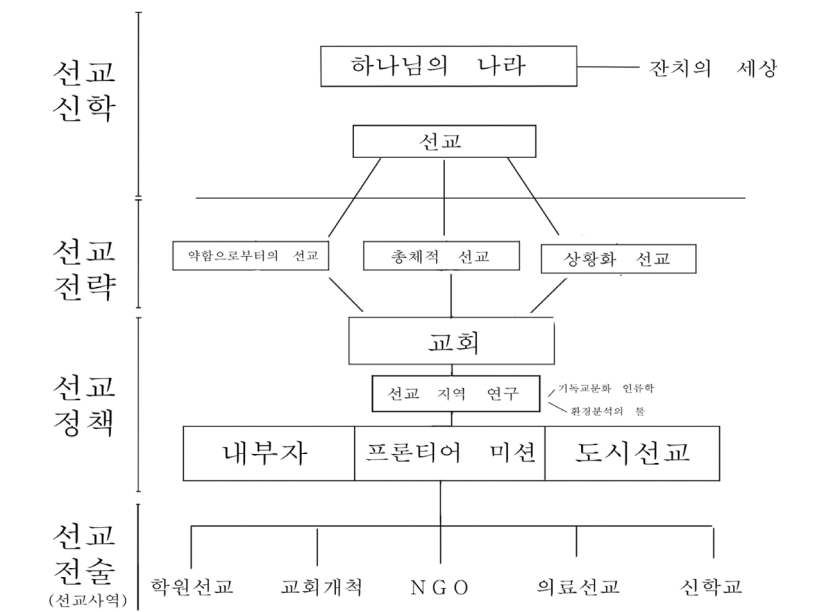
3) 도표로 본 관계

가. 기존의 이해

피터 와그너는 선교 현장의 다양한 주제와 선교사, 평가척도 등의 기준점을 바탕으로 선교정 책과 전략수립을 제일의 우선순위의 관계로 평가했다. 다음은 이것을 도표화한 것이다.¹⁹



나. 김동구



3. 전략적 선교를 위한 전제들

지금까지 선교정책과 전략을 선교 역사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김성태 교수는 피어슨이 주장한 환경적 요소, 신학사상의 연관성, 영적 원동력, 선교매체, 선교구조, 지리적 확장, 선교사, 지도력의 8가지로 분류한 것을 발전시켜 피어슨의 8가지 중에 지도력을 자신의 이해로 바꿔 복음화와 토착화를 추가한 9가지로 분류해서 당대의 신학적 사고가 선교전략과 선교정책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설명했다.²⁰ 박영환 교수는 선교정책과 전략은 선교 역사의 흐름과 선교 사상 특히 신학적 사상의 변화과정 속에서 형성된 틀이고 선교사는 이런 변화에 의해 선교사역의 유형과 목적 그리고 방향성을 갖고 선교현장으로 가는 데, 선교현장의 다양한 사건과 계획에 간극이 발생함으로써 그 이유를 규명해 가는 가운데 선교를 진행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정리한 것이 선교역사이고 이 내용을 분석한 것이 선교정책과 전략이라 할 수 있다고 말한다.²¹

(1) 성경과 선교와의 대화

선교신학과 성경학자들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지 못했고 서로가 서로의 연구결과물을 인정하지 못했다.²² 선교를 성경전체를 이해하는 해석학적 기반으로 삼는 것인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으로 크 리스토퍼 라이트는 기존의 선교의 성경적기초에 대한 연구를 뒤집고 성경의 선교적 기초에 대한 토대를 놓는 시도를 했다.²³ 그가 쓴 하나님의 선교는 그의 연구의 결과물이다. 선교학자들과 신학자들 사이의 긴장관계가 해소되면서, 성경과 선교와의 대화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 가운데 (선교학

자들을 포함하여)신학의 다른 분야들이 성경학의 도움을 필요로 하듯 성경학도 다른 분야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²⁴

1) 총체적 선교

2004년 태국 파타야에서 세계 선교선교를 위한 포럼(the Forum for World Evangelization)이 ‘A New Vision, A New Heart, A Renewed Call’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여기에서 르네 파딜라에 의해 최 초로 총체적 선교라는 대한 개론적인 소개가 있었다.

야고보서 2:15-17절의 전망으로부터 총체적 선교는 그 하나님의 필요를 포 함하여 식량, 사랑, 주택, 의복,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건강,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인간의 필요들의 충족을 향해 방향 지어진 선교이다. 여기에 더 나아가 이 접근은 인간들을 영적이고 사회적이고 육체적 존재로서 간주하게 했다. 결국 이것은 인간 이 사회 안에서 가져야 할 개인적인 관계와 지위 없이 개인의 영적인 복지를 돌보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가정한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을 향한 사랑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보았다. (마 22,40). 그러므로 ‘총체적 선교’ 에 대해 말하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청지기로 간주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형성으로 방향 지어진 선교이다.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꺼이 성취 하고자 하는 자들이며, 정의에 대해 배고픔과 목마름을 갖고 있는 자들이며, 또한 화평케 하는 자들이다. (마 5:6-9)²⁵

총체적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재조명과 결부되어 있다. 이전 까지의 선교의 오류가 선교 과업에 축소에 있었다는 반성과 아울러 복음에 대한 넓이와 능력을 축소했다는 의미에 대한 확인으로 말미암았다.²⁶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온전한 이해는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하나님의 선교의 과업은 무엇인가? 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과 깊이와 넓이를 원래대로 해석하는 결과에 이르게 했다. 따라서 하나님의 총체적인 선교과업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의 총체적 복음이 해답이 된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이러한 선교에 대한 전제를 새롭게 하는 작업을 통하여 자연농업, 적정기술, 지역사회 개발선교(CHE), 비즈니스 선교(BAM), 전문인 선교 등의 전략적 선교 영역이 개발되게 되었다.²⁷ 그러나 현장에 있는 한국 선교사들은 총체적 선교가 선교라는 그럴듯한 간판을 내걸고 목적을 상실하거나 약화되어버리고 영혼구원과 거리가 먼 사회사업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버린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다.²⁸ 그러나 이것은 명백하게 오해이다. 김세운 교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해방의 복음인 것을 주장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는 곳에는 신분적, 성적, 인종적 구별에 의한 차이가 없어져야 하고 노예와 여성이 해방되고 가난한 자들의 인권이 증진이 된다는 것이다.²⁹ 그의 주장에 따라 우리는 총체적 선교는 복음주의 선교와 에큐메니칼 선교의 협력을 강조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설명하는 가장 적합한 용어라고 말할 수 있다.

2) 상황화 선교

상황화 선교라는 이 내용만 해도 논의가 진행 중이고 학자들마다 의견과 해석이 분분하다. 그럼에도 이것을 선교전략과 관련해서 거론해야 하는

이유는 기독교 선교가 가진 특징 때문이다. 기독교의 선교는 하늘에 봉
 떠 있는 현실 세계와 개개인의 체험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형이상학적 이
 데아의 세계를 전하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 선교는 언제나 선교의 메시
 지와 그 선교의 메시지를 펼쳐 지는 역사적인 정황 속에 있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런 이해는 자유주의 신학에 의한 기독교 메시지의 역사성
 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비롯되게 되었다. 그래서 기독교의 선교는 점점 더
 메시지보다 메시지를 전하는 수신자의 입장과 상황을 존중하는 분위기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경향에서 주장되고 있는 선교전략이 상황화 선교전
 략이다. 혹자는 상황화 선교 전략을 성육신적 선교전략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며 상황화 선교를 절대적으로 지지한다. 한편으로 상황화 선교가
 가진 혼합주의와 다원주의적 위험성으로 인해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를 케리그마로 온전히 문화적인 차이에 관계없이 선포해
 야 한다는 극단적인 입장도 있다. 이런 주장과 더불어 복음의 메시지는 그
 대로 유지하되, 복음을 입히는 옷은 현지 문화에 맞게 해야 한다는 비판
 적 상황화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다. 상황화가 하나의 의견과 전략으로
 합의된 일치에 이르지 못했는데, 상황화 선교전략을 이야기하는 것은 선
 부른 경솔함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스리랑카의 신학자 파에리스가 기독교가 아시아에서 아시
 아인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는 이유들을 말하는 부분에 귀를 기울인다면
 상황화의 논의를 가벼이 대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을 십분 공감할 수 있
 다. 첫째, 아시아에는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같은 수준의 형이상
 학적 초자연 종교가 자리잡고 있었다. 둘째, 아시아의 눈에서 볼 때, 기독
 교는 식민지 서구세력의 침범으로서의 종교로 이해되었다. 셋째, 아시아

신학자가 만든 그리스도는 엘리트 지배층의 소수 특권층을 위한 그리스도였다.³⁰ 아시아인에 비친 기독교의 모습이 같은 아시아인인 우리 한국 선교역사에 비친 기독교의 모습과 너무나 다르게 보인다. 신분제도와 남녀차별을 철폐한 것은 조선에 대한 기독교 선교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다.³¹ 그러나 우리 한국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피선교대상인 아시안들의 눈에 비친 기독교는 우리가 본 기독교와 너무나 다르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구 기독교의 선교는 서구적 이성주의 즉 근대적 이성 우선주의와 맥을 같이 한다. 인간이 이성에 의한 인식론적 접근으로 진리와 믿음 그리고 복음을 서술해 온 서구의 기독교는 기독교의 선교가 발 딛고 있는 세상을 도외시하고 도그마적 자세로 선교를 감당하게 했다.³² 이것은 서구의 기독교 전통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지만 기독교 선교는 서구의 전통이 아닌 성경의 입장을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기독교의 구원은 두 가지의 면을 가진다. 초월과 내재이다 초월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떠나 계셔야 구원사건이 발생하다는 의미이다. 내재는 하나님이 초월해 계시므로 구원사건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재하지 않으시면 그 구원은 은혜의 구원이 아니라 자력 갱생의 구원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구원사건을 온전하게 이루시고자 인간의 역사 속에 침투하신 사건이다. 그 로고스를 그 시대의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들이 그의 인격과 삶 그리고 행위를 통해 온전하게 보여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되어 그 인격적인 삶과 행위를 통해 구원의 실재를 논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 사후 바울의 복음은 성육신 사건에 대한 해석이어야만 했다. 왜냐하면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가 이 땅에서 부활해 하나님 나라로 가버리는 승천의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 사건을 해석해야만 했다. 그런데 바울의 이 해석은 모두 헬라적 문화를 가진 이방세계를 향한 해석이었다.

성경은 바울에게 있었던 이 세 가지의 해석의 문제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첫째는 복음 메시지의 헬라적 상황화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나라의 기독교적 복음의 메시지를 헬라적 구원론의 메시지로 전환한 것이다.³³ 둘째, 예루살렘 공의회 문화적 상황화이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방 세계에 일어난 문화적 갈등을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방식대로라는 새로운 인식의 틀을 제공해 주는 사건이었다.³⁴ 셋째,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가 직접 말씀하신 것을 자신의 말로 뒤집고 상황화 한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복음전하는 자는 복음 전하는 자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뒤집고 자기는 텐트 메이커로서 살고 있다고 말하면서, 고린도교회를 향한 자신의 사도성을 주장한 것이다. 그 때 당시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에 속한 철학자들은 방랑 철학자들이었다. 이들은 광장 어귀에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철학을 설파한 후에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그것으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사도 바울은 헬라 세계 안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전하는 자들이 헬라 세계의 방랑 철학자들과 동일시될 것에 대해 우려했던 것이다.³⁵ 그래서 유대 사회 안에 복음을 전할 때 예수께서 강조하신 것을 문화적 상황에 비추어 차별화³⁶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크로싼은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견유철학자들 사이의 가장 눈에 띄는 유사성은 의복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제자들 누가복음 10

장 4절에서 신발을 신지 말라는 명령을 받는다. 이는 방랑하는 건유철학자들과 비슷하다.³⁷ 그러므로 유대교 전승(=구약적 배경)의 복음을 헬라 세계에 안착시킨 바울의 본은 우리에게 상황화 선교의 전략을 환기시킨다. ‘한국식 선교를 하지 말라’는 서구 선교단체의 비판 목소리에는 한국식 선교가 독특한 아시아적 틀을 갖고 선교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서구 선교가 시행해 왔었고, 실패라고 결론 내렸던 선교 방식과 태도를 답습하지 말라는 경고가 내포되어 있다.³⁸ 이것은 서구 선교단체의 비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대위임령을 주실 때 하신 말씀이다.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 28;19)

3) 약함으로부터의 선교(십자가 선교)

레슬리 뉴비긴은 예수님께서 어둠의 세력을 노출시켜 무장해제시키셨을 때, 남아 있는 교회는 약함으로부터의 선교를 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현하려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³⁹ 교회가 세상의 힘의 형태로 하나님 나라의 힘을 설명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징표가 될 수 없 다는 것이며, 교회가 어둠의 세력의 가면을 벗기고 교회의 희생을 전담으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선교를 할 때, 교회는 하나님 나라로부터의 징표로 치유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을 주장한다.⁴⁰ 데 이빗 보쉬는 ‘선교하는 것’을 이렇게 이해한다.

선교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 전적인 관여와 포괄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종의 모습으로 말과 행동을 통하여 증거할 때 일어난다. 그것은 불신앙, 착취, 편파적 차별, 그리고 폭력 등을 다룰 뿐만 아니라 구원, 치유, 해방, 화해, 그리고 의등을 총망라한다.⁴¹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십자가 상에서 그리스도의 경험은 메신저인 자신에게 삶과 그의 메 시지에 나타나게 된 것을 설명하는 가운데 그의 약함은 단지 메신저들의 삶과 사역에 수반되는 선택은 아니라 그에게 있어 그리스도의 약함은 삶과 사역의 본질적인 부분으로써 나타나야만 했던 실제적인 전략이었음을 주장한다. 그리고 그는 이것으로 복음의 진정성이 입증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⁴²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선교는 각각 오늘날 현대 선교에 있어 중요한 선교시대 혹은 선교 경향으로 주장되어지고 있다.⁴³ 그러나 대부분이 서구 기독교 선교에 대한 반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서구 기독교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타 문화권 선교의 자세와 태도인 것을 이해한다.⁴⁴ 전략은 어떻게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이 땅의 우상과 사단의 나라를 부수고 기독교 선교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듯이 이런 입장에서 기독교 선교 전략이 논의된다면, 선교전략은 경영전략과 군사전략을 모방하면 된다. 성경에 바탕을 둔 선교전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선교전략은 우선 선교를 하는 선교사들과 피 선교국가들의 교회들의 타문화권과 피선교지 현지들에 대한 자세와 태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⁴⁵ 본질적으로 선교는 섬김이며⁴⁶ 이 섬김을 형식화하고 형성하는 체계적이며 조직적으로 구성한 방법 이 그리스도 예수와 바울의 선교전략이었다라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2) 사회과학적 분석과 평가 도구 활용 - 선교정책과 전술적 측면

1) 선교지역연구

전략 수립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은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곳에 대한 기초연구자료이다. 본 연구자가 선교지 캄보디아에 도착했을 때, 현지와 관련해서 연구된 기초자료라고 할 만 한 것은 선교지 역사와 민속학적 수준의 정보가 전부였다. 지금 현재도 GMS 맥도가 발행하는 인도 차이나 연구지나 프놈펜 선교 포럼에서 제기되는 발제 주제의 대부분은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시행 되고 연구될 수 있는 주제들이 대부분이다.⁴⁷ 물론 많은 선교사들이 나름대로 지역에 대한 나름의 기초적 수준의 연구를 진행해 놓은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자료들은 한 곳으로 모아져 토론 과 검증을 통해 연구자료로 재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선교사들이 현장에서 느낀 작은 갈 등과 의문 그리고 경험들을 글적 이듯이 쓴 메모일지라도 그 가치를 인식하고 그 자료들을 수집하는 일을 해야 한다. 지역연구에 대한 기초자료 없이 선교전략을 논의하고 수립하고 제시하는 것은 시 각 장애인에게 우리의 길의 안내를 맡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캄보디아 선교전략에 대해서 나름의 소신을 갖고 있는 선교사들은 그 소신과 확신의 기초가 되는 지역 연구 자료를 공유해야 한다. 연구자료 없는 전략은 추측과 가정에 의해 세워진 것이다. 추측과 가정에 따라 세워진 전략들을 학위 와 선교사역의 경험으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 선교전략과 관련된 학위 논문이 선교지의 선교사 들보다 한국에 선교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쓰이고 제기되고 있는 것은 실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캄보디아 한국 선교사들이 전략적 선교를 하기 원하고 그것이 바른 길이라고 인정한다 면, 우리는 한인 선교사회 중심으로

선교지에 관련된 기초연구자료들을 나누고 수집하고 공유하고 중국에는 데이터 베이스화해 해야 한다.

2) 환경분석의 툴(tools) 이해도

선교지역연구는 전략 수립을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필요한 것은 선교사가 선교사역을 펼칠 곳에 대한 환경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환경분석의 툴을 알고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전략 수립에 있어 기본적인 과정이고 절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자가 최근에 선교 컨설턴트 자격 과정이라는 수업을 듣고 있는데, 여기에 참석해서 수업을 듣는 각국의 선교사들 대부분이 환경분석과 관련된 툴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었다. 캄보디아 한인 선교사인 우리들이 환경분석에 대한 툴을 이해하고 이 툴들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의 사역은 전략적이라 할 수 없다. 선교전략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 될 수 있다. 이 분석의 툴은 사회과학 모든 면에서 검증되고 사용되고 있는 툴들이다. 거시환경분석에는 PEST와 STEEP분석이 활용되고 있다. PEST는 거시 환경분석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론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는 분야의 주요 요인을 정치/정책적(Political), 경제적(Economic), 사회적(Social), 기술적 (Technological) 사안으로 분류하여 상황을 객관화하는 방법론이다.⁴⁸ 내부여건분석은 조직이 가진 자원과 핵심역량, 문화, 리더십, 조직구조 등과 같은 조직 내부의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서분석을하고조직역량을집중하도록돕는이론적방법론이다.⁴⁹ SWOT분석은앞의두분석방법을 기초로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의 머리 글자를 모아 만든 단어로 조직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분석도구이다. 이 전략전략들은

기업의 경영 전략에 주 로 사용되던 분석도구들이었으나, 최근에는 기업을 포함한 모든 조직들과 조직교회 안에서 전략수립 에 필요한 분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⁵⁰ 타드 볼 싱거 교수는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수행 하기 위해 교회가 위치한 지역공동체의 환경과 관련하여 SWOT 분석을 활용해서 목회자(선교사)와 교회 공동체 내부의 변화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끊임없이 변화할 필요를 주문하고 있다.

3) 예측가능성

선교전략(전술)에 따라 선교를 하게 될 때, 그 전략(전술)에 의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예측 가능성이다. 이 전략을 수행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오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충분한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 선교사들이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혹은 계획하고 있는 사역들이 미래의 결과와 문제점 혹은 기대 등이 전망이 된다면, 전략적 선교를 하고 있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예측 가능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전략적 선교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4) 생산성과 효율성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정된 자원과 한정된 시간에서 최대 생산성과 효율을 올리는 방법과 길을 찾고 연구하는 것이 전략(전술)이다. 이 생산성과 효율성에 근거 하여 사역지의 선택과 사역의 종류와 사역 대상 등이 결정되지 않았다면, 전략적 선교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러나 타 전략과 전술과 이 부분에서 선교전략(전술)은 큰 차이를 보이는 데,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그러나 대부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을 가운데 사역을 계획하고 진행

한다 하더라도, 그 열매와 결과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다른 방법으로 증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을 선교역사는 증명한다.

5) 평가와 피드백 가능성

선교가 전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그 선교에 대해서 우리는 평가와 피드백이 가능해진다. 전략에 따라 수행해 온 것을 통해 평가와 피드백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선교사들이 자신이 계획하고 수행하고 있는 사역들에 대해서 평가와 피드백이 자신뿐만 아니라 외부 선교사들에 의해서 가능하 다면, 그 선교사역은 전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분석되고 평가될 수 있다.

(3) 선교사의 자기이해 - 한국적 신학에 대한 반성과 성찰

선교정책과 전략의 큰 울타리가 선교신학이지만, 선교사, 선교현장, 그리고 선교현지인과의 효율적인 관계로 좋은 결과를 바라며 실천하는 것이 선교정책과 전략이다.⁵¹ 그럼에도 선교사와 선교현장이라는 기본 요소는 선교정책과 전략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어 왔다. 선교를 전망하는 데 있어선 교사와 선교현장은 선교정책과 전략 연구 대상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⁵² 이와 같은 현상은 선교의 이론적 부분을 선교와 문화 인류학, 종교학, 그리고 사회학이라는 넓은 영역 속에서 여전히 서구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⁵³ 그러나 선교 사역을 누가 주도하며 누가 인도하는가? 선교사들이다. 선교사는 위로부터 선교정책과 전략을 받고 자신의 신앙고백에 기초해 모든 가치 기준 체계와 효율적 체계를 세운다.⁵⁴ 뿐만

아니라 선교사의 열정과 헌신이 선교정책과 전략을 세우고 방향을 설정하며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선교를 추진하는 것은 사실이다.⁵⁵ 그러므로 선교사들은 전략적 선교를 실행함에 있어 자신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첫째, 한인 선교사들의 선교적 환경에 대한 이해이다. 박영환 교수는 서구 선교사들은 비서구 선교사들이 서구 선교정책과 전략을 연구하기 시작하자 선교 역사에서의 서구 선교사의 과오만을 지적 하지 말라며 서구 선교사들이 저지른 과오와 실수를 비서구권 선교사들도 범하고 있다는 연구물을 내놓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이런 반복된 실수의 배경에 선교의 주도권이 파송 하는 기관에 치우쳐져 있다는 것과 선교의 주도적인 매체보다 간접적인 매체에 선교의 무게를 실었기 때문이라고 밝힌다.⁵⁶ 한국을 포함한 10개국 중 사역 포기 원인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한국 선교사들의 사역 포기 원인 1위가 대인관계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 문제는 다른 국가 선교사들의 사역 포기 원인이 5위인 것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⁵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선교가 선교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박영환 교수는 선교사의 종말론적 신앙고백과 선교에 대한 철저한 헌신과 열정 때문이다. 또한 파송 교단의 신앙적 지도 때문으로 본다.⁵⁸ 우리는 한국 선교사이다. 우리는 박영환 교수의 평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한국 선교사는 파송기관과 동료 선교사들과의 경쟁에 끼인 채 헌신과 열정으로 사역하고 있다.

둘째, 한인 선교사들의 신학적 배경에 대한 이해이다. 이 배경은 나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진술한다. 나는 총신신학대학원 출신의 합동, GMS 선

교사이다. 성경무오 사상을 목숨같이 지키는 개혁주의 라 말하지만 실상은 근본주의에 가까운 신학을 배웠다. 신학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지만, 실상은 판단하고 심판하는 성격이 강했다. 신학으로 이단을 판단하는 경향을 보였다. 메이 첸과 박형룡의 신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종말론은 철저종말론을 따른다. 교회론은 구약적 성전신학에 가깝다. 성경의 통일성을 주장하기 위해 연구된 언약사상과 구속사 신학을 신학의 중심으로 삼고 있다. 선교에 대해서는 타문화권에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충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가진 신학을 중심으로 볼 때, 나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회를 중심으로 개인구원과 성화를 중심으로 밖에 할 수 없고, 선교에 있어서 구령을 열정을 가지고 구약적 성전에 이해를 둔 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의 기독론적 선포와 바울 복음의 구원론적 선포의 복음은 그 복음이 지향하는 공동체를 통해 증거되어지고 증명되어진다고 말한다. 바로 교회를 통해서이다. 하지만, 오늘 한국 교회가 지향하는 신학에 의해 형성된 교회는 코로나 사태와 대통령 탄핵 사건을 거치면서, 정치화되고 게토 화되는 현상을 드러내고 말았다.

셋째, 신앙 배경에 대한 이해이다. 한인선교사들 대부분이 경험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가 신앙 생활을 할 때, 전국 방방곡곡에 중고등부 학생회가 있었다. SFC 단체에 의해 시골까지 청소년 연합회 활동이 활발했었다. 수련회는 정말 은혜의 도가니였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신비적 사건과 방언과 같은 은사적 사건이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거의 선동에 가까운 복음 선포였지만, 그 선포를 듣고 부르짖고 외

치면서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런 경험은 목회 현장에서도 설득과 논리적인 성경 주해에 의한 선포보다 감정과 행동을 촉구하는 선동적 선포의 형태를 갖게 했다. 선교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배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낯선 문화권 안에서 선교를 감당하고 있다. 서구 선교사들의 실 패는 성경으로 자신들의 신학을 비춰보지 않고 서구 문화와 기계 문명을 비서구 지역에 선구문화를 전달하는 매개체로 선교를 사용한 것에 있었다.⁵⁹ 이들의 선교적 반성 역시 성경이 아닌 이들의 실 패와 과오를 통한 것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역사적 예수 탐구가 주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역사비평적 관점에서 성경이 파편화된 상태에서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가 신학과 선교학의 연구대상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경향에 대해서 김세운 교수는 1980년까지 지속되 었고, 1980년 이후에야 비로소 해소되었다고 말한다. 종말론에 있어서도 철저종말론은 서서히 받아 들여지지 않는 느슨스가 되어 가고 있다. 톰 라이트와 같은 신학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강조하고그나라가이땅에서현재진행중인것에대해주목할것을강조하고있다.⁶⁰ 우리가붙들고 있는 신학은 복음주의적 근본주의이면서 예배와 삶과 교회의 사역은 철저종말론에 입각한 영혼 구혼과 내세 천국을 지향하는 구속적 신학으로 개인의 경험이 강조되고 높게 평가되는 현상을 보인다고할수있다.⁶¹ 나는이것을한국적신학이라말하고싶다.신학교를다니면서한국목회는관 계라는 말을 종종 들었다. 그리고 학우들이 도서관보다는 운동장을 주무대로 삼는 것을 보았다. 실 천에 근거한 성경읽기에 있어 이미 탁월해 있었다. 우리는 우리에게 대한 이해를 통해 선교지에 우리가 어떤 선교전략으로 사역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복음의 메시지와 메 신자와 복음선포의 결과로서 드러나는 교회의 완전한 그림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신학 을 다시 볼 필요가 있다.⁶²

결론

선교전략에 대한 이해와 논의는 선교사 각자에게 필요할 수도 있고 귀찮은 일일 수 있다. 성경에 선교라는 말이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선교전략이라는 말은 더더욱 없다. 선교전략은 선교사 개인 의 선택에 달려있다. 선교라는 말은 타문화권 하에서 이루어지는 전도사역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라는 서구 선교학자들의 분석적 사고로 인해 등장했다. 선교전략 역시 타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선교 현지에서 부딪힌 다양한 경험과 문제극복의 과정에서 등장했다. 한국 선교사들은 서구 선교사들의 눈에 무대포처럼 선교하는 것 같지만, 내가 보기에 가장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선교전략 중 적어도 선교사의 삶과 관련해서 가장 부합되게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서구 선교 의 반성에서 비롯된 현장 중심과 타문화 중심에 대한 이해를 이미 한국 선교사들은 현장에서 현지 인들과 호흡하고 함께 부대끼며 감당하고 있다. 한인선교사회 소속 회원 선교사들 중 200여 가정이 지방에서 현지인들의 삶 안으로 들어가는 수고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이다.⁶³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선교전략으로 이해하기보다 복음 전하는 선교사의 당연한 삶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서구 선교사들이 당연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보다 문제 의식에 있어 치밀하지 못하게 보이는 것일

뿐, 실제의 삶에 있어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전략적 이라고 말하고 싶다. 선교전략을 통해 캄보디아 선교를 바라본 시도는 주삼 한인선교사들이 하는 현장 중심의 선교가 주님이 몸소 보이신 선교전략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해 주었을 것이다. 바울은 헬라 문화 안에서 그대로 적용하였다. 선교전략은 타전략과는 다른 근본적인 특징이 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보았듯이 선교전략은 우선적으로 피선교국과 선교사의 태도와 삶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교사의 삶과 태도에 대한 것을 좀 더 전략적 차원으로 승화시킨 것이 우리가 살 펴본 선교전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제한된 시간과 자원 속에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선교를 감 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여타 전략들이 전제하고 있는 기본요소들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우리 모두는 이제 그 시작은 선교사 개개인이 경험한 것과 느끼 고 배운 것을 우리가 공유하고 나누는 일임을 공감할 것이다. 우리 주삼 한인선교사들은 서구 선교 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그들이 이루어 놓은 분석적이고 체계적인 선교의 결과물들을 잘 수용하 고 배워서 우리의 선교가 아니라 주님의 선교가 되게 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
- 1 주삼 한인선교사회는 한인 선교사를 한국과 미국의 한인교회에서 캄보디아로 파송을 받은 한인들 을 한인 선교사로 규정하고 있다.
 - 2 주삼 한인선교사회 선교 30주년 준비위원회 서기 및 30년사 편찬 책임자로 섬기고 있으며, 현재 풀러신학교 박사 과정 중에 있다.
 - 3 김은수, 현대선교의 흐름과 주제, 대한기독교선회 2001, 102-103.
 - 4 박영환은 미래 선교는 선교 정책과 전략을 구성하는 데 있어 총체적인 접근과 통합적인 선교현장의 과제와 신학적 흐름을 파악해야 할 것을 주장한다.
 - 5 김승호, 타문화권에서 신학적 개념을 나누는 상황화 모델 제시, 선교를 위한 문화인류학, 한국복 음주의 선교신학회. 325
 - 6 강창윤 선교사와 인터뷰
 - 7 정흥호, 문화와 상황화, 선교를 위한 문화인류학, 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 278
 - 8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 출판사

- 9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 출판사 12-13.
- 10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 출판사
- 11 Wilbert R. Shenk, Changing Frontiers of Mission, Orbis Books, 1999, 103.
- 12 랄프 윈터, 스티븐 호돈, 정옥배 옮김 미션 퍼스펙티브 예수전도단 1999 313-314.
- 13 Edward R. Dayton, David A. Traser, Planning Strategies for World Evangelization, Grand Rapids, 1980. 를 참조하라
- 14 박영환, 선교정책과 전략 형성 이전의 배경사. 85.
- 15 이훈구, 선교전략의 정의에 관한 연구, 선교신학 11집 2005 181.
- 16 박영환, 선교정책과 전략 형성 이전의 배경사, 85.
- 17 위의 책 88.
- 18 이훈구, 선교전략의 정의에 관한 연구, 선교신학 11집 2005. 202.
- 19 C.P. Wagner, 전호진 역. 기독교 선교전략. 생명의 말씀사 1990, 19. 20 김성태, 현대 선교학 총론 이레서원 2000, 202.
- 21 박영환, 위의 책. 95.
- 22 로버트 니센, 최동규 옮김, 신약성경과 선교, CLC, 19.
- 23 크리스토퍼 라이트, 하나님의 선교, 정옥배 한화룡 옮김. lvp. 35-72
- 24 위의 책, 20.
- 25 "A New Vision, A New Heart, a Renewed Call"
Holistic Mission Occasional Paper No. 33
Lausanne Committee for World Evangelization
In Pattaya, Thailand, September 29 to October 5, 2004. 14.
- 26 <http://malawilove.org> 총체적 선교의 하나님 나라 이야기
- 27 위의 글
- 28 <http://www.koramdeo.com> 총체적 선교의 허와 실
- 29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출판사, 12.
- 30 Pieris Aloysius. (1966). Fire and Water: Basic Issues in Asian Buddhism and Christianity. Faith Meets Faith. Maryknoll, N.Y: Orbis Books, p.66-67.
- 31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서울:두란노 출판사, 6.
- 32 김성욱, 문화인류학의 동향과 제이론들, 선교를 위한 문화인류학, 한국복음주의 선교신학회, 100.
- 33 김세윤, 바울 복음의 기원을 참조하라
- 34 미전도종족선교연대, 성경이 말하는 CAS, 사도행전(7) 예루살렘 공의회
- 35 윤철원, 복음신학서 특강 : 한권으로 읽는 예수의 생애와 사상을 참조하라
- 36 이 차별화와 관련해서 캄보디아 선교를 살펴보면, 두 가지의 점에 대해 우리가 고민하고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불교 승려들이 가지고 있는 백성들을 가난과 질병을 대신하는 고난과 희생의 상징성이다. 본 연구자는 이것을 깨달은 후, 우리 선교사가 이러한 상징성을 구현해 내거나 이들 이상으로 뛰어 넘을 수 있는 상징성을 이들에게 제시할 방법이 없다는 현실을 자각했다. 둘째, NGO로 대별되는 구제사역이다. 캄보디아에 사역하는 절대 다수의 NGO는 기독교 계통이다. 이들 NGO들은 정치나 종교와 구별되어 오로지 구제와 지역개발에만 몰두해야 한다. 그러나 캄 보디아 NGO는 선교적 마인드를 갖고 있다. 이 단체들은 막강한 자본과 인력을

갖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구호와 개발사업을 펼치면서 현지 스텝들에게 기독교를 전한다. 한국 선교사들의 사역도 구제와 개발 사업을 도구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결과는 교회와 NGO의 경계가 무색해진 것이다. 앞에서 제기한 이 두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사역을 불교와 NGO들과 차별화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 37 윤철원의,복음서신학특강:한권으로읽는예수의생애와사상
- 38 정흥호, 문화와 상황화, 선교를 위한 문화인류학, 한국복음주의 선교신학회. 276
- 39 레슬리 뉴비긴,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108 1989
- 40 위의 책, 108
- 41 데이빗 보쉬, 세계를 향한 증거 1980, 18
- 42 정용갑, 약함으로부터의 선교, 119
- 43 박영환, 신학과 선교, 선교정책과 전략형성 이전의 배경사, 96
- 44 로버트 니센은 이러한 원인들이 성경학자들과 선교학자들이 서로 상대방의 연구를 무시하는데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로버트 니센, 신약성경과 선교, 19, 최동규 옮김, CLC
- 45 콘필드는 선교사가 타문화권사람들을향하여 가져야 할 두가지의태도를 그들의문화에대한 이해와 더불어 그 사람들을 그 모습대로 존경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Kornfield, 1989,19 재인용
- 46 정용갑, 약함으로부터의 선교, 168 지혜와 일곱기둥 2009.
- 47 뉴스브리핑 캄보디아, 캄보디아한인선교사 이야기, 제 24회 캄보디아에 대한 연구, 프놈펜 포럼 10년을 참조하라
- 48 LaoandJiang,2009.
- 49 <http://www.mbanote.tistopt.com>
- 50 LaoandJiang,2009.
- 51 연예인과 유명인을 중심으로 한 간증집회는 문전성시를 이룬다.
- 52 김세윤, 칭의와 하나님 나라
- 53 박영환, 선교정책과 전략 형성 이전의 배경사.
- 54 김세윤, 칭의와 하나님 나라.
- 55 한국선교세계협의회, 한국선교사 현장사역보고서, 2000 8,16-17: 박영환 핵심선교학 개론, 16 56 위의 책
- 57 윌리엄 D 테일러 VUSWLQ 백인숙 김동화 정민영, 인현모 변진석 옮김 “잃어버리기에 너무 소중 한 사람들” 조이선교회 출판부 1993 68에서 응용하여 제시한 것이다.
- 58 박영환, 세계화와 한국교회의 세계선교 신학과 선교 서울신학대학 출판부 2002 27권 183-189. 59 위의 책 90.
- 60 톰 라이트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나라를 참조하라
- 61 연예인과 유명인을 중심으로 한 간증집회는 문전성시를 이룬다.
- 62 김세윤 교수의 칭의와 하나님 나라를 참조하라
- 63 주캄 한인선교사회 서기 장요한 선교사와의 인터뷰

<선교 전략으로 본 캄보디아 선교>에 대한 논찬

임성철 선교사

매우 크고 광범위한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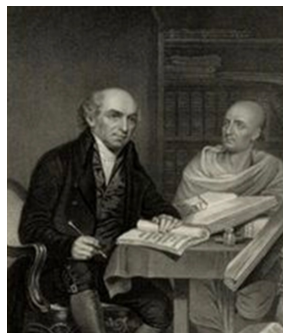
어느 시기의 선교 전략?

누구의 관점?

선교=선교+전략

군사 전략과 경영 전략과 구별화시켜 해석

‘승리’만을 도모하는 것이 아님



윌리엄 캐리 1761 - 1834

<선교 신학 속 선교 전략>

선교 현장에서 늘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여러 현상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가의 근간은 결국 신학에 근거하여 해석할 수 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들이 이러한 신학적 토론의 장에서 고민한 내용들을 나누는 시도들을 해 왔습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1810년에 아프리카 케이프 타운에서 선교사들 모임을 개최하여 현재 고민되는 여러 문제들을 함께 다루자는 제안

200년이 지난 2010년에 그의 제안을 기념하기도 하면서 케이프 타운에서 로잔 3차 대회

한국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들의 관계가 매우 좋지 못했었습니다.

중국에서 거의 30년간 선교하던 네이비우스 선교사가 한국에 방문하여 (1890, 2주간) 4,5년 한국에서의 선교 경험이 있던 저들과 함께 앉아 오랜 시간 토론하면서 제안된 내용이 네이비우스 정책



John L. Nevius 1829 - 1893

고민과 더불어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고 어느 정도 결론에 다다르게 하는 기초에는 선교를 이해하는 신학이 늘 깔려있게 마련입니다.

1910년에 영국 에딘버러에서 열렸던 에딘버러 선교 대회와 거기에서 나온 선언문이나, 1차 로잔 대회가 끝난 후 3년 뒤에 풀러 학파들 중심으로 발표되었던 ‘수신자 중심의 선교’ 사역 내용 중심의 월로우뱅크 보고서 같은 내용들, 그리고 로잔 2차 대회 후 발표되었던 마닐라 선언문 등등의 내용들은 한결같이 현장 선교사들과 선교 신학자들이 함께 모여 고민하면서 만들어낸 선교 신학의 입장과 그 입장에 근거한 선교 전략의 내용들입니다.

1910년 에딘버러 선교 대회 안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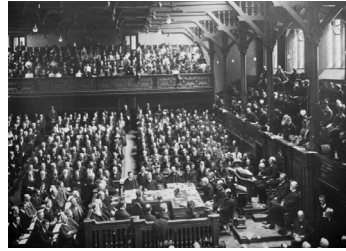
- #1: 전 세계에 복음을
- #2: 선교지에서의 교회
- #3: 현지인들의 삶을 기독교화 시키기 위한 교육
- #4: 비기독교 종교들에게 필요한 선교사의 메시지
- #5: 선교사 훈련

#6: 선교의 전초 기지

#7: 선교와 행정 관리

#8: 상호 협력과 연합 증진

#9: 회의의 역사와 기록 관리



저자 역시 간략하게 언급하기는 했지만 ‘선교 신학의 혼란’의 문제는 끊임 없이 진행되어져 왔고, 앞으로도 피할 수 없이 계속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1910년에 있었던 에딘버러 선교 대회에서 조직되었던 IMC(국제선교사모임, 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가 50년이 지난 1961년에 WCC에 흡수되면서 선교 신학의 두 갈래 길은 험난하게 갈등하면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1974, 1차 로잔 대회(스위스)



1989, 2차 로잔 대회(마닐라)



2010, 로잔 대회(케이프 타운)

결국 1973년에 방콕 대회에서는 “구원이란 인권에 대한 정치적 억압에 항거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다. 구원이란 개인의 삶 속에 도사리고 있는 절망에 항거하여 희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복음주의 선교사들을 긴장하게 만들면서 크게 양갈래 길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The founding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in Amsterdam - 1948



저자는 이러한 갈등 국면에 있는 두 방향에 대해 ‘총체적 선교’를 성경과 선교와의 대화라는 전제 속에 제시

존 스토틀 목사:

그는 처음부터 <선교=복음 전파>만을 강력하게 주장하던 복음주의 입장에 서 있던 분



1973, 방콕 선교 대회



타종교와의 대화(Salvation Today)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말자



그리고 1970년 프랑크푸르트 대회에서 “우리는 우리 시대에 관한 사회정치적인 분석과 비기독교적 세계의 요구에 의하여 선교의 본질과 임무를 결정하는 현재의 경향을 반대한다”는 결론을 지

WCC가 주관하는 선교대회에 자문 위원으로 참여를 하면서부터 복음주의자들의 사회적 책임이 무척 미약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됨

1974년 제1차 로잔대회에서 “전도와 사회·정치 참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의 두 부분임을 인정한다”는 로잔 언약을 빌리그레이함과 함께 발표하여 총체적이며 통전적인 선교개념을 복음주의 선교에 접목을 시키는 역할



로잔 대회 / 빌리그레이함과 존 스토틀

그리고 2차 로잔대회를 끝내고 마닐라 선언문을 채택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WCC가 지향하는 위험성은 경고하지만 에큐메니컬 그룹처럼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것을 시인하고 참여할 것을 촉구하면서 “우리는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든 구조적인 것이든 모든 불의와 억압의 고발을 요구하는 것임을 확신하며 이 예언자적 증거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을 확신한다” 라는 선포를 하였습니다.

즉, 선교는 복음전파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더욱 잘 감당해야 할 것에 대한 입장을 재 확인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저자가 제시하는 총체적 선교는 매우 의미있는 선교 전략적 제시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항목

상황화에 대한 저자의 입장 역시 철저하게 ‘수신자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적지 않은 선교사들이 ‘전달자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에서 허우적거리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상황화에 대한 저자의 주장은 단순한 상황화 전략 정도가 아니라 이 땅의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대접하며 그들의 입장에 최대한 서서 복음을 전하고자 노력하는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전략 전술적 차원보다 기본 마음 가짐에 대한 강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선교에 참여하는 선교사의 기본 자세와 의무

가장 소중한 자세: 십자가 선교

연구하는 마음가짐을 유지할 것에 대해 강조
선교사 본인에 대한 철저한 파악과 이해

주어진 주제가 너무 큰 주제였기 때문에 저자는 큰 주제를 그대로 다루느라 애를 먹은 흔적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자가 단 각주는 60개가 넘습니다. 많은 책들과 연구 내용과 인터뷰를 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아쉬움 중의 하나는 주제를 narrow down하는 협의를 이 포럼 진행부와 강력하게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제자를 세부적 주제별로 몇 분을 더 추가하여 깊이 있는 주제별로 나누어 다루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



‘세계 선교 신학의 동향과 현 캄보디아 선교 현장에서 보여지는 선교 신학의 현황과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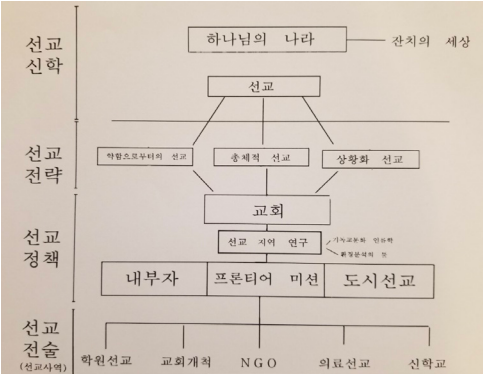
‘한인 선교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선교 전략과 서구 선교사들(C&MA, OMF, 남침례회, 번역선교회 등등)이 주로 사용하는 선교 전략의 비교 연구’ 등등 세부적인 사안과 주제

큰 그림을 그리다 보니 저자의 입장에서 급하게 터치만 하고 지나가는 스케치 형태의 글들이 자주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선교 전략과 정책에 대한 견해> 부분에서 저자는 피터 와그너와 랄프 윈터의 견해를 세줄로 요약하여 썼습니다.

물론 각주를 다는 것을 잊지는 않았지만 너무 심했다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랄프 윈터의 수도 없이 많은 글과 주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피터 와그너 역시. 오히려 소주제로 분류하지 않고 지나가는 글로 처리했다라면 훨씬 더 읽어내기가 쉬웠을 것 같은데 소주제로 분류하여 너무 간단히 처리한 것이 글 전체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저자의 마음 속에 있는
이상적 방향

좀 더 설명 필요?



“한국 선교사들은 …내가 보기에 가장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선교전략 중 적어도 선교사의 삶과 관련해서 가장 부합되게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서구 선교사들이 당연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주캄 한인선교사들은 서구 선교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라고 결론



저들 역시 어느 나라에서 왔건 정성껏 우리들과 같은 마음으로 이 땅 사람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아야 할 것

함께 걷는 파트너이자 동역자들!

계속 질문하고 고민하며 자료들 수집하고 연구 분석하며 종합하여 글로 만들어내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03

주감 한인선교사회

한인선교 30주년 포럼

발제

개척부터 이양까지 마무리된 사역 사례 발표

(캄보디아 감리교회, MCC를 중심으로)

송진섭 선교사

논찬

논찬1

조학현 선교사

논찬2

김창훈 선교사

주감 한인선교사 선교 30주년 준비위원회
제 3차 포럼
3rd FORUM

개척부터 이양까지 마무리된 사역 사례 발표
(캄보디아 감리교회, MCC를 중심으로)

2021년 8월 19일(목) am. 9:00

- 발제 : 송진섭 선교사
- 논찬 : 조학현 선교사, 김창훈 선교사
- 방법 : Zoom 온라인

개척부터 이양까지 마무리된 사역 사례 발표

(캄보디아 감리교회, MCC를 중심으로)

송진섭 선교사

들어가는 글

개신교 선교의 초창기 시대였던 18-19세기에는 선교사가 선교지에 한번 파송이 되면 그 곳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 보통 일이었다. 선교지에 남겨진 수많은 선배 선교사들의 무덤이 그 증거이다. 그런 선배 선교사들의 목숨을 건 희생과 헌신으로 기독교 선교는 이만큼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지구촌 시대를 논할 만큼 시대가 변하고, 기술 문명이 발달하였다. 이로 인하여 선교사들의 사역과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진행중이다. 특별히 요즘 선교학계에서는 선교사들의 출구 전략이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이고, 사역을 빨리 이양할수록 성공한 사역이라고 평가한다. “There is no success without succession”.

그러나 선교 현장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선교 사역의 이양과 지도력 이양이 더디기만 하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과 변수들이 있기에 쉽지는 않지만, 가능하다면 속히 지도력과 사역을 현지인들에게 이양하는 것이 사역의 지속성과 효율성 그리고 토착화를 위하여 바람직하다.

캄보디아에서 세계 여러 나라 감리교회들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사역을

시작하였는데, 그들이 연합하여 하나의 캄보디아 감리교단을 조직하고, 지도력을 이양하므로, 이제는 자치하는 교단으로 서게 되었다. 1993년에 기독교대한감리회 파송을 받고 캄보디아에 입국한 송 진섭 선교사 부부는 캄보디아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로 기록되고 있다. 그리고 2018년에 캄보디아 감리 교회 임시연회가 조직되고, 현지인 연회장을 선출하여 지도력 전체를 이양함으로써 캄보디아 감리교회는 명실상부 자치하는 교단이 되었다. 아시아에 이미 조직된 여러 나라 감리교회들의 자치를 위해 소요된 년수와 비교해 볼 때에 캄보디아에서의 그 기간은 믿어지지 않을 만큼 짧았다.

더욱 놀라운 것은 현지 교단 조직이 기독교 대한 감리회 단독 사역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다른 나라 감리교회 선교부들의 연합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것은 세계 감리교회 선교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일무이한 사례로 알려져 있다. 전쟁과 분열, 대량학살과 가난 등 온갖 부정적인 요소들만 가득했던 캄보디아에서 다른 어떤 선교지에서 쉽게 찾아보기 힘든 아름다운 연합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결과물로 자치하는 현지 교단이 조직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그것을 성취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린다.

이번 선교 포럼을 통하여 개척부터 현지 교단 설립 그리고 지도력 이양의 모든 과정에 함께 했던 본인은 그 과정을 간단하게 소개하려고 한다. 본 발제에서는 지난 20여년 동안 진행되어온 연합 사역을 통한 자치하는 현지 교단 설립 과정을 간략하게 요약하려고 한다.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고, 자세하게 설명하면 감리교단의 조직과 용어 등이 등장하여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아시아 여러 나라 감리교회들의 자치 과정)

번호	국가 명	첫 감리교 선교사 입국 년도	자치를 이룬 년도 (현지 지도자 선임)	소요된 년 수
1	스리랑카	1814	1964	150
2	인도	1856	1981	125
3	미얀마	1879	1964	85
4	한국	1885	1930	45
5	싱가폴/말레이시아	1885	1968	83
6	인도네시아	1905	1964	59
7	캄보디아	1993	2018	25

(Sparks of Grace by Robbie. B. H. Goh에서 발췌)

1. 송 선교사의 시기별 사역 구분

1) 1993년-1999년(기독교 대한 감리회 선교부 단독 사역 기간)

(1) 중요 사역

- 1993년-1994년- 현지 적응 및 언어 훈련
- 1995년 9월 -뚝뚝뚝 선교 센터 마련하고, 감리교 선교부 조직(7개 소속 교회)
- 1996년 10월-바탐방 선교센터 봉헌 및 사역 시작
- 1997년 4월-캄보디아 감리교 신학교 설립 및 운영(1기생 25명 입학)
- 1999년 2월 -신학교 1기생 17명 졸업.
- 2000년-뚝뚝뚝 선교 센터 봉헌
- 2000년까지 약 100여개의 교회를 개척하여 관리하다.

(2) 적용된 중요 선교 전략

-전도를 통한 교회 개척, 직접 선교를 주 사역으로 정하다.

-기도와 말씀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한다-1997년부터 매년 1-2회 한국식 부흥회를 통하여 목회자들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체험하게 했다.

-중요 도시를 전초기지로 삼아 캄보디아 전국 복음화를 위한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후임 선교사님들과 동역하다.

센터가 설립된 중요 도시들; 바탐방, 꿈뽕잠, 꿈뽕스푸 그리고 꿈뽕츠낭, 씨엄리업, 번띠어이미언찌이 등등

-현지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사역한다-영적 훈련을 통한 제자 교육에 힘쓰며, 모든 사역은 그들이 주체가 되어 해 나가도록 독려하다.

2) 2000년-2013년(캄보디아 감리교회 조직을 위한 연합 사역 기간)

-캄보디아 감리교회 조직을 위한 본격적인 연합 사역이 실행된 기간이다.

-회의가 주 사역이었던 것 같다.

3) 2014년-현재(지도력 이양 후 사역 기간)

-2013년에 송 선교사를 대신하여 처음으로 2년 임기의 현지인 선교 감리사가 선출되었다. 지도력이 절반 정도 이양된 시기이다. 그럼에도 선교사들이 중요 위원회에 멤버로 포함되어 있었고, 현지 리더들과 함께 사역을 하는 시기였다.

-2018년-임시연회가 조직되어 자치하는 교단이 되므로, 모든 리더쉽이 완전하게 현지인들에게 이양되었다.

선교사들은 모든 위원회에서 제외되었다. 임시 연회에서조차 더 이상 멤버가 아니라 observer로 신분이 바뀌었다.

본인은 신학교 교수로, 후원 교회에서 마련한 웨슬리 선교 센터 사역에 집중하고 있다.

-2021년 2월 이사회에서 캄보디아 감리교 신학교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

2. 자치 측면에서 캄보디아 감리교회 조직 과정

1) 캄보디아에서 감리교 연합 사역에 동참한 외국 선교부들과 첫 선교사

파송 년도

-KMC(기독교 대한 감리회)-1993년

-Connexio(스위스/프랑스 연합 감리교회)-1994년

-MMS(싱가폴 감리교회)-1996년

-GBGM(미국 연합감리교회)-1997년

-WFCMC(화교 선교 연맹)-1998년

2) 연합 사역의 시작

싱가폴 감리교회와 미국연합감리교회가 캄보디아 선교를 함께 시작하기 위하여 선교국 책임자들이 만나서 전략회의를 진행하였다. 1차가 1996

년에, 2차는 1997년 1월에 각각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는데, 2차 회의에는 이미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기독교 대한 감리회 본부 선교국 실무자도 초청하여 함께 하였다. 그리고 2차 회무가 모두 끝나고 회의에 참석했던 위원들이 캄보디아 프놈펜을 방문하였다. 그 동안 진행된 감리교 사역 현장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사역 방향과 전략을 실제로 수립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프놈펜을 찾은 대표단들은 특별히 기독교 대한 감리회 선교부의 그 동안의 선교 사역의 결실과 성과를 보고 감탄하며, 성령의 감동을 따라 모두가 연합하여 함께 사역하고, 미래에 하나의 캄보디아 감리교단을 조직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당시 한국 감리교회 선교부는 프놈펜과 바탐방 선교센터를 중심으로 39개 교회가 소속되어 있었고, 감리교 신학교를 설립을 준비하고 있었다.

연합 사역에 대한 제안이 수용되어 1998년에 첫번째 연합 사역이 진행되었는데, 그것은 연합 목회자 세미나였다. 이 세미나 기간에 여러 감리교회들 간의 연합 사역을 실행할 기구가 조직되었다. 먼저 각 나라 선교부 책임자들과 현지 교회 지도자들의 모임인 Coordinating Board가 조직되어 1년에 2번 회의를 하기로 하였다. 이 위원회는 연합 사역을 위한 최고 결정 기구로서 모든 사역을 계획하고 평가하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주는 모임이다. 그리고 현지에는 각 감리교회 대표선교사와 각 나라 대표 현지 리더 1사람씩 참여하는 실행부 위원회를 조직하여 연합 사역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1999년 2월에 제 2회 연합 목회자 세미나가 실시되었고, 같은 기간에 첫 번째 코디네이팅 보드 회의가 열렸다. 그 이후 매년 두 차례씩 보드 미팅을 가진 결과물로 2002년에 각 감리교회를 대표하는 감독님들이 스위스에서 모임을 갖고, 캄보디아에서의 연합 사역을 승인하는 문서에 서명을 하였다. 연합 사역을 진행하면서 처음에 세운 원칙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재정적으로 자립하는 교단을 지향하여 사역하며 또 하나는 초대 감독은 반드시 현지인으로 세운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3-4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하여 드디어 2003년 1월 17일에 역사적인 행사들이 거행되었다. 먼저 그 동안 부과된 모든 과정을 다 마친 10명의 캄보디아 현지 목회자(모두가 평신도이긴 하지만 1세대 목회자들로서 이미 각 지역을 관리하는 관리자들로 사역을 하였던 분들)들이 디컨(준회원) 목사 안수를 받았다.

그리고 목사 안수식 이후에 5개 외국 선교부를 캄보디아 감리교 연합 선교부로 통합한다는 공식 선포식이 있었다. 이로 인하여 캄보디아에서의 감리교회들 간의 연합 사역이 공식화 되었다.

3) 교단 조직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2002년 감독님들의 스위스 회동 이후 감독 자문위원회(Bishops Advisory Committee)가 조직되었고, 이 위원회에서 앞으로 캄보디아에서의 하나의 감리교단 조직을 위한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 안이 코디네이팅 보드 미팅에 상정되어 승인되었다. 그 과정은 아래 표와 같다.

(자치 교단으로 가는 길)

	기간	현지 책임자	전체 책임자
연합 선교부 로 통합	2003		감독위원회
연합선교부 (Missions)	2004-2008	선교감리사	관리 감독
선교연회 (Mission Confernece)	2008-2012	선교감리사	관리감독
임시연회 (Provisional Conference)	2012-2016	연회장	관리감독
연회 (Annual Conference)	2016	감독	현지 감독

4) 연합 선교부 시대(2004년-2008년)

2004년 8월에 제 1회 연합 선교부 연례회의(Annual Meeting of the Missions)가 개최되었다. 당시 소속 교회는 KMC 100여 교회, UMC(미국, 스위스/프랑스) 50여 교회, 싱가포르 15개 교회, 화교 선교연맹 2 교회가 있었다. 교회 관리는 각 선교부에서 하던대로 각각 하되, 그 외에 가능한대로 연합 사역을 많이 진행하기로 하였다.

2005년에는 2003년에 디킨 안수를 받았던 목사님 중에 3명이 엘더 목사 안수(정회원)를 받았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2005년 제 2회 선교부 연례 회의에서 모든 교회

들을 행정 조직에 따라 지방회(District Conference)로 나누고, 지방 감리사들이 각각 관리하도록 하였다. 하나의 교단으로 가는 길 중에서 가장 어렵고, 큰 산이었는데, 약간의 반발과 문제도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하심과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었다. 7개 지방으로 나누고, 7명의 지방 감리사를 선출하였는데, 그날 안수 받았던 3분의 현지 목사님들이 지방 감리사로 임명되었다.

5) 선교연회 시대(2008년-2013년)

2008년에 제 4회 연합 선교부의 선교연례회의가 폐회하고, 제 1회 선교연회를 개최하였다. 선교 연회는 선교부 시대보다 여러모로 형식과 조직을 더 갖추고 연회로 발전해 나가는 중간 단계이다.

2011년 선교 연회에서 원래 마스터플랜대로 2012년에 임시연회를 조직하고 연회장을 선출할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논의가 있었다. 임시연회를 조직하기 위해 합의된 세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현지 목사님(정회원 목사)들의 충분한 수와 현지 교회의 재정 자립도 그리고 임시 연회를 운영해 나갈 현지 리더쉽의 능력 등이다. 이 중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은 역시 재정 자립도였다. 그래서 일단은 임시 연회 조직은 미루기로 결정하였다.

2012년 선교 연회에서 그 상황을 잘 설명하고, 앞으로 캄보디아 감리교회가 임시 연회, 연회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지 교회들의 재정 자

립이 중요함을 일깨우고, 계속해서 함께 동역하기로 결의하였다. 원래 2012년에 임시 연회를 조직하기로 하였는데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현지 교회에 더욱 힘을 실어주자는 의견에 따라 2013년에 현지인 선교 감리사를 선출하기로 하였다.

연합 선교부로 통합되던 2003년부터 본인이 선교 감리사로서 그 직을 계속해서 감당해 오고 있었다. 그런데 2013년에 현지 선교 감리사를 선출하므로, 많은 지도력을 현지인 지도자에게 이양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렇게 2년 임기의 현지 선교 감리사가 2번을 지나고, 2017년 마지막 1년은 준비 기간으로 잘 준비하여 2018년에 임시 연회를 개최하였다.

6) 임시 연회 조직 및 연회장 선출을 통한 자치 연회 시대(2018년-현재)

2018년 9월, 제 10회 선교 연회를 폐회하고, 바로 이어서 제 1회 임시 연회를 개최되었다. 그리고 개회 예배 후에 첫번째 회무는 4년 임기의 현지 연회장을 선출하는 것이었다. 룬 쏘피 목사가 선출되므로 모든 지도력과 결정권이 현지인에게 이양되었다.

처음으로 선출된 현지 연회장은 다른 나라 감독들과 똑 같은 직무와 권한을 갖되, 목사 안수식 집례만 예외이다. 임시 연회가 조직되므로 나타난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먼저 그 동안 최종결정기구로서 연합 사역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던 코디네이팅 보드는 그 사명을 다하였다. 이제 교단의 모든 결정은 온전한 현지인들의 모임체인 임시 연회와 실행부 위원회에서 감당하게 되었다.

코디네이팅 보드는 Round Table로 이름을 바꾸고, 현지 연회장의 초청이 있을 때 모임을 갖고, 필요한 안내와 격려 및 재정적인 지원으로만 돕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사역하는 감리교 선교사들은 선교 연회 시대에는 자동 연회원이었는데, 임시 연회가 조직되면서 이제 모두 읍저버가 되었다.

3. 캄보디아 감리교회의 재정적인 자립을 위한 노력

1) 각 선교부 별로 사역하던 시기(2003년 이전)

이 시기에는 각 선교부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관리하며, 소속 목회자들에게 각각 사례비를 책정하여 지급한 시기이다. 아무래도 미국 연합감리교회 선교부가 가장 많이 지급하였으며, 그 다음이 싱가포르 그리고 기독교 대한 감리회 선교부는 가장 적은 사례비를 목회자들에게 지급하였다.

2) 2003년부터 목회자 사례비 조정 작업 개시

2003년 1월에 연합 선교부로 통합되면서, 앞으로 하나의 감리교단을 조직하기 위하여 목회자 사례비를 균등하게 조정하고, 연회 본부에서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그 액수의 차이가 너무나 크고, 인원 수가 많아서 한번에 조정하는 것은 쉽지 않아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일단 2003년에 목사 안수를 받는 목회자들과 신학교를 졸업하는 전도사들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그렇게 해서 당해 1월에 안수받은 10분 목사님들의 사례비는 월110\$ 그리고 2003년 8월에 신학교를 졸업한 1기 졸업생 전도사들의 사례비는 월 70\$로 책정되었다.

3) 현지 교회들의 자립을 위한 노력

2005년 9월 선교 연회에서 행정 조직에 따른 지방회가 조직되고 나서, 모든 목회자의 사례비는 각 선교부 재정부가 아니라 연회 본부 재정부에서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실행을 통하여 목회자들이 각 선교부를 의지하고 바라보기 보다는 현지 교회로 마음이 모아지도록 의도하였다.

처음부터 자립하는 현지 교단을 조직하는 것이 목표였고, 낮은 재정 자립도 때문에 2012년 임시 연회 조직이 연기된 것을 알기에 현지 교회들과 지도자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함께 각고의 노력을 하였다. 소속 교회들은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재정적인 부분을 부담해 주었다. 모든 소속 교회들은 매월 두번째 주 현금 전액을 연회로 보내고, 나머지 3주 현금 총액의 12%도 연회로 보내었다. 그 외 소속 교회와 입교인들은 각각 membership fee를 연회에 납부하고 있다. 교단 재정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목회자 사례비이기에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오랜 동안 목회자들의 사례비 인상이 거의 없었다. 빠른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을 생각하면 현지 목회자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과 헌신을 요구한 게 사실이다.

2016년이 되어서야 목회자들의 사례비가 13년만에 처음으로 10% 인상되었다. 그래서 전도사님들은 월 77\$, 목사님들은 121\$로 조정되었다. 그리고 지도력이 현지 연회장에게 이양된 후, 목회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2019년에 한번 더 인상되었다. 전도사님들은 월 90\$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 125\$을 기본급으로 받게 되었다.

참고로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 수당 10\$, 18세 미만의 자녀 세명까지 한 명당 10\$씩 수당으로 받게 된다.

4) 재정 자립의 현황

이러한 현지 교회와 목회자들의 피땀 어린 헌신과 희생으로 현지 교회의 재정 자립도는 괄목할 정도로 증가하였다.

2011년에 교단 전체 예산의 10.5%의 자립도를 보였으며(외국 선교부 지원을 제외한 캄보디아 교회/ 교인 자체 부담), 이 비율이 2018년에는 26%, 2019년에는 31%로 그 비율이 증가하였다.

4. 캄보디아 감리교회의 전망과 미래

캄보디아 감리교회는 2026년에 정식 연회를 조직하고, 현지 감독을 선출하므로 완전히 자치하는 교단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열심히 사역하고 있다.

제언과 결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시작되었던 캄보디아에서 연합 사역을 통하여 하나의 감리 교단을 조직하는 사역은 이제 현지 지도자와 교회의 손에 넘어갔다.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귀한 열매를 맺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뿐이다.

코비드 19로 캄보디아 상황이 모든 부분에서 악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앞으로 교회들에게도 분명히 큰 장애와 도전으로 다가올 것이다.

바라기는 현지 지도자들과 교회가 계속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잘 연합하고 정진하여, 건강하여 재생산하는 캄보디아 감리교회로 든든히 서므로 모든 것을 잘 마무리해 주기를 바라며 기도할 뿐이다.

(캄보디아 감리교회. MCC 를 중심으로)에 대한 논찬

조학현(OMF Cambodia)

발제를 맡아 주신 송진섭 선교사는 캄보디아에 주재하는 한국 선교사들 가운데 처음으로 선교 사역을 시작을 했던 두 분 중의 한 분으로서 지난 3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캄보디아에 많은 교회 를 개척하고 감리교단을 시작하여 현지인 지도자들에게 이양하는 모든 과정을 주도하고 경험 하 였던 산 증인으로서 기록한 그의 글은 캄보디아 교회와 선교에 많은 유익이 되리라 생각된다. 글의 형식이 전형적인 발제문으로서 갖추고 있는 어떤 의견에 대한 주장을 담기 보다는 지난 사 역들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사례 발표에 가깝기에 필자도 논찬보다는 발제자가 강조하는 부분들을 따라가 보며 아울러 몇 가지 질문으로 이 글을 대신 하고자 한다.

발제자도 글의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선교사역에 있어서 선교사의 출구전략과 현지인 지도자 들에게 지도력을 이양하는 선교사역의 원리 내지는 전략의 강조는 지나치다 해도 무리가 없을 정 도로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슈이다. 글에서 이양의 과정을 짧지만 연대기적으로 캄보디아 감리교단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일목요연하게 보여 주었다. 아울러 이양을 위하여 캄보디아 감리 교단과 개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어떻게 자립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가를 기술 하였다.

발제자는 어찌 보면 선교사역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두 가지 부분을 효과

적으로 잘 수행 하였다. 그것은 지도력을 현지인에게 이양을 하는 일이며 다른 하나는 선교사들의 연합이다. 이 두가지 가 그리 쉽지 않는 일이라는 것은 선교사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캄보디아 감리 교단이 현지인 지도자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은 캄보디아 교회 역사 에서도 주 목받을 만한 일이다. 개 교회를 선교사가 개척하고 현지인 지도자에게 이양하는 경우도 캄보디아 에서 그리 흔하지 않는 경우이지만 교회들의 연합체인 교단을 만들고 현지인 지도자들에게 이양한 경우는 C&MA 선교회가 세운 KEC(Khmer Evangelical Churches)에 이어 두 번째이다. 특별히 주목 받을만한 일은 최소한 6개 나라에서 온 대표자나 선교사들이 연합을 통해서 하나의 교단을 세우게 된 것이다. 이는 하나되게 하신 성령님이 하시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출구전략 내지는 지도력 이양에 대한 여러 중요한 원칙이나 조건들이 있겠지만 캄보디아 감리교 단의 사례에서 보면 필자는 이양에 대한 확고한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이 이양 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2002년 연합 사역을 결의 하였던 각국의 대표들이 내린 가장 중요한 결정은 “재정적으로 자립 된 교단을 지향하며 초대 감독은 반드시 현지인으로 한다”이다. 이양의 시기에는 다소 간의 이견이 있지만 선교사들이 현지인 지도자들에게 이양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는 이양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¹ 목표가 있어야만

1. 변창욱은 선교사 리더십 개발과 이양이라는 글에서 선교사와 현지 지도자 사이의 지도력 이양에 관한 두가지 모델(해럴드 풀러, 탐 스티폰)을 소개 한다. 특별히 스티폰의 모델을 소개하면서 선교사는 현지 목회자에게 리더십을 이양한다는 분명한 목표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변창욱. 2014. “선교사 리더십 개발과 이양”. [장신논단]. 46:4. 303-331.

이 설령 이양을 지체 할 상황을 만나더라도 포기 하지 않고 끝까지 실행 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다. 발제자도 당초 2012년에 연회를 조직하고 이양 하기로 하였지만 재정적인 자립이 충분치 않 고 더불어 현지 지도자들이 이끌어 갈만한 역량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양의 시기를 다 소 늦추었으나 이양에 대한 확고한 목표는 포기하지 않았기에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 한다. 현지인 지도자들에게 이양은 상황에 따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역을 시작 할 때 부터 분명하게 이양을 목표로하고 구체적으로 실행에 나가야 만이 성취 될 수 있음을 필자의 사역에서도 경험 할 수 있었다.²

두번째로 지도력의 이양은 단회적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선교사의 역할을 변 경해 가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글에 따르면 감리교단은 2005년 지방회를 결성하고 현지인 목 회자들이 지방감리사의 직무를 감당하기 시작 하면서부터 선교사들과 같은 리더십팀의 일원이 되 어졌다. 이어서 그동안 최고집행기구의 임무를 맡아왔던 선교사 파 송국가의 교단 대표로 구성된 코디네이터 보딩이 그 역할을 변경하게 된 것이다. 필리핀의 루손섬에서 NTM(New Tribe Mission) 소속으로 15년 이상 사역을 했던 탐 스티픈(Tom Steffen)은 그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교사의 출구 전략에 관한 책을 만들었는데 그는 현지인 교회가 발전에 나

2 필자는 OMF 선교회 소속으로 2001년 낙르영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2014년 이양하였는데 교회 개척 시작 때부터 교인들과 교회 개척팀 모두 어떤 시기가 오면 교회의 리더십은 현지인 지도자들에게 이양 되어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조학현. 2020. “캄보디아에서 현지인들에게 이양- 낙르영 펠로우십 교회 사례”. 「프놈펜 포럼 10주년 기념 연구 자료집」. 서울: 퍼플. 265-291.

감에 따라 선교사의 역할 변경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³ 이양은 갑자기 한 순간에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가 자기의 영향을 축소 내지는 변경함으로서 이루어 진다.

한편 글을 읽어가면서 들었던 몇가지 의문들이 있었다.

질문은 첫째로 현지인 지도자들의 지도력 개발에 대한 부분이 많이 언급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지도력을 갖추기 까지 어떤 훈련의 과정이 있었는지가 궁금하다. 교단에서 정한 학력 기준을 통과 함으로 지도력을 겸비할 수 있겠지만 단지 학위를 받는다 해서 지도력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새롭게 뽑힌 현지인 지도자에게는 교단내 교회들의 연합 그리고 여전히 선교지에 주재하며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하는 선교부의 선교사들과 현지인 목회자들의 이해 관계를 효과적으로 잘 조정해야 하는 어려운 직무가 주어졌는데 그를 감당하기 위한 지도력 배양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현지인 지도력을 개발 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인 훈련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발제자에게 문의 한다.

두번째로 재정적인 자립에 대한 부분이다. 캄보디아 감리 교단이 다른 어떤 나라 에서 보다 빠른 시간에 현지인에게 지도력을 이양하였던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 것은 재정적으로 아직도 많은 부분을 외부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선교에서 이양은 지도력만 아

3 Tom A. Steffen. 1997. Passing the Baton: Church Planting that Empowers. La Habra, CA: Center for Organization & Ministry Development. 25.

나라 재정적인 자립의 조건을 충족해야만이 완전하게 이양 될 수 있다는 것이 지난 선교사에서 수 없이 볼 수 있다. 재정적인 의존성이 존재하는 형식적으로는 지도력이 이양되었다 고 하여도 진정한 이양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아직도 캄보디아 지역교회들의 재정적인 자립은 쉽지않다. 교단에 속한 각 지역교회들의 재정자립이 선행되어야만 교단의 자립도 가능 할 것이다.

세번째 선교부와 교단의 관계이다. 현지인 지도자들이 교단을 인도하게 되면서 선교사들의 관계에는 어떤 변화가 있어 왔는지? 나이지리아에서 오랜시간 동안 사역을 해왔던 SIM은 나이지리아의 교단인 ECWA (Evangelical Church of West Africa)에게 85년 만에 지도력을 이양하고 선교사들은 현지인 지도자들의 감독 아래서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나갔다. 그동안의 관계에서 선교사들이 부모 내지는 선생 그리고 동역자의 동등된 위치에서 현지인들의 지도를 받는 관계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다.⁴

필자는 가끔 같이 동역하는 현지인들보다 성품과 믿음에서 발전과 성장이 더디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그들의 성장과 성숙이 감사하다. 만약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면 한국 교회 역사에서 한국 교회 지도자로부터 쓴 소리를 들었던 미국 선교사같이⁵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이 글을 가름하고자 한다.

4 변창욱. p.312.

5 1925년 미국의 선교 동원가인 존 모트(John Mott)의 내한을 계기로 주한 외국인 선교사 대표 31인과 한국인 교회 대표 31인이 모인 자리에서 한국 장로교 최초 목사 7명중의 한명인 한석진 목사는 30년동안 한국에서 주재하고 있던 선교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쓴소리를 하였다고 한다.“선 교사들이 한 곳에서 오랫동안 체류하면 자기가 세운 교회며 학교라는 생각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영도권을 행사하려고 하게 되니, 이것은 참된 복음정신에 위배되며 교회발전에 방해가 될 뿐이요 조금도 도움이 안된다.” 한국기독교역사회, 2012. 『한국 기독교의 역사-III』. 개정판. 서울: 기독교문 사. 178.

참고문헌

- 변창욱. 2014. “선교사 리더십 개발과 이양”. 『장신논단』. 46:4. 303-331.
- 한국기독교역사회, 2012. 『한국 기독교의 역사-II』 개정판. 서울: 기독교문사. 178.
- 조학현. 2020. “캄보디아에서 현지인들에게 이양-낙르엥 펠로우십 교회 사례”. 『프놈펜 포럼 10주년 기념 연구 자료집』. 서울: 퍼플. 265-291.
- Tom A. Steffen. 1997. *Passing the Baton: Church Planting that Empowers*. La Habra, CA: Center for Organization & Ministry Development. 25.

(캄보디아 감리교회. MCC 를 중심으로)에 대한 논찬

김창훈 선교사

1. 축하와 감사

캄보디아 감리교회의 지도력 이양에 대한 송진섭 선교사의 발제는 코비드 19로 인해 움츠려 있는 우리의 삶과 사역에 새로운 도전과 감사의 마음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무엇보다 영적 토양이 척박하고 외부에 대한 의존성이 큰 캄보디아에서 아름다운 사역의 이양을 이루어낸 것에 대하여 축하드리며 이렇게 아름다운 사역의 중심에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의 동료 선교사들이 큰 기여를 한 것에 대하여 자부심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역이 시작된 후 25년 만에 5개국의 감리교회 연합으로 현지인 지도자를 세우고 교단이 자치하는 쾌거를 이룬 것은 선교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중요한 사건이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만한 아름다운 열매임이 분명하다.

2. 발제에 대한 논찬

발제자는 지도력 이양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자치와 재정적인 자립으로 보았으며 이 두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캄보디아 감리교회의 지도

력 이양에 대하여 발표를 하였다. 참으로 짧은 시간에 여러 나라의 선교사들이 연합하여 현지에 하나의 교단을 설립하고 현지인 리더를 세우는 자치를 이루어 낸 것은 선교 역사에서 중요한 모델이 되며 우리가 배워야 할 많은 교훈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특별히 자치를 이루기 위해 선교사와 현지 교회가 협력하며 각고의 노력으로 함께 섬기고 세워나가는 부분에서 감동을 받게 된다.

그러나 발제에서 밝히듯이 재정적인 자립에서는 아직까지 온전한 이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과 목표를 향한 지속적인 수고와 섬김과 헌신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된다. 온전한 이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지 교회와 교단이 더 이상 선교사나 선교 단체의 도움과 지원이 없이 온전한 자치, 자전, 자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부분에서 아직 완성되지 못한 이양의 부분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계획이 제시되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물론 내부적인 준비와 계획이 진행되고 있으리라 믿지만 발제를 듣는 선교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 내용들이 보완되면 더 큰 도움과 도전이 되리라 생각한다.

제한된 지면과 시간으로 인해 충분한 내용을 전달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으리라 생각하며 온전한 이양이 이루어지기 위한 로드맵이나 이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현지인 지도력 개발과 교육, 훈련의 과정이 차후에라도 더 자세히 소개되어지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아울러 지도력 이양에 대한 선교학적 토대를 마련해준 해롤드 풀러(W. Harold Fuller)의 4P (Pioneer/개척자, Parents/부모, Partner/동반자,

Participant/참여자) 이론이나 톰 스테펜(Tom A. Steffen) 효과적인 이양을 위한 5 단계 이론(Preentry Stage/사역준비단계, Pre-evangelism/예비전도단계, Evangelism/전도단계, Post-evangelism/전도이후단계, Phase-out Stage/철수단계)을 원리로 하는 단계별 이양의 계획과 정책에 대한 정리가 되면 더욱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은 본인의 풀러 학위논문 “캄보디아 장로교회의 지도력 이양에 관한 연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캄보디아 감리교회의 개척부터 이양까지 마무리된 사역의 발표를 통하여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사역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하며 선교지에서의 사역 기간이 길어지면 자연스럽게 사역의 이양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여 우리의 사역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평가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이양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겠다.

효과적인 지도력 이양을 위해서는 어떻게 지도력을 개발하고 세우느냐가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본인의 논문에서 제시한 결론을 요약하여 나누면 다음과 같다.

3. 효과적인 지도력 이양을 위한 제언(책무)

선교사들이 교회가 없는 지역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한 후 그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가 없는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

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비전을 가지게 하는 것, 그런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선교지에 그런 교회와 현지인 지도자를 세우고 주님께서 교회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사명을 알고 감당할 교회를 세우고 그들에게 사역을 위임하고 선교사는 철수해야 한다. 이러한 지도자를 세우고 사역을 위임하기 위하여 선교사와 현지인 지도자들에게는 각각의 역할과 책무가 요구되어진다. 스테펜은 이러한 선교사와 현지인의 책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탈진으로 고통 받거나 온정주의적인 교회 개척 선교사들은 너무 일찍 떠나거나 오래 머무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은 생산적이지 않은 교회를 개척한다. 또한 무관심하거나 지나치게 민족주의적인 현지 기독교인들은 현지 교회가 확장되는 것에 대해 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지속적인 교회 개척이 성공적이려면 선교사들은 반드시 권한을 이양하여 현지인들이 권한을 부여받도록 해야 한다. 선교사나 현지인 모두 시기와 상황의 복잡성이 요구하는 대로 다양한 책무를 받아들여야 한다. 선교사의 목표는 현지인들이 궁극적으로 지속적인 교회 개척과 개발과 관련된 모든 책무를 감당하게 하는데 있으며 이것이 효과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선교사들도 현지인만큼 배우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Steffen 2010: 316-320).

선교사의 책무들

지도력 이양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교사의 책무가

중요하다. 지도력 이양을 위한 이해와 준비, 단계적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한다. 스테펀은 주님의 지상 대위임령을 완수하기 위해서 교회개척 선교사들은 현지인들이 새로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동시에 다른 곳에서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자신들의 책무들로부터 단계적으로 철수해야 한다고 말한다(Steffen 2010:301-302). 선교사들이 자신들의 책무를 이해하고 사역의 단계에 따른 자신의 역할 변화를 통하여 현지인 지도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게 될 때에 효과적인 지도력 이양이 이루어지게 된다.

모델링과 멘토링

성경적 지도력 이양의 원리를 선택과 개발과 위임으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새로운 지도자가 발굴되고 세워지게 된다. 선교사들은 현지인들에게 사역의 모델이 되고 멘토가 되어야 한다. 스테펀에 의하면 신실한 현지 기독교인들은 효과적인 교회 지도자/ 개척자가 되기까지 일반적으로 네 단계를 거치게 된다.

- 1) 이들은 교회 개척선교사를 따라 다닌다.
- 2) 이들은 자신이 편하게 느끼는 영역 내에서 선교사의 사역에 동참한다.
- 3) 이들은 친숙하지 않은 영역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편하게 느끼는 영역을 확장한다.
- 4) 이들은 자신의 사역을 관찰해 온 사람들을 훈련시킨다.

이러한 접근은 현지인이 자율적으로 적절한 시간에 한 수준에서 그 윗 단계 수준으로 옮겨가도록 허락한다. 선교사들은 전도자, 교사, 거주 조연자 등의 다양한 역할을 거쳐 가며 현지인들도 함께 변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지켜보아야 한다.

첫번째 단계에서는 선교사들은 이 사역이 훗날 현지인들의 것이 되리라는 비전을 현지 성도들과 나누어야 한다. 현지인들과 함께 다니며 이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참여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 중 현지인들은 담대함과 지혜를 위해 성령을 의지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특별히 전도의 활동 중에 적극적으로 현지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두번째 단계에서 현지 성도들은 사역 기술을 사용할 때 자신의 안락한 영역을 확장시킴을 통해 한 번 더 성령의 능력에 의존하도록 격려된다. 선교사들은 현지인들에게 교회 개척 전략을 토론하고 간증을 나누고 불신자의 질문에 대답하고 전도에 참여하고 잃어버린 영혼과 일꾼과 병든 자와 사람들이 사단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과 동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선교사들은 그들이 보고할 때 인내와 분별력을 가지고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인정과 격려와 수정과 권면을 준다. 그 목적은 현지인들의 성품을 세우고 자신감을 극대화시켜 주는 것이다.

세번째 단계에서는 성령에 대한 현지 성도들의 확신이 성장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진다. 이제 어떤 이는 적극적으로 전도를 인도하고 다른 성도들도 전도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이들은 전도 여행과 기도 모임과 병자 방문을 스스로 계획한다. 단계적 철수 중심의 선교사는 새롭게 성장하는 현

지 교회 지도자/ 개척자들에게 자신의 권한을 지속적으로 넘겨준다. 이 때에 출현하는 현지 교회 지도자들이 스스로 보고를 준비하고 실행하기 시작하고, 교회 개척 선교사들은 보고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제안을 줄 수 있다. 이 시기는 한 종족 집단의 내부자들이 기독교를 주도적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현지 성도들이 스스로 전도 전략을 실행한다. 선교사들은 전도의 영역에서 거주 조언자의 역할을 한다. 이제 현지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고 훈련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스스로 성령으로부터 구한다. 이들은 새로운 전도자를 개발하려고 노력한다. 현지인들이 교회 개척의 비전을 가질 때 성령께서 그 비전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다. 효과적인 후계자를 가지는 것은 지속 가능한 교회 개척과 단계적 철수를 가능하게 한다. 이 모든 것은 이 일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때에 따라 다른 책무를 수행해야만 가능하다(Steffen 2010:311-316).

역할 변화

효과적인 지도력 이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역의 비전과 목표, 이를 이루기 위한 단계적 계획들이 수립되고 선교사와 현지인들이 이를 공유해야 한다. 그리고 각 단계별 계획이 진행되는 동안 선교사의 다양한 역할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역할 변화에 대하여 풀리는 개척자, 부모, 동반자, 참여자의 단계로 분류하였으며 스테픈은 학습자, 전도자, 교사, 거주 조언자, 순회 조언자, 비거주 조언자로 분류하였다.

특별히 스테펀은 학습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사역 준비 단계에서 뿐 아니라 단계적 철수의 모든 과정에서 강조되고 있다. 선교사는 항상 배우는 자세를 견지해야 함을 가르쳐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선교사는 학습자로서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사역을 준비하면서 전도자,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전도자, 교사가 되게 하고 선교사는 거주 조연자가 되어야 한다. 이 시기가 선교사에게 가장 힘든 시기가 된다. 그것은 현지인들에게 사역을 위임하고 그들이 스스로 하도록 해야 하며 현지인들이 사역의 모든 부분에서 실수를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선교사는 그들에게 조언과 격려를 해주어야 한다. 거주 조연자에서 계획된 부재가 시작되며 순회 조연자로 역할을 바꾸어 현지인들에 성령을 의지하여 사역을 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순회 조연자는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되며 비거주 조연자로서의 역할 변화가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각 단계의 역할 변화는 자연스러운 스트레스와 갈등을 동반하게 되며 현지인과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선교사는 포기과 희생을 감수하며 결단을 해야 한다. 선교사는 자신을 죽여 복종시킴으로 현지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성공적인 선교사는 자신이 선교지에서 떠나야 할 때를 정해두고 자신의 역할을 바꿀 줄 아는 선교사이다. 이에 대하여 스테펀은 책임있게 선교지를 떠나는 것은 점차 떠나 있는 시간을 증가시키며 시간을 두고 부재를 계획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선교사와 현지인들 사이의 관계가 형성되고 현지인들이 선교사의 모델을 모방하고 본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한다(Steffen2010:303).

지도력 이양을 생각하는 선교사는 사역 가운데에서 항상 자신이 떠나는 것과 남는 것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분명한 목표와 단계적인 지침이 없으면 선교사들에게 자신이 너무 일찍 떠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부담이나, 자신이 너무 오래 남아 있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한다. 이 두가지 모두 현지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선의 출구 전략은 양 극단 사이의 균형이라 할 수 있다.

권한 부여

선교사들은 자신의 권한이 제한적이거나 심지어 없다고 보기도 하지만 현지인들이 보기에 교회 개척 선교사들은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권한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단계적 철수의 시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만약 선교사가 다른 사람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자신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권한을 꼭 부여잡고 있기로 한다면, 선교사들은 현지인 지도자들의 사역이 성장하는 것을 보기 힘들 것이다. 그 반대로, 선교사가 현지인들에게 자신의 권한을 부여하면 현지 지도자들은 사역을 실행하는데 자신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권한을 나누게 되면, 양쪽 모두 권한이 배가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분별력 있는 교회 개척 선교사들은 개인적인 권한과 지위에 기초한 권한과 영적 권한을 언제 이양할지와 언제 유지할 지를 잘 안다. 공유되는 권한은 시너지적인 권한을 만들어내고 적절한 기간 안에 책임있는 단계적 철수가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자신의 권한을 따르는 사람들과 공유하는 지도자들은 새 세대의 지도자

들을 개발하기 위한 실재 무대를 만든다. 지도자의 영향을 받으며 추종자들은 시간을 두고 역할을 바꾸기 시작한다. 따르는 사람들은 새로운 추종자들의 집단의 지도자가 된다. 지도자가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게 됨에 따라 그리스도를 위해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전도하는 비전을 실행할 준비가 된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들을 만들어내는 배가의 원칙은 계속된다.

선교사들이 현지인들에게 사역의 책무들을 이양하지 못하거나 주저하는 이유는 현지인의 비전과 방법이 자신들의 기대와는 다른 결과를 낳을 것으로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는 신뢰의 부족을 보여주며 왜 선교사들이 지나칠 정도로 오래 권한을 유지하는지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다. 선교사들이 전도와 교회 개발과 교회 배가 등 일상적인 활동에 참여하고 있을수록 사역의 이양은 그만큼 더디게 이루어진다. 사역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대개 현지인의 영적 성장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단계적 철수 과정을 늦추거나 멈추게 한다.

선교사들이 사역의 기회들을 이양하는 것을 빨리 배우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할수록 이양과 평가의 전략은 확신을 보여주고 직접 경험을 제공하고 신속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필수적인 격려를 제공한다. 선교사들은 모세처럼, 바나바처럼 자신들의 역할을 움켜쥐지 말고 성령을 좇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역의 기회를 제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또한 모세처럼 자신의 업무량을 나누어줌으로써 탈진을 피해야 한다. 만약 선교사들이 폭넓은 세계 선교의 비전과 함께 사역을 시작하고 이 비전이 현지인들 사이에 뿌리를 내리도록 돕고 현지인들에게 이양한다면 이들은 단계적 철

수를 위해 준비된 성숙한 현지 기독교인들을 만들어내는 공헌을 하는 셈이 될 것이다(Steffen 2010:305-309).

위임을 위한 조건들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하고 사역을 위임하는데 3년의 시간을 보내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자신이 떠날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실 것과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약속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사역하는데 필요한 실제적인 준비들을 시키셨다. 그리고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제자들에게 충격적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오셨다. 그들을 만나 위로와 격려와 가르침을 주셨다. 그리고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다시 떠나가셨다. 그 이후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들에 의해 세상은 변화되기 시작했다. 예수님의 모델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통찰력을 제공해준다.

효과적인 사역 위임을 위한 조건들을 스테펀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1) 깊은 관계를 형성하라.
- 2) 현지인 성도들이 비전을 가지도록 하라.
- 3) 가르치기 전에 먼저 사역의 모범을 보이라.
- 4) 권한이 분산되도록 조직하라.

- 5) 즉시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
- 6) 실수를 받아들여라.
- 7) 현지인 성도들을 신뢰하라.
- 8) 이임을 지혜롭게 알리라.
- 9) 준비된 부재를 계획하라.
- 10) 선교사가 이임한 뒤에 사역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라.

개척한 교회를 언제 떠날지를 아는 것은 언제 시작할지를 아는 것만큼 중요하다. 선교사들을 도입 중심에서 단계적 철수의 방향으로, 조직적으로 옮겨가게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모델은 적절한 때 이임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이것은 선교사와 선교 단체들이 책임있는 이양을 위한 출구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다. 성공적인 선교사들은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계획을 재검토하고 새로 형성된 현지인들의 믿음 공동체에 권한 부여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자신들의 할 일이 없어지도록 한다(Steffen 2010:377-383). 이러한 사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선교지의 사역 현장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현지인 책무들

선교사들은 사역의 현장에서 현지인들이 사역의 주체가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지인들이 수동적인 입장이나 방관자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함으로 그들이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현지인들이 민족과 세

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에 능동적으로 임하게 하기 위하여 현지인들의 책무를 가르치고 감당하게 해야 한다. 이것을 이루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역의 초기부터 현지인들이 모든 사역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스테펀은 이러한 사역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새신자들이 함께 모이고 지도자들이 선정되고 현지인이 참여하여 새로운 교회 개척이 촉진되는 것을 보는 것은 현지인들이 따라할 수 있는 선례를 세울 수 있도록 돕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지인들이 단순히 관찰하는 것을 뛰어 넘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들이 두가지 위험인 무관심과 민족주의를 피하고 교회 개척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Steffen 2010:309).

현지인들이 자신들의 책무를 바르게 이해하고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곧 선교사의 책무이다.

장애물의 극복

선교사의 지도력이 현지인에게 이양되어 그들이 지도자로서의 책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가지 장애물들이 존재한다. 그 중에 대표적인 두가지를 스테펀은 무관심과 민족주의라고 한다.

계속되는 교회 개척의 효과적인 실행의 잠재적인 장애물 가운데 하나가 무관심이다. 현지인들이 모든 사역은 선교사들의 몫으로 생각하고 자신들은 사역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무관심을 극복하게 할 수 있다. 계속되는 교회 개척의 두 번째 잠재적 장애물은 민족주의이다. 일부 현지인들은 선교사들이 너무 오래 권위를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외부의 도움이 없이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선교사들이 즉시 떠나야 한다고 주장한다(Steffen 2010:309-310).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바람직한 현지인들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단계적 철수는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사역 초기부터 현지인들이 이러한 단계적 철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게 될 때에 불필요한 소모전을 최소화하고 토착적이고 재생산하는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현지인 지도자의 역할 변화

선교사의 역할 변화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현지인 지도자들의 역할 변화이다. 선교사의 삶과 사역을 통하여 영향을 받은 현지인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깨닫게 될 뿐 아니라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게 된다.

이들은 선교사들로부터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계속 배울 뿐 아니라 영

적으로 성장하고 동족을 목양하고 미전도 종족 가운데 새 교회를 개척하라는 선교사의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다. 지혜로운 성도들은 성령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성령께서 자신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실 것을 믿는다. 성장하고 있는 현지 성도들은 선교사와 교제하고 조언을 듣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참여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이끌고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키시 시작하면서 자신의 안락한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이들이 얻게 될 성경적 통찰력은 자신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방법에 새로운 통찰력을 줄 것이다(Steffen 2010:323-324).

이러한 현지인 지도자들의 역할 변화를 통하여 지도력 이양이 이루어지게 되며 효과적인 지도력 이양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지속적으로 확장되어지게 된다.

04

주캄 한인선교사회

한인선교 30주년 포럼

발제

캄보디아 장로교단이 캄보디아 개신교에 미친 선교적 가치와 사명
(캄보디아 장로교회의 역사, 현황과 미래 방향을 중심으로)

장완익 선교사 (APCC 부노회장/ KMAC 회장)

논찬

논찬

노진태 선교사



주캄 한인선교사 선교 30주년 준비위원회

제 4차 포럼

4th FORUM

주제

캄보디아 장로교단이 캄보디아 개신교에 미친 선교적 가치와 사명
- 캄보디아 장로교회의 역사, 현황과 미래 방향을 중심으로

2021년 9월 29일(수) am. 9:00

- 발제 : 장완익 선교사 (APCC 부노회장/ KMAC 회장)
- 논찬 : 노진태 선교사
- 발표방식 : Zoom 온라인




캄보디아 장로교단이 캄보디아 개신교에 미친 선교적 가치와 사명

- 캄보디아 장로교회의 역사, 현황과 미래 방향을 중심으로 -¹⁾

장완익²⁾ 선교사 (APCC 부노회장/KMAC 회장)

목차

1. 들어가는 말: 캄보디아 개신교 선교에서 장로교회의 위치
2. 캄보디아 장로교회 역사(어제)
3. 캄보디아 장로교회 현황(오늘)
4. 캄보디아 장로교회 로드맵과 책무(내일)
5. 나가는 말: 캄보디아 장로교단의 선교적 가치와 사명

1. 들어가는 말: 캄보디아 개신교 선교에서 장로교회의 위치

캄보디아에 첫 개신교 선교사가 입국한 지 100년 그리고 첫 한인 선교사가 입국한 지 30 년을 약 일 년 4개월 남겨둔 이때, C&MA와 KEC 그리고 캄보디아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한 “캄보디아 복음 100주년 준비위원회”(위원장 Kong Mara 목사)³⁾ 그리고 주캄보디아 한인선 교사회(KMAC: Korean Missionary Association in Cambodia) 안에 “캄보디아 한인 선교 30주년 준비위원회”(위원장 백의성 선교사)가 세워져 활동하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캄보디아 개신교 선교 100년 역사 가운데 한인 선교 30년은 캄보디아 개신교 선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으며, 캄보디아 한인 선교 30년 가운데 장로교 연합 사역 20년은 캄보디아 한인 선교 30년뿐 아니라 캄보디아 개신교 선교 100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2017년 12 월 현재, 캄보디아에는 3,190개의 개신교회가 있으며, 전 국민의 1.16%가 개신교 신도이다 (MK 2021, 2017). 그리고 캄보디아에 주재하는 약 2,500명에서 3,000명 정도의 외국인 선교 사 가운데(Steve Hyde, 2014), 약 반 이상을 한국인 선교사로 파악하고 있으며, 한국 교회 분포에 따르면 캄보디아 주재 한국인 선교사의 70% 정도는 장로교 선교사이다. 캄보디아에서의 대표적 연합 사역은 ‘캄보디아 감리교회(MCC)’, ‘캄보디아선교공동체(MAC)’, ‘헤브론병원’ ‘캄보디아 장로교회(PCC)’ 등인데(장완익, 2021), 참여자 기준으로 볼 때, 캄보디아 장로교회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1) 캄보디아 장로교단 또는 장로교회라는 용어는 2017년 12월, MK 2021에서 발표한 “캄보디아 개신교 회” 통계에 나오는 ‘All Presbyterian Church in Cambodia’를 배경으로 하나, 본 소고에서는 2003 년 7월 9일에 설립된 ‘캄보디아장로교 공의회(CPCC: The Council of Presbyterian Church in Cambodia)’와 이를 이어받아 2013년 7월 9일에 설립된 ‘캄보디아장로교 독노회(APCC: The Association of Presbyterian Church in Cambodia)’를 일컫는다.

2) GMS 소속으로, 1993년부터 2006년까지 베트남에서 그리고 2006년부터 지금까지 캄보디아에서 사역 중이며, 2014년부터는 아신대학교(ACTS) 연구전담 조교수를 겸임하고 있다. 전북대학교(B.B.A.), 총 신대학교 신학대학원/선교대학원(M.Div.equ/Th.M.),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D.Min.)와 Georgia Central University(Ph.D.)에서 수학하였으며, 한인세계선교사회(KWMF) 서기, 캄보디아교 회사연구원(ICCHI) 원장, 아시아기독교사학회(HSAC) 해외이사로 섬기고 있다.

3) C&MA(Christian & Missionary Alliance)는 캄보디아에 첫 선교사를 파송한 미국의 선교단체이며, KEC(Khmer Evangelical Church)는 1948년, 캄보디아인으로 구성된 첫 캄보디아 민족 교단이다.

크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캄보디아에 주재하는 장로교 선교사 모두 장로교 연합 사역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캄보디아 장로교회는 자타가 공인하는, 중요하고도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이를 ‘캄보디아 장로교단이 캄보디아 개신교에 미친 선교적 가치와 사명’이라는 주제와 ‘캄 보디아 장로교회의 역사, 현황과 미래 방향’이라는 부제 아래 본 소고를 전개한다.

2. 캄보디아 장로교회 역사(어제)

캄보디아 장로교회는 2003년 7월 9일, ‘캄보디아장로교 공의회(CPCC, 약칭 캄장공)’를 구성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개인 배경으로 설립된 장로교 지(支)교회나 성경학교 중심의 장로교 그룹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교단 차원의 ‘캄보디아 장로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당시 캄장공 설립에는 한국 장로교회 파송, 23유 너의 장로교 선교사가 참여하였으며(초대 회장 김항철 선교사), 첫 사역으로 2004년 10월 5일, ‘캄보디아장로교 신학대학교(CPTI: Cambodia Presbyterian Theological Institute, 약칭 캄장신)’를 세웠다(초대 이사장 서병도 선교사, 초대 학장 문찬식 선교사).

2008년부터는 캄장공 회원의 본국 소속 교단을 기준으로 하는 교단협의체와 각 교단협의체 연합인 교단협의회를 기준으로 조직적인 활동을 시

작하였으며, 특별히 풀-타임 사역자가 시무하는 사무국을 개설하여 교세 파악, 사역자 관리와 훈련, 각 지역 선교대회를 통한 연합 활동 및 캄보디아 장로교회 지도력 이양과 자립의 첫 단계인 독노회 설립 준비를 하였다. 캄 장신에서는 2008년 이후, 매해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전호진 총장의 리더십 아래 캄보디아 에서 가장 큰 신학교로 발전하였다. 이에 는 학부(B.Th.) 과정 외에도 목회연구원(PTP), 석사 (M.A., M.Div.) 과정 개설과 함께, 시엠립에 첫 지방 분원을 개설하였다.

2010년 이후에는 향후 지교회와 교단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한국 외에도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미국의 개혁교회/장로교회와 교류하면서 독노회 설 립 준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먼저 ‘ 캄보디아 장로교회 헌법’을 세웠는데, 독노회 설립 근거를 ‘5당회’로 규정하였다. 통상 한국의 경우, 21당회가 되어야 노회를 설립할 수 있는데, 이는 장 로교회가 처음인 캄보디아에 적용하기는 다소 어려운 기준이었다. 이에 따라 세례 교인 20명 이상인 지교회에서는 캄장독 임원회와 총회를 통하여 캄보디아인 장로 청원, 피택과 임직을 이어갔고, 캄장신 목회연구원 또는 석사 과정을 졸업한 전도사를 대상으로 캄보디아인 목사 후보생 훈련을 시작하였다. 아울러 캄장공 회원 중, 목사 선교사는 본국 소속 노회의 목사 임 직 증명서를 요청함으로 사역하는 지교회 임시목사로 세움과 동시에 예비 독노회 목사 회원으 로 확인하였고, 장로 선교사 역시 본국 소속 지교회에 임직 증명서를 요청하여 예비 독노회 장로 회원으로 확인하였다.

2012년, 캄장공 임원회와 독노회설립준비위원회는 이러한 준비를 마쳤

기에 그 해에 독노 회를 설립하고자 하였으나 5인 장로 임직에 대한 공동의회 소집 절차와 참석자 수, 장로 피택 과 훈련 부족 등의 준비 과정에 몇 가지 하자가 드러났다. 그리하여 예정된 일자에 독노회 설 립을 진행하지 않고, 미비 사항 보완 후, 캄장공 설립 만 10년인 2013년 7월 9일에 독노 회를 설립하는 것으로 연기하였다.

2013년 7월 9일 오전 9시, 따크마으 명성센터(김병교 목사)에서는 목사 회원 70명(한국 인), 장로 회원 9명(한국인 4명+캄보디아인 5명) 그리고 61명의 선교사 언권 회원이 ‘캄보디아 장로교 독노회(The Association of Presbyterian Church in Cambodia, 약칭 캄장독)’를 설립하였는데(초대 독노회장 서병도 목사), 이때 선교사를 파송한 본국 장로교단(합동, 통합, 고신, 대신, 백석, 합신)의 대표자 6명이 참석하여 이중(dual) 노회 원권을 인정하는 양해각서 에 서명하였다. 개회 예배와 성찬식에 이어진 첫 회무에서는 ‘캄보디아 장로교회 헌법’을 채택 하였고, 이를 근거로 목사 고시에 합격한 6인의 캄보디아인 전도사를 목사로 안수하였다.

2014년, 캄장신을 6년 섬겼던 전호진 총장 후임으로 김재규 총장이 부임 하였으며, 교회음 악과와 유아교육과 과정을 개설하고 시엠립 외, 캄퐁툼, 캄퐁츠낭 등의 지역에 목회연구원 과 정을 개설하였다. 무엇보다 약 10년 동안, 임대 건물에서 신학 교육을 담당하던 캄장신은 캄 장독 사무실과 함께, 수십 개의 강의실, 교수 연구실, 교무실, 학생 식당, 기숙사, 채플과 도서관 등이 구비 된 독자 건물을 갖게 되었는데, 이는 캄보디아 장로교 연합 사역의 꽃이었다.

2016년, 캄장신 실내 체육관을 구비하고, 부설 유치원을 개설하다.

2017년 12월에 발표된 MK 2021 통계에 따르면, 캄보디아 전국의 개신교 교단 가운데, 캄보디아 장로교(All Presbyterian Church in Cambodia)는 전체의 16.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독립교회(All Independent Church & Other Church Associations, 55.03%)를 제외 할 경우, 캄보디아에서 가장 큰 교단으로 자리매김 되었으며, 따크마오 명성센터의 경우, 캄보디아 개신교회의 10대 지교회에 포함되었다(MK 2021, 2017). 2020년, 캄장독과 본국 파송 교단이 7년 전에 체결한 양해각서 기한을 연장하였으며, 캄장신 김재규 총장은 6년 임기 만료로 귀국하였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친 코비드-19로 인 해 후임 김재호 총장의 캄보디아 부임이 1년 정도 늦추어졌다. 아울러 대부분의 캄장신 학사 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캄장독 산하 지교회의 공 예배 역시, 1년 이상,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2021년, 캄장신 부지에 캄장독/캄장신 역사관 및 랜드마크로 사용될 기도탑을 세웠으며, 캄장독 8주년 기념 찬송가를 출판하였다.

3. 캄보디아 장로교회 현황(오늘)

2021년 하반기 현재, 캄보디아 장로교회 현황은 다음과 같다(2021년 4월 27일 기준).

1. 교회와 기도처: 154개 교회와 308개 기도처.⁴⁾
2. 교인: 성인 7,862명, 세례 교인 6,072명, 어린이 19,473명.
3. 시찰: 동부, 남부, 남서부, 서부, 북부, 프놈펜남부, 프놈펜북부 등 7개 시찰.
4. 행정 조직: 상비부-선교부, 정치부, 고시부, 신학부, 규칙부, 재정부, 위원회-감장신 운 영이사회, 법인관리위원회, 장로교훈련원, 대외협력위원회, 장학위원회, 사무국, 교육국, 재판 국, 감사.
5. 회원: 목사 회원 117명(한국인 84명+캄보디아인 33명), 장로 회원 12명(한국인 2명+캄 보디아인 10명), 선교사 언권 회원 45명.
6. 임원: 노회장, 부노회장(목사, 장로), 서기, 부서기, 회록서기, 부회록서기, 회계, 부회계.
7. 감장신: 총장, 학장, 목회연구원장 포함 전임 교수 18명, 강사 약 50명, 직원 11명, 재 학생-프놈펜 180명, 시엠립 25명, 캄퐁츠낭 18명, 캄퐁툼 29명, 졸업생-100명 이상
8. PTCC법인: 20여 개 지교회 재산과 감장신 부지 포함, 대표와 위원(주주) 20여 명.
9. 감장선(캄보디아장로교 선교사회): 임원-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감장독이 캄보 디아인으로 지도력 이양된 이후의 선교사 출구 전략 수립과 실행을 위해 2019년 5월에 설립.
10. 허가/대외 관계: 종교부 소속의 교단 허가서(감장신 포함), EFC 산하의 로컬 교단.

4) 캄보디아 장로교회 헌법에 따르면, 예배 처소와 전담 사역자 그리고 20명 이상의 성인 신도가 구비 되어 정기적인 예배 드릴 경우를 '교회'라 하며,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기도처'로 구분한다.

4. 캄보디아 장로교회 로드맵과 책무(내일)

첫 번째, 지도력 이양 또는 캄보디아 장로교회의 자치(自治)이다. 캄보디아 장로교회는 지난 18년 동안, 한국인 또는 한국계 미국인 선교사의 지도력 아래 운영되어왔다. 장로교 불모지인 캄보디아에 장로교회가 세워진 것에는 감사하나, 한국 장로교회나 미국 장로교회가 아닌 캄보디아 장로교회이기에 반드시 그리고 조속히 캄보디아인 장로교 지도자가 세워져야 한다.⁵⁾ 구체적으로, 캄장독 대표인 노회장에 캄보디아인 목사가 세워져야 한다. 외국인(한국인) 선교사 중심으로 세워진 캄보디아 개신교단 가운데, 캄보디아 감리교회는 이미 2018년 9월, 캄보디아인 목사에게 교단 지도력이 이양되었으며, 성결교, 침례교, 오순절, 구세군 등의 교파에서는 처음부터 외국인(한국인) 선교사 중심의 교단을 설립하지 않고, 캄보디아인 사역자와 세워진 신학교를 중심으로 사역하고 있다. 물론, 장로교 안에서도 본국 소속 교단이 다르고, 선교사 수가 많기에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제는 한국인 선교사 중심의 캄보디아 장로교회 18년 역사를 뒤로하고, 캄보디아인 노회장이 세워져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한국인 선교사 기준에는 다소 미흡하거나 아직도 훈련받아야 할 것이 많을 수 있지만, 이 땅은 캄보디아 땅이며 교인은 캄보디아인이기에, 캄보디아 장로교회의 지도력 역시 캄보디아인 교회 지도자가 가져야 할 것이다. 일부 한국인 선교사는, 문화와 언어의 차이가 그리 심각

5) 필자는 지금부터 약 12년 전, 캄장공 사무국 시절, 캄보디아 종교부 주관의 한 종교 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장로교(개신교)를 포함한 소승불교, 대승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로마 가톨릭 등, 모든 종교의 대표단 가운데 외국인(한국인)이 대표로 참석한 교파(종교)는 오직 장로교(개신교)뿐이었다.

한 기준인지 묻기도 하는데, 복음은 민족 단위로 증거되고(마 24:14, 계 7:9), 캄보디아 민족 복 음화의 사명은 외국인 선교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캄보디아인 교인과 교회에 주어진 것임을 생각할 때, 지도력 이양은 반드시 그리고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교회 자립이다.⁶⁾ 여기에서 필자가 강조하는 것은 경제적 자립(自立)이 아니라 캄 보디아인 스스로 이웃과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전(自傳)이다. 캄보디아인에게는 불교, 힌 두교, 이슬람교,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 모두, 외국(외래) 종교이다. 그러나 2,000년의 역사를 지나면서 불교와 힌두교는 캄보디아 민족과 역사 그리고 크메르인의 세계관(심성)에 뿌리를 내리면서 민족 종교가 되었으나 로마 가톨릭이나 개신교는 아직도 캄보디아인에게 무언가 어 색한, 서먹서먹한 이방 종교로 여겨지고 있다. 물론, 선교 역사도 로마 가톨릭은 500년 그리고 개신교는 100년에 불과하다.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캄보디아인의 마음에 얼마나 뿌리를 깊이 그리고 제대로 내렸느냐의 여부이다. 외국인 선교사는 선교사를 파송한 국가의 상황, 경험 이나 기준보다 파송 받은 나라의 토양을 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그렇기에 캄보디아 장로교회 의 외국인 선교사는 캄보디아인 장로교인이 교단을 스스로 운영하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할 것 이다. 다만, 아무런 준비와 절차 없이 이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도와 선교의 본을 보 이고, 캄보디아 장로교회를 캄보디아인 동족에게 전도하는

6) '자립'은 교회 경제적 자립은 물론, 외국 교회나 선교사를 통해서가 아닌 스스로의 정치(자치), 스스로 의 복음 증거(자전) 그리고 스스로 민족과 역사에 적합한 신학 개발(자신학화) 등, 모두를 포함한다.

교회로 세워가는 노력과 훈련을 해야 한다. 사도행전과 서신서의 초대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 하는 것 자체가 성도들의 일상적 삶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캄보디아에서는, 캄보디아인 스스로 캄보디아인에게 전도하는 경우를 찾아보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장로교나 개신교를 외국인(선교사)의 종교로 오해하기 때문이다. 캄보디아인 장로교인이 스스로 전도하기 시작하면, 경제적 자립과 자신확화는 자연스럽게 될 것이며, 이때 비로소 캄보디아 장로교(개신교)는 캄보디아인의 삶과 문화 그리고 역사에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이다.

5. 나가는 말: 캄보디아 장로교단의 선교적 가치와 사명

첫째, 캄보디아 장로교회는 캄보디아 민족과 역사 앞에 개혁주의 신학과 장로교 정치를 바르게 전달하고, 신구약 성경 66권에 입각한 바른 삶의 모델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물질 만능주의와 교권 정치 그리고 지상에서의 삶을 성공으로 이끄는 지름 길이라고 드러나기보다는, 캄보디아 국가와 크메르 민족의 미래를 이끌어야 한다는 책무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캄보디아 주재 장로교 선교사가 캄보디아인 장로교인에게 온정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개념을 갖고 접근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으며,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캄보디아 주재 장로교 선교사는 민족의식, 역사의식과 주인의식에 투철한 제자, 믿음으로 앙코르 와트(Angkor Wat)를 뛰어넘을 수 있는

신실한 제자를 세워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신학 교육이나 제자 훈련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선교사 개인의 땀과 눈물이 가득 담긴 DNA가 고스란히 전달되어 가정과 후대로 이어지는 관계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12제자 그리고 사도 바울과 디모데 같은 모델을 캄보디아에서 실천해야 할 것이다.

셋째, 캄보디아 주재 장로교 선교사는 캄보디아에 많은 장로교인이나 장로교회를 세우려는 생각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운다는 생각으로 사역해야 할 것이다. 교단과 교파의 구분이 없을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캄보디아 주재 한인 선교사 동역자라는 측면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함으로 캄보디아에 ‘하나님의 왕국(바실라이아)’ 세우는 일에 긴밀히 참여해야 할 것이다. 일부 장로교단의 고질적 병폐 중 하나가 예큐메니컬 운동을 멀리하는 것인데, 복음 증거와 교회 일치 운동은 수레의 양 바퀴와도 같다. 특별히 캄보디아 복음 100주년을 맞이하는 이때, 분열된 캄보디아 개신교계를 품고 하나 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마치 18년 전, 한국에서 출발한 수많은 장로교단을 하나로 하여 ‘캄보디아장로교 공의회’를 출범한 것처럼, 이제 캄보디아 장로교회는 캄보디아 주재 한인 선교사의 하나 됨과 캄보디아 개신교회 일치를 위해 가장 크고도 많은 수고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특별히, 가능한 교회 인프라는 캄보디아인 장로교인에게 위임하고, 연구개발(Research & Development) 분야가 취약한 캄보디아 필드의 선교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⁷⁾

7) 2016년 1월에 설립된 ‘캄보디아교회사연구원(ICCHI)’과 2021년 4월에 설립된 ‘캄보디아선교연구원(CMI)’은 대표적인 연구개발 중심의 선교 인프라 사역에 해당된다.

참고문헌

1. 장완익, 캄보디아 개신교회사에 나타난 자립정책 연구 -캄보디아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Georgia Central University (Ph.D.), 박사학위 논문, 2021.
2. 캄장독, 캄보디아 장로교회 헌법, 프놈펜, 2020.
3. APCC, 2021년 건기 정기노회 자료집, 프놈펜, 2021.
4. Hyde, Steve, A Critique of 'Unnecessary Yoke' article and including the related book "We are not Hero: a Missionary's Guide for Sharing Christ, Not a Culture of Dependency" by Jean Johnson, Cambodia Mission Forum, Phnom Penh: Phnom Penh Forum/CRRC, 2014.
5. MK 2021, Presentation of Cambodia Church Data (PPT), 2017.

캄보디아 장로교단이 캄보디아 개신교에 미친 선교적 가치와 사명

노진태 선교사

새 찬송가 318장 ‘순교자의 흘린 피가’ 가사를 보면 “순교자의 흘린 피가 역사속에 맥박 치고 전도자가 뿌린 복음 우리 강산 밝히었다.” 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발제자 장완익선교사가 발표한 ‘캄보디아 장로교단이 캄보디아 개신교에 미친 선교적 가치와 사명’의 글을 여러 번 읽으 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발제자 장완익선교사의 피속에는 장로교 피가 흐르고 있구나...

오늘 발제자의 글은 3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다.

캄보디아 개신교 선교에서 장로교회의 위치와 캄보디아 장로교회의 어제, 오늘, 내일 그 리고 캄보디아 장로교단의 선교적 가치와 사명.

캄보디아 개신교 선교에서 장로교회의 위치를 포함한 어제에 해당되는 태동의 역사를 한 도표로 작성해 보았다.

년도	행사	비고
2002. 11. 18	캄보디아에 하나의 장로교를 세우기 위한 모임1	캄보디아에 하나의 장로교를 세우기 위한 역사적인 첫 모임
2002. 12. 09	캄보디아에 하나의 장로교를 세우기 위한 모임2	
2003. 01.13	캄보디아에 하나의 장로교를 세우기 위한 모임3	
2003. 06. 01	캄보디아 장로회 설립 준비 실행위원 모임	
2003. 07. 09	캄장공 창립총회	10개월만에 창립총회
2003. 09. 04	캄장공 정기모임	
2003. 11. 20	캄장공 정기모임 및 임사총회	
2004. 06. 03	캄장신 운영이사회 임원 선출 결과보고	이사장 : 서병도선교사 장로교신학교 교장 : 문찬식선교사
2004. 10. 05	캄장신 개교	신학교 특징 3학년생은 1년간 Field Ministry(소명과 현장목회 경험)
2005. 06. 15	프놈펜 트머이 신학교부지 6헥타 구입	
2008. 08. 25	제1회 캄장신 첫 졸업식	전호진총장 취임
2008. 10.10	캄장신 후원이사회 조직	

2

캄보디아에 한인선교사가 입국한지 내년이면 30주년이 된다. 30년의 기간에 20년의 캄장의 역사적 의미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나의 장로교로 공의회 설립과 신학교를 개교했다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요, 이곳

1 2002년 고신총회선교부 KPM 파송선교사.

2 서병도. 캄장공 선교백서. 프놈펜: 캄보디아장로교공의회, 2013. PP. 7-17

장로교 선교사들의 하나된 장로교회를 갈망한 결과물이다.

하나의 장로교를 세우기 위한 첫출발에서 2년만에 캄장공 창립총회와 신학교 개교는 한 국 장로교 역사에서는 찾을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캄장공은 독노회를 설립한다는 목표 아래, 2011년에 독노회 설립 준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그런데 노회 설립을 위해서는 장로가 세워진 5개 이상의 지 교회가 있어야 한다. 아직 현지인 목사가 없기 때문에 이 위원회는 목사 선교사가 임시 당회장이 되게 하여 세례교인 20명 이상인 곳에 장로를 피택하는 작업을 시행하였다. 이는 캄보디아 장로교회의 상황을 고려한 출구전략으로 탁 월한 결정이었다.³

캄보디아 장로교회 역사 어제와 오늘은 발제자 장완익선교사의 글을 통해 상세하게 다루었 기에 본 논찬자는 캄보디아 장로교회 미래의 책무 내일에 관해서 논찬을 하고자 한다.

발제자는 캄보디아 장로교회 미래의 책무(내일)에서 두가지를 발표했다. 지도력 이양 또 는 캄보디아 장로교회의 자치(自治)와 교회 자립-스스로의 정치(자치), 복음 증거(자전), 민족과 역사 에 적합한 신학 개발(자신화)이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기 전에 장로교 정치 원리를 이양 받을 목회자와 장로들이 바르게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장로교 헌법에 제시된 교회정치의 특성은 첫째, 주권이 교인에게 있는 민주정치이며, 둘째, 장로들에 의한 대의정치(代議政治)이며, 셋째, 강도 장로와 치리 장로 사이의 교역의 동등성이며, 마지막으로 3심제의 치리회를 지님으로써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연합성의 원리를 지닌다.⁴

교회는 사람들이 조직한 사회 단체(Social Club)와는 다르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의 왕국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성경을 통하여 이 왕국의 백성을 다스리는 정치체제(Ecclesiastical Government)를 만들어 주셨다. 이는 마치 주께서 사회의 안녕 질서를 위하여 국가를 세우도록 허락하신 것과 같이, 교회의 질서를 위하여 교회 정치 원리를 주신 것이다. 누구나 국가의 법 질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교회의 다스림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왕국 시민은 아무도 없다. (Kevin Reed 1983)⁵

장로교에서는 각 회중들이 자신들의 교회를 관리하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 각 “교회”는 각각 “당회”를 두고 지역별로 노회를 형성하고 노회들은 대회 혹은 총회 아래에 존재하는데, 상대적으로 초기에는 흔히 한국 교회의 총회와 독립적인 자매결연 관계에 있다. 노회가 정식으로 조직되면 올바른 목표가 정해지면서 장로교의 조직은 안정된다. 자연스럽게 다른 노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과적으로 대회 혹은 총회가 이어서

3 주캄보디아선교사회 선교역사연구분과. 캄보디아 선교역사-개신교 선교90년, 한인선교 20년. 서울: 도서출판 첨탑. 2013. P.257.

4 박태현. 복음과 실천신학. 서울: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2020, vol.54, P.106

5 이복수. 고신선교(제2호). 부산: 고신대학교 선교연구소. 2002. P. 257.

완성된다. 장로교회는 당회나 노회의 독립적인 교회 권위를 매우 강조한다.⁶

이양 받을 현지 목회자와 장로들은 장로교 헌법에 제시된 교회정치를 목회와 삶의 현장에 서 실천해야 할 것이다.

어느한조직을이양함에있어서인적,물적자산도중요하지만더중요한것은 이양 받는 자들의 영성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잘 준비됨이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마5:18)하신 말씀처럼 성경의 신적 영감의 범위가 성경 전체의 완전 영감과 단어의 선택 축자 영감까지 신적권위와 무오성을 믿고 하나 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으로 나아가는 자를 의미한다.

발제자의 마지막 부분에서 캄보디아 주재 장로교 선교사는 캄보디아에 많은 장로교인이나 장로교회를 세우려는 생각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운다는 생각으로 사역해야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은 한국 초기 선교의 상황을 떠올리게 하였다. 1884년 호러스 알렌이 입국한 후 한국에서는 세계선교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해외선교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885년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입국했고, 이어 탁월한 선교사들이 조선 땅을 밟았다. 이렇게 시작된 한국선교는 1898년까지 미국북장로교 선교회, 남장로교선교회, 호주장로교선교회, 캐나다선교회 등 4개의 장로교 선교 회가 한국선교를 착수하고, 미감리교선교회가 1885년, 그리고

6 이광순. 에딘버러세계선교사대회 연구 총서2 선교현장의 교회. 서울: 미선아카데미. 2012. P. 49.

1896년 남감리교 선교회가 한국선 교를 착수했다. 이어 성공회, 침례회, 성결교, 구세군이 한국선교를 착수하여 한국에는 짧은 동안에 개신교 선교사들이 한국선교를 착수하여 개신교의 풍요로움을 더 해 주었다.

한국장로교선교회는 나라도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교단이 달랐지만 하나의 장로교선교회를 한국에 시작했고, 1907년 독노회를 결성했다.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종교개혁의 유산을 소중하게 여기고 부흥운동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복음주의 정체성을 가진 선교사들이었다. 그것은 평안장로회신학교 요람의 신학교 설립 목적에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한국에 파송된 초기 선교사들은 독자 적으로 선교하지 않고 연합과 협력을 통해서 선교를 진행했다. 발제자의 마지막 표현이 아마도 이런 의미를 가슴에 담고 캄보디아에서 사역하는 한인선교사들이 장로교회만 세우자는 것이 아니라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구세군, 순복음, 성공회 등 불교가 국교로 되어 있는 이 땅에 개신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자는 의미로 감리교회의 좋은 장점을 장로교회가 배워 적용하며 침례교회가 복음전파에 좋은 교재가 있다면 장로교회, 성결교회, 구세군, 순복음도 수용하여 함께 복음을 전하며 장로교회의 좋은 점들이 있다면 타교단에서도 수용과 재해석으로 자신들의 몸에 편한 옷으로 재단 하여 활용함으로 장로교회만, 감리교회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개신교회를 부흥해 보자는 의미로 해석을 했다.

연합은 작은 힘을 강하게 만들어 준다. 연합은 다양성을 조화롭게 하나로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 캄보디아 장로교회가 캄보디아 개신교에 미친 선교적 가치와 사명에서 개신교회로 사역 하고 있는 한인 선교사들의 교

회 사역과 신학교 운영, 연합사역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발제
하신 장완익선교사께 감사를 드리며 논찬을 마친다.



05

주캄 한인선교사회 한인선교 30주년 포럼

발제

주캄 한인선교사회 선교 30주년을 맞이하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선교 발자취
및 50주년을 준비하는 발걸음

노태근 선교사 (해맑은교회 담임)

논찬1

김조동 선교사

논찬2

오테근 선교사

주캄 한인선교사회 선교 30주년 준비위원회

제 5차 포럼

5th FORUM

주캄 한인선교사회 선교 30주년을 맞이하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선교 발자취
및 50주년을 준비하는 발걸음

주제

2021년 11월 11일(목) am. 9:30

- 발제 : 노태근 선교사 (해맑은교회 담임)
- 논찬 : 김조동 선교사 / 오테근 선교사
- 참여방법 : 온라인 Zoom

주캄 한인선교사회 선교 30주년을 맞이하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선교 발자취 및 50주년을 준비하는 발걸음

노태근 선교사 (해맑은교회 담임)

I. 서론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해외선교위원회¹⁾는 홍철원 선교사를 1997년에 캄보디아 선교사로 파 송하여 24년의 캄보디아 선교역사를 가지고 있다. 현재는 총 23명의 교단 소속 선교사²⁾가 캄보디아에서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교단 선교부(이하 ‘기성 선교부’로 기술)를 구성하며 캄보디아 선교후원회³⁾와 협력하여 다양한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본 주제와 글은 주캄 한인 선교사회 선교 3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캄보디아 24년의 선교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50주년을 향한 선교전략을 세움으로써 캄보디아성결교회⁴⁾를 통한 캄보디아 복음화에 기여하고자 쓰여 졌다.

본 글은 기성 선교부가 캄보디아성결교회와 동반자적인 관계를 통한 협력 사역을 할 수밖 에 없었던 특수한 상황과 앞으로 20년 동안 기성 선교부가 목표로 하는 선교 전략에 대해서 쓰여 졌기 때문에 캄보디아 선교를 위한 선교전략으로 객관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와 제안이 되기를 밝히고자 한다.

II. 동반자적인관계를통한협력사역의배경및내용

1. 배경

캄보디아성결교회는 1997년 파송된 홍철원 선교사가 개척한 교회들과 2005년 파송된 허창환 전(前)선교사가 개척한 교회로 시작⁵⁾되었으나, 두 선교사의 갈등으로 인해 총회가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합되지 못했다. 그러다가 2015년 말,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해외선교 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홍철원 선교사가 선교지를 라오스로 변경하고 2017년 초, 권고사직에 의한 허창환 선교사의 선교사 사직에 의해 캄보디아를 떠나게 됨으로써 기성 선교부가 두 선교사가 관리하던 교회를 인수인계하면서 동반자

1)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해외선교위원회는 매년 선교사 시험을 통해서 교단 파송선교사를 선발하여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 간 교단 선교사훈련원에서 훈련 후, 각 나라 선교부의 청원과 지원 선교사의 희망 선교지를 중심으로 선교사를 파송한다.

2)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캄보디아 선교부는 교단파송선교사 10가정 19명(황성연/김세희, 방명진, 노태근/이경은, 김한웅/김미리, 윤석천/김수정, 김응수/조은혜, 김학은/장옥, 이병화/이은숙, 장성남/김미용, 김성은/양여주), 교단협력선교사 1가정 2명(이원희/김학련), 교단전문인선교사 1가정 2명(최봉탁/김경옥)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캄보디아선교회(이사장 신건일 목사)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소속 교회들이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되었다. 매년 두 번의 신학교 강의와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 물질적으로, 기도로 캄보디아 성결교회와 기성 선교부를 후원하며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4) 캄보디아성결교회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캄보디아 선교부 소속 선교사가 지난 24년 동안 개척 및 건축한 31개 현지교회 현지인 목회자와 사역자로 구성된 현지인 총회이며 사단법인의 형태로 2018년 이후 현재 종교성에 등록되어 있다.

5) 현재 캄보디아성결교회는 2008년에 그전까지 홍철원 선교사가 개척한 교회와 허창환 전(前)선교사가 개척한 교회로 시작되었고 그 이후에 두 선교사에 의해 개척한 교회들(결과적으로 홍철원 선교사가 개척한 19개 교회와 허창환 전(前)선교사가 개척한 7개교회)과 2016년 이후 캄보디아 성결교회 총회가 주관하여 개척한 5개 교회가 합하여 현재 31개 교회로 이루어졌다.

적인 협력 사역에 대한 필요성⁶⁾이 기성 선 교부내에서 대두되기 시작했다. 그런 이유로 기성 선교부 소속 선교사들은 교단 파송 선교사 의 가장 중요한 사명을 캄보디아성결교회가 유지, 관리되어 한국에 있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의 눈물과 기도의 후원금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캄보디아성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 캄보디아성결교회 총회와 동반자적인 관계 속에서 협력 사역 을 하는 것을 기성 선교부의 선교 전략으로 세우고 해외선교위원회와 캄보디아 선교회와 함께 동역하게 되었다.

이러한 동반자적인 관계를 통한 협력 사역이 가능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선임 홍철원 선교사가 결단으로 이루어졌다. 홍철원 선교사는 캄보디아 교단 선임 선교사로 거의 20년 동안 헌신하여 선교 사역의 열매를 맺었고 은퇴까지 캄보디아 선교사로 사역할 수 있음에도 해외선교위원회가 요청한 라오스 선교지로 선교지를 변경하는 어려운 결정을 하였다. 20년 가까운 선교 사역의 모든 권한을 후임 선교사와 선교부에 아무런 대가 없이 인수 인계를 하였고 그것을 바탕으로 캄보디아성결교회 총회와 동반자적인 관계를 시작할 수 있었다.

6) 사실 한국 선교의 문제 중 하나는 아무리 선교사가 선교사역을 잘하고 있어도 선교사 건강이나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선교지를 철수하거나 변경하게 될 때, 그 선교사의 사역에 대한 인수 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교회에 대한 관리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과 더한 경우, 아예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었다.

2. 협력 사역 내용

가. 사역및재정위임

- 그동안 선교사에 의해 상하관계로 진행되었던 모든 선교 사역에 대해서 캄보디아성결교회 총회 임원들과 논의하여 함께 결정하고 모든 진행은 캄보디아성결교회 총회가 주관하여 기획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자체적인 교회를 위한 사역은 캄보디아성결교회 총회가 기획하고 주관하도록 위임하였다. 이 중,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교회 건축의 건 - 캄보디아성결교회 총회가 교회 건축지 선정, 설계, 업자 선 정 및 건축 재정 집행 등 건축에 관한 모든 것을 주관하여 3개 교회를 건축하고 1개 교회를 재건축하였다.

(2) 현지교회 사역비 지급의 건 - 기성 선교부가 매달 책정액을 직접 지급 하던 방식에서 후원한 사역비 전액⁷⁾을 캄보디아성결교회 총회 회계에게 위임하고 총회에서 자체적인 기준으로 각 교회의 상황에 맞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3) 단기 선교팀 배정의 건 - 매년 방문할 단기 선교팀의 숫자를 캄보디아 성결교회 총회에 알려주고 총회 임원들이 순차적으로 31개 교회를 배정

7) 캄보디아성결교회 중 22개 교회 사역비는 매달 한국 후원금과 해맑음교회 선교비로 충당하고 나머지 9개 교회 사역비는 매달 한국 후원금과 후원금 부족분을 기성 선교부 선교사가 자비로 충당하고 있다.

하여 총회 소속 모든 교회 가 동등 하게 단기 선교팀과 협력 사역을 진행 하도록 하고 있다.

나. 결과

(1) 캄보디아성결교회가 매년 총회를 개최하고 총회비를 납부하여 자발적으로 캄보디아성결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있다.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 중 기 성 선교부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성 선교부 대표와 논의하여 진행하고 있다.

(2) 이러한 캄보디아성결교회와 동반자적인 관계를 통한 협력사역은 서로에 대한 신뢰 관계에서 시작되었다. 비록 한국 선교사와 한국 교회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많은 문제 점과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선교의 목적이 한국 교회의 문화를 심어 주는 것 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임을 잊지 않는다면, 한국 선교사와 한국 교회의 시선을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 아직도 캄보디아성결교회 총회 역시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그들도 우리와 동등 된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생각으로 많은 부분을 위임하고 신뢰를 보내자, 생각 이상으로 스스로 일들을 잘 해내는 것뿐만 아니라, 총회 임원들 중심으로 소속 각 교회들을 책임 있게 섬기고 있다.

캄보디아인들이 무능하고 무지하고 신뢰할 수 없다는 의심은 지극히 한국적 사고로 바라 보는 우리의 교만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지해야 한다.

III. 캄보디아 한인 선교사회 50주년을 준비하는 발걸음

먼저 캄보디아 선교지와 선교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 만일, 선교지에 선교사가 50년이 지나도 떠나지 못한다면⁸⁾, 그것은 아마도 잘못된 선교전략일 수 있다는 판단을 해야 한다. 물론 캄보디아 상황과 문화 속에서 과연 재정자립이 안된 교회가 제대로 관리, 감독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불안과 현지 사역자들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신학적 수준과 목회 능력에 대한 의심때문에 선교사들이 선교 이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각 교단 및 단체, 선교사에게 선교 이양에 대한 명확한 나름대로의 기준과 판단이 세워지지 않고 현재와 같은 선교가 지속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우리의 사역으로 전락되어 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과 동시에 캄보디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음을 인지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다가오는 주 캄보디아 한인선교사 선교 사역 50주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주 캄보디아 한인 선교사회 내에서 논의되고 제시 되어야 하는 것이 주 캄보디아 한인선교사회의 중요한 사역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몇 가지 논의되어야 할 주제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기성 선교부의 선교 전략을 참고 사항으로 나누고자 한다.

8) 선교지 이양에 대한 기간을 50주년으로 선택한 것은 필자의 주관적인 관점임 밝힌다. 필자의 주관적인 관점의 기준은 회년에 대한 개인적인 신학적 기준으로 세워졌다.

1. 현지 교회의 연합

현재한인선교사들에의해개척, 건축되어진현지교회의상황은한선교사가 한개 이상의 현지교회를 목회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서두에 기술하였듯이, 선 교사의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선교지를 떠나야할 경우, 지속적인 현지 교회의 목회와 관 리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것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교회가 관리되고 유지가 된다 면, 지역별로 현지 교회들과 현지 사역자들이 연합하여 함께 할 수 있도록 캄보디아성결교회 와 같은 연합체를 구성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2. 교회 재정 자립

(가) 교회 목회자와 사역자의 이중직 인정

선교지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교회 재정 자립에 대한 문제이다. 이 문제가 논의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느 정도의 재정이 확보되었을 때 교회의 자립으로 보는가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캄보디아 상황에서 교회의 재 정 자립을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앞서, 우리가 너무 한국 교회의 재정 자립 기준으로 캄보디아 교회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만일 캄보디아 교회와 사역자들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한국 교회의 기준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과연 캄보디아 현지 교회가 재정 자립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수 있다.

사실, 캄보디아 교회 목회자의 경우, 대부분 이중직으로 경제적인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그것이 캄보디아 교회의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결코 틀린 것이 아니다. 이 것을 인정하고 교회 자립에 대한 부분을 현지 교회와 논의해야 할 것이다.

캄보디아성결교회의 경우, 이 부분을 인정하고 매달 일정 부분에 대한 후원을 지원하고 그 이상의 것은 총회에 속한 교회 중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는 목회자를 중심으로 서로에게 나 누어서 후원금에 대한 불평등한 지원이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많은 캄보디아성결교회 소속 목회자와 사역자들은 배우자들이 직업을 갖고 목회를 돕고 있거나, 교회 부설 유치원이나 방과후학교를통해서, 다른선교사나단체들과협력사역을통해자립을하려고하며, 이러한 여건이 안 되는 교회는 소나 닭을 키우면서 자립⁹⁾하고자 한다.

따라서, 교회재정자립은전적으로캄보디아현지교회의재량에맡길수있는 믿음이있 어야 하며 현지 교회와 함께 논의 되고 현지 사역자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9) 한 예로, 기성 선교부는 캄보디아성결교회와 논의하여 교회 자립을 위한 “소” 지원 사업을 진행하였다. 10개 교회를 선정하여 10개 교회에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암소 한 마리를 후원하고 그 암소가 첫 암송아지를 낳으면 그 암송아지를 다른 교회에 헌납하고, 숫송아지를 낳을 경우, 팔아서 그 대금을 다른 교회에 헌금하는 방식으로 하여 현재 많은 교회들이 소를 키우며 자립에 힘을 쓰고 있다. 31개 교회에 다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10개 교회가 다른 나머지 21개 교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캄보디아성결교회 총회 임원들이 제안했다.

(나) 교회 교인 교육을 위한 교재 번역 출판

교회가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인들의 헌금이 있어야 한다. 교인들을 온전한 교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성경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캄보디아 교회들이 교인 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성경공부 교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성경 공부 교재가 있어야 목 회자와 사역자들이 성경 을 공부하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교인들을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기성 선교부는 캄보디아성결교회와 협의하여 교재를 번역 발간하여 보급하기로 논의 하고 지금까지 2권의 절기 교재와 2권의 교회학교 교재를 칼라로 번역 출판하여 보급했으며 현재 1권의 절기 교재가 출판¹⁰⁾을 앞두고 있다.

기성 선교부는 캄보디아성결교회 총회가 교재에 대한 출판권을 가지고 출판하도록 하여 각 교회에 교재를 판매하고 각 교회는 성도들에게 교재를 판매해서 교회 운영에 사용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10) 교재 출판은 한국의 토비아 선교회와 협력 사역으로 토비아 선교회가 출판하는 성경공부 교재를 캄보디아성결교회 총회가 번역하고 감수한 후, 편집 작업을 거쳐서 칼라로 출판하고 보급했다. 사순절과 대강절 교재 각각 1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1, 2' 각각 1권 총 4권을 번역 출판 보급했으며 현재 대강절 교재 '미라클 지저스'가 출판 예정이며 올 대강절 교재로 사용되도록 보급할 예정이다.

(다) 캄보디아성결교회를 위한 기금 구축

한국에서 후원하는 건축 후원금으로 캄보디아에서 교회를 건축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과대한 토지 비용과 더불어 건축비 상승으로 인해 기존의 건축후원금으로 필요한 곳에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다. 이에 교회 건축 후원금을 캄보디아성결 교회의 재정 자립과 미래의 인재 양성 및 선교 사역을 위한 기금 구축으로 전환하는 선교 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캄보디아의 정기 예금 이율이 낮지 않는 장점을 살려 한국에서 후원 되는 건축 후원금을 기금으로 전환하면 원금을 손실되지 않고 이자만으로 지속적인 캄보디아성결교회를 위한 재정으로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다.

3. 현지인 교수 양성을 통한 신학교 운영

기성 선교부는 현재 캄보디아 성결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캄보디아 성결신학교를 캄보디아성결교회 총회가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목회자 중 자격 요건을 갖춘 자들에 게 학위 과정을 이수하게 하여 신학교에서 강의할 수 있는 교수 양성¹¹⁾을 진행하고 있다.

11) 기성 선교부는 교수 양성을 위해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와 구두 M.O.U를 통해 자격이 있는 캄보디아성결교회 소속 목회자 두 명(웃티 목사, 잔타 목사)을 선발하여 학비를 지원하여 M.Div 과정을 이수하게 하였다. 이에 2019년 8월에 졸업을 하고 현재 캄보디아 성결신학교에서 강의 하고 있다. 앞으로 교수 양성 사역을 계속 진행하고자 해당 지원자를 위해 캄보디아성결교회 총 회와 논의 중이다.

더 나아가 캄보디아성결교회 총회에서 자체적으로 교재를 만들고 출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도록 협력하고 있다.

4. 목회자 은퇴에 따른 후임자 연결 사역

현재 캄보디아성결교회 소속 교회 중 나이와 건강상의 이유로 은퇴를 준비해야 하는 교회들이 몇 군데 있다. 중요한 것은 은퇴 시 그 교회를 후임자가 이어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캄보디아 상황은 은퇴 후, 후임자에게 교회를 이양하는 환경이 불가능하다. 특히 캄보디아성결교회의 경우, 대부분의 교회 건축은 현지 목회자가 자신의 땅을 헌납하고 그곳에 교회를 건축한 경우이기 때문에 은퇴 시, 갈 곳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타 지역에서는 젊은 목회자에 대한 수용이 어려운 것이 캄보디아 문화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대안과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재 기성 선교부가 직면한 문제 중 하나이다.

IV. 나가는 말

주 캄보디아 한인 선교사회 선교 30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이 어찌면 캄보디아 선교를 다시 한번 되돌아 보고 선교지 이양을 준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이것은 어느 한 교단이나 선교단체, 선교사 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에 한인 선교사회가 끊임없이 선교사들

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기도 하다. 기성 선교부의 부족한 선교 발자취를 나눔으로써 좋은 시작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아무쪼록 30주년 준비위원회에서 기획하는 포럼이 이러한 문제를 함께 나누고 전략을 제 안하고 협력하여 캄보디아 선교를 효율적으로 감당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

노태근 선교사의

"주캄 한인선교사회 선교 30주년을 맞이하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선교 발자취 및 50주년을 준비하는 발걸음"의 발제에 대해

김조동 선교사

I. 서론

우선 본 논찬자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어 논찬을 하는 자체가 무리가 있다고 여겨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무지한 사람이 선입견 없이 개인적 의견을 피력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느냐는 논찬 부탁자의 말에 위로를 삼아 몇 마디 언급하고자 한다.

굳이 본 논찬자가 기독교대한성결교회와의 작은 연관성을 찾자면, 지금은 라오스 선교사로 사역을 이전한 기성 교단 캄보디아 선교 개척자 홍철원 선교사와 저희 사역 초창기인 2000년 도 초반에 나름 적지 않은 협력사역을 했던 추억이 있다는 것이다.

우선 홍철원 선교사를 생각하면 본 논찬자는 물론이고 초창기 많은 선교사들이 교회사역에서 찬양을 할 수 있는 곡들이 많이 부족했을 때 홍선교사가 한국의 많은 복음송 찬양을 번역하고 보급하여 교회사역에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이다. 마치 2010년 전후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빛과 소

금’ (김은실 선교사)에서 한국의 복음송을 번역하여 찬송집과 녹음된 찬양이 대부분의 한국 선교사들 사역지에 보급되어 교회사역에 큰 도움을 주고 있듯이 말이다.

또한 홍선교사는 청년들과 공동체 생활을 하며 제자와 사역자들을 양육하였고, 이를 통하여 우동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다른 지역에 19여 개에 이르는 교회들을 개척하여 초창기 한인선교사의 역동적인 교회개척에 일조를 한 개척 선교사로 평가된다.

본 논찬자는 어떤 연유로 시작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초창기에 홍선교사의 주 사역지인 우동에서 가끔 개최한 연합집회에 교회 청년들과 함께 참여하며 제 부족한 언어실력으로 한국 강사들의통역을돕곤하였다. 그리 고홍선교사가정이안식년을갖고있는기간에자주프놈펜교회를 방문하여 설교로 섬겼던 일이 있었다. 이러한 홍선교사와의 초창기 협력 사역을 제외하면 기성 교단과의 관계성이나 그 이후에 캄보디아에 입국한 23여명에 이르는 기성 교단 선교사들과의 관계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 논찬을 하는 것이 적지 않은 누를 끼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II. 본 론

1. 기성교단 캄보디아 선교개척자 홍철원 선교사

우선 1997년도의 열악한 캄보디아 선교현장에 기성교단의 개척선교사

로 들어와 20여 년간 사역해 온 홍철원 선교사의 노고에 존경의 마음을 표하고 싶다. 초창기의 열악한 환경가운데서 사역해 온 선교사들의 업적에 대해 찬반양론의 평가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지만, 초기 선교사들의 사역과 기반이 후임 선교사들의 사역에 알게 모르게 디딤돌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잣대로 개척 선임 선교사들의 사역 결과를 쉽게 평가절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초창기 열악한 환경과 사역으로부터 받은 압박의 영향이었는지는 모르지만, 홍선교사 사모가 먼저건강에손상을입어수술을받았고, 그후홍선교사도유사한문제로건강에손상을입고 수술을 받아 거의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수척해진 모습을 보며 마음이 매우 안타까웠었다. 그 러한 연약한 육체적 상태에도 불구하고 자원이든 선교본부의 제의에 따른 것이든 20여 년을 섬겨 온 선교지를 뒤로 하고 새로운 개척지로 순종하여 나가는 일이야 말로 귀감이 되고 머리가 숙여 진다.

한편, 선교사가 사역에 헌신하여 목숨을 바쳐 주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렇다 고 건강이 손상될 정도로 무리를 하는 것은 장기적인 사역을 하는데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을 상기하고 싶다. 아무쪼록 홍선교사 부부가 라오스에서는 건강을 온전히 회복하고 캄보디아에 서의 사역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내실 있고 효과적인 사역이 펼쳐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해외선교부와 캄보디아 선교회 및 캄보디아성결교회 총회의 협력사역

1) 교단 개척 선교사들 간의 갈등이 선으로 바뀌어지는 사례

1997년도에 홍철원 선교사가 처음으로 기성 교단의 개척자로 들어선 이래 많은 동 교단 후임 선교사들이 입국하였는데, 캄보디아성결교회 총회가 2016년 이후에서야 본격적으로 기능이 작동되었다는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어쩌면 초창기 선임 선교사들이 한 마음으로 연 합하는 일에 어려움과 갈등이 원인이지 않았나 여겨진다. 선임 선교사의 후임 선교사들에 대한 기득권과 권위의식과 경쟁의식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 후임 선교사들의 선임 선교사에 대한 존중과 인정에 대한 결여와 함께 독립적이고 경쟁적인 대상으로 여기는 태도가 갈등과 분열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우가 다르긴 하지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동반자로 아름답게 사역 하다가 마가의 문제로 심한 다툼을 하고 분열된 경우를 성경에서 여과없이 드러내는 것을 보면 과거나 현재나 국내 사역지나 해외 선교지나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러한 갈등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셔서 복음이 확장되는 일에 크게 사용하셨다는 사실은 선교가 우리 연약한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임을 다시 한번 인정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캄보디아의 초창기 개척 선교사들 간에 일어난 갈등이 비록 늦기는 했지만 후에 후임 교단 선교사들이 한 마음이 되어 캄보디아성결교회 총회가 본격적으로 협력사역을 이루어가는 결과를 낳았고, 초기 선교

사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후임 선교사들에게 위임한 사례는 매우 긍정적이고 모범적인 모습이라 볼 수 있다. 또한 개척 선교사가 언어와 문화가 다른 또 다른 선교지로 옮겨 개척자로 나아가는 모습은 초기 개척 선교사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지를 깊이 생각하게 한다.

2) 기성 교단 세 기관의 협력 사역의 시너지 효과

2016년도 이후 캄보디아 성결교회 총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해외선 교부와 캄보디아 선교회와 함께 역동적인 협력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본다. 이것은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교단 선교사들 간의 연합이 얼마나 선교에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유발하는지를 반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비단 같은 교단의 선교사들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단을 뛰어 넘는 선교사들 간의 연합이 또한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연합 협력 사역이 시작되면서 총회적으로 교회를 건축하는 건, 현지교회 사역비를 일정한 기준을 세워서 공정하게 지급하는 건, 한국에서 오는 단기선교팀에 대해서 총회 소속 31개 교회들이 편중됨이 없이 순차적으로 배정되는 건 등은 연합 협력 사역이 선교지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매년 총회를 개최하고 총회비를 납부하여 교단 소속 교회들을 든든히 세워가는 아름다운 모습, 특히 캄보디아 현지 목회자들을 존중하여 점차적으로 총회의 주인으로 세워가는 모습은 모든 교단들이 추구하는 목표이며 방향이라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관건은 현

지 목회자들을 어떻게 성경과 신학적인 기초에 든든히 서게 할 것인가, 어떻게 올바른 목회를 훈련하고 경험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교회운영과 행정을 수행할 능력을 키울 것인가,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교회가 영적, 재정적 자립 자치를 이루어 갈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3. 선교사가 교회사역을 현지 목회자에게 이양하는 문제

이러한 질문에 부응하기 위하여 발제자는 캄보디아 한인 선교사회 선교 30주년을 앞두고 캄 보디아성결교회의 지난 24년간의 선교 발자취를 뒤 돌아보고, 좀 먼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다가 오는 50주년을 향한 선교전략을 세우고자 한 점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발제자는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사역을 현지인 목회자에게 이양하는 이슈에 대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들고 있다. 선교사라면 어느나라에서 사역하든지간에 이 문제는 가장 큰 목표요 과제임에 틀림이 없다. 그래서 발제자는 이 과제와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 나머지 지면을 할애하여 논지를 펴며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첫째는 선교사 유고시 대비한 현지교회의 연합체 구성이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를 직접 목회하며 책임지고 있는데 갑작스런 유고 발생시를 대비하여 지역별 현지 교회들과 현지 사역자들로 구성된 연합체를 만들어 함께 그 교회 를 관리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척한 선교사의 유고시를 대비하는 것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연 합체를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개 교회 자체적인 차세대 리더들을 처음부터 이를 염두에 두고 세워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갑작스런 선교사 유고시 비상상황에서 연합체의 역할은 교회를 안정시키는데 중요하겠지만, 준비된 자체 리더가 결여되어 있다 면 지속적인 사역유지와 성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교회의 재정 자립이다.

교회의 재정자립을 위해 캄보디아의 상황을 고려하여 교회 목회자와 사역자의 이중직을 인정 하자는 의견이다. 캄보디아성결교회 총회에서는 “이 부분을 인정하고 매달 일정 부분에 대한 후 원을 지원하고 그 이상의 것은 총회에 속한 교회 중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는 목회자를 중심으로 서로에게 나누어서 후원금에 대한 불평등한 지원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목회자 배우자들이 직업을 갖고 목회를 돕는 것, 교회 부설 유치원, 방과 후 학교, 가축을 키워 자립하는 등의 방안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한다.

총회에서는 교회가 자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인들의 헌금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교인들 로 성장시키기 위해 성경교육이 절실히 필요하여 성경교육 교재를 발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한국에서 후원하는 건축 후원금으로는 교회 건물을 건축하기에 너무 고

비용이 드는 상황이라, 이에 교회 건축 후원금을 캄보디아성결교회의 재정 자립과 미래의 인재 양성 및 선교 사역을 위한 기금 구축으로 전환하는 선교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건축 후원금을 예금 이자가 비싼 캄보디아 은행에 예치하여 이자로 교회 재정을 돕자는 것이다.

모든 선교사들이 직면하고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다. 목회자의 이중직 문제, 사역자들 간에 공평한 재정배분, 이중직 문제와도 연관이 되겠지만 교회 내외적으로 수익사업 창출, 은행이자 수익으로 후원 등이 교회 재정 자립의 대안으로 언급하고 있다. 본 논찬자 역시 이러한 방안을 일부 시도해본 경험이 있어서 일면 공감이가 간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는 것은 “주님의 목자에게 주님의 양떼를 돌보도록 하기 위해 양떼를 사주었더니, 주님의 양떼는 버려 주고 양떼만 돌보더라!”는 씁쓸한 경험을 지을 수가 없다.

주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것이니” 라는 말씀은 사역과 사업이라는 이중적인 상황에서 양립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씀 하고 계신다. 교회 또는 목회자의 재정자립 위한 수익사업은 이를 전담할 협력 사역자에게 맡겨 지지 않으면, 자칫 목회자가 사업적으로 기울어져 사역에는 거의 소홀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그리고 교회와 목회자가 자체적인 수익사업으로 자립하게 된다면 성도들은 굳이 헌금할 동기나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되어 영적인 퇴보를 가져올 우려도 있다.

성도들의헌금은교회자립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헌금(드림)은 성도들의 믿음을 증명하고 성장시키는 매우 중요한 요소요 척도 중의 하나

라는 사실은 성경말씀 전반에 걸쳐 흐르는 가르침이다. 비록 어렵지 만 외부로부터는 필수적인 부분에 최소한의 도움을 받고 성도들의 자발적인 믿음의 헌금으로 교 회가 자립하고 더 나아가 타 교회나 선교를 후원하는 데까지 도달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본 논찬자 뿐만 아니라 모든 선교사들의 바램일 것이다.

세 번째는 현지인 교수 양성을 통한 신학교 운영이다.

현재 기성 선교부는 캄보디아 성경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과거에 해외 선교사 중심 의 교수진에서 이제는 현지 목회자 중에 자격 요건을 갖춘 학위과정 이수자를 교수진으로 양성 해야 함을 언급한다.

아마 대부분의 신학교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그렇게 되어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교수진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 번역된 신학적인 자료와 연장교육이 매우 부족한 선교지 상황을 고려할 때 양성된 교수 진을 어떻게 업그레이드된 학문으로 향상시켜나갈 수 있는가 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부족한 현 지 교수진 숫자로 인해 현재 수준으로 가르치는 데에만 급급하다보면 자신을 개발하여 더 높은 수준의 후학을 양성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는 신학교육을 받은 캄보디아 목회자들의 영적인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한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목회자 은퇴에 따른 후임자 연결 사역이다.

캄보디아성결교회 소속 교회 중 나이와 건강상 이유로 은퇴하는 현지 목회자의 후임 문제가 현지 개척 교회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이슈임을 언급하고 있다. 대부분 목회자 개인 소유권으로 되어있는 교회 부동산과 목회를 이양할 수 있는 후임 목회자가 있는가? 전임 목회자가 이양을 하면 그는 어디로 가며 누가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가? 참으로 중요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경우 일부 교회에서는 은퇴 목사에 대해 원로 목사로 추대되어 퇴임 후의 생활을 책임지거나, 퇴직금이나 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장성한 자녀들의 돌봄으로 살아가 거나, 일부는 생업을 열어 생활하고 있다. 캄보디아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각 교단 총회에서 어떤 대안들이 강구되고 있는지 서로 정보를 교환하여 캄보디아 선교지 상황에 맞는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후임 목회자를 세우는 문제는 교회 자체적으로 또는 교단적으로 신학교육을 통해 사역자 를계속양성해야할것이다. 그러나은퇴목회자의 노후에대한적절한대책이마련되지않 는다면 후임 목회자로 선순환되는 일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신임 목회자 들은 교회를 개척하는 방향으로만 나가게 되고, 반면 기존 교회들은 새로운 후임 목회자 영입이 어려워 교회가 침체되거나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 교회의 은퇴 목회자의 노후 대책은 후임 목회자의 영입과 교회성장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발제자의 이러한 문제 제기는 매우 시의적절하며 모든 목회자가 연구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III. 나가는 말

캄보디아성결교회 개척 24주년을 맞아 캄보디아 한인선교사 30주년을 2년 앞두고, 또한 장 기적으로는 50주년을 바라보며 그동안 이루어온 사역들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비전과 대안을 정리한 발제자의 수고와 헌신에 찬사를 드린다. 비록 이러한 발제 내용들은 기성 교단에 대한 것이지만, 여기에서 제기하는 이슈들은 기성 교단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단에 해당 된다는 점에서 모든 선교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캄보디아성결교회의 초창기 개척자로 20여 년간 헌신하여 기초를 마련한 홍철원 선교사 가정의 노고에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 를 드린다. 발제자가 언급한 중심 내용들, 한국 교단과 현지 교단과의 연합 사역, 선교사가 현지교회를 이양하는 문제 등에 대해 제기한 방안들은 선교사들에게 다시 한번 캄보디아 교회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가야 할 것인가를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하였다. 다른 측면에서는 캄보디아 현지 교회의 이양을 위한 자립 자치 방안과 함께 포괄적인 목회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라는 과제를 동료 선교사들에게 던지고 있다. 앞으로 선교사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열고 나눌 수 있는 장이 열려 함께 캄보디아 선교를 이루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 하며 본 논찬을 접는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캄보디아 선교 발자취 및 50주년을 준비하는 발걸음”의 발제에 대한 논찬

오탁근 선교사

미국 선교학회(ASM)회장 J. 허버트 케인 박사는 중국 선교사로 15년동안 사역을 했다. 그리고 자신의 현장 사역의 경험을 중심으로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세계 선교 역사”를 강의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세계 선교 운동의 회고와 평가를 하며 선교 역사가 스티븐 니일의 말을 인용한다.

“기독교의 선교 활동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사업이다. 이제껏 수많은 선교 활동이 시도 되었다는 사실이 그저 놀라울 뿐이다. 그리고 많은 선교의 결실을 맺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또한 선교 역사에서 수많은 실수가 있었다는 사실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¹

한인 선교사들의 캄보디아 선교의 역사가 30년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을 향하여 진행중이다. 1993년에 최초의 한국인 선교사가 불교의 나라 캄보디아에 주의 부르심을 받고 와서 선교 활동을 시작한지 28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계속하여 한국인 선교사의 숫자는 증가하였고 다양한 형태의 사역을 통한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이 땅에는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이며, 놀라운 일인지 그저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다. 특히 한국의 각 교단들과 많은 선교회들, 그리고 선교단체나 개교회들까지

1 J. 허버트 케인 지음, 변창욱 편역, “세계 선교 역사”, 기독교문서선교회, 2020. P323

도 선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며 협력하는 모습은 마치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선교의 동역을 연상케 한다. 한인 선교사들을 통하여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과 다양한 형태의 선교의 사역지들은 이러한 행복한 연합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시적인 선교의 열매를 얻기까지는 우리들의 수많은 실수가 있었음도 간과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발제자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선교사들의 캄보디아 선교 24년의 발자취를 진솔하게 써내려 간다. 긍정적인 선교의 역사도 많으나 성결 교단 선교사의 선교 초기의 선교 활동중에 일부 선배 선교사들의 실수를 통해서도 비난보다는 해결점을 찾으려 애쓰며 오히려 성결 교단 파송 선교사들의 연합이 더욱 돈독해지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은 우리 모두에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기억하게 한다.²

II. 성결 교단 파송 선교사들의 캄보디아 선교 역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역동성

1. 성결 교단 최초의 캄보디아 파송선교사 홍철원

발제자는 성결교단의 캄보디아 선교사역의 시작을 1997년으로 보며 기

2 “우리가알거니와하나님을사랑하는자 곧 그의뜻대로부르심을입은자들에게는모든것이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독교대한성결교회 해 외선교위원회가 홍철원선교사를 파송한 것을 기점으로 본다. 홍선교사는 성결교단의 캄보디아 선교 개척자이고 선교사역에 매우 열정적인 리더였음을 보여준다. 내가 개인적으로 기억하는 홍선교사님은 신문기자 출신으로 매사에 적극적이며, 자신감을 가지고 선교에 임했으며, 선교 초기부터 현지인들과 공동 생활을 통한 제자 양육에 열심이었다.

후에 제자 양육을 넘어서 캄보디아 성결교 신학교를 세우고 교단이나 교회 파송 선교사들과 연합으로 현지인 지도자를 양성하는 일에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매우 강직한 본인의 성격으로 가끔 선교사간에 부조화도 있었으나 자신의 선교적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교회를 개척해 나갔다. 2015년도에 라오스로 선교지를 이동할 때까지 19곳의 교회를 개척하고 지도자를 세운 일은 실로 대단한 열정의 결과였다. 또한 선교지 이동에 대한 교단 선교부의 권고에 쉽지 않은 결단으로 20년 가까운 캄보디아 선교의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그분만 이 결단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발제자의 표현처럼 홍선교사는 기성 교단 후배선교사들 에게, “동반자적인 협력사역에 대한 필요성”을 보여주며 아름다운 선교지 이동을 하였고 이를 토대로 성결 교단 선교사들은 섬김과 연합의 정신을 배워가며 사역을 하고있다는 데에 동의하며 우리 선교사들에게 선교사역의 선례를 남겨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2. 교회개척사역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CC)의 발표에 의하면 2020년 1월 현재 28,039명의 한국 선교사가 지구촌 곳곳에서 선교 사역 중이고 그 중에서 교회 개척 사역을 하는 선교사가 약 17,000명으로서 약 60%의 선교사가 교회 개척 사역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³ 2013년도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한국 선교사 중에서 안수 받은 목회자의 비율은 70.4%로 조사되었다. 신학 교육을 받고 목회 경험을 가진 선교사가 타문화권에서 교회 개척 사역으로 이어지는 것이 보편적인 사실이다. 그러나 타문화권에서의 교회 개척은 한국에서의 교회 개척과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여겨진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의 교회 개척은 목회자 중심이지만 선교지에서의 교회 개척은 현지인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즉 한국에서는 가시적인 상황, 장소, 시설, 건물 중심의 개척이지만, 선교지에서는 현지 문화와 상황화를 이해하는 현지인 중심의 교회 개척이 중요한 이슈가 된다. 이것은 후일에 선교사의 단계적 철수(전적인 사역의 이양)까지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교회 개척 선교사들이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다.

발제자의 고민도 이 부분을 캄보디아 성결교회의 과제라고 보고있다. 그렇기에 캄보디아 성결교회 총회를 발족하고 2016년도부터는 현지인 목회자가 중심의 교회 사역으로 전환한 것이다.

3 김한성 저, “선교지에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가?”, 에영커뮤니케이션, p12~13

그동안에 한국 선교사 중심의 교회 개척과 운영이 현 지인 목회자들에게 이양이 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 예배당 건축 건, 현지인 사역자 사역비 지급의 건, 단기 선교팀 배정의 건 등의 대부분의 사역의 권한이 현지인 목회자들의 재량으로 이루어 지도록 권한을 이양하였다는 것은 앞으로 캄보디아성결교회 총회가 스스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며 캄보디아 교회 성장의 주역 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본다. 성결 교단 파송 한국 선교사들이 낮은 자세로 현지 목회자 리더십의 동반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캄보디아 목회자들 에게도 책임감 있는 목회 사역으로 발전해 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3. 캄보디아교회의 재정 자립과 온전한 이양에 대한 문제

교회를 개척하고 현지인 목회자가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면 가장 큰 문제가 교회와 목회자 의 재정의 자립에 대한 것이다. 발제자는 이 부분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목회자의 이중직을 인정 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것은 요즈음 한국에서도 목회자들의 생활고로인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실재적으로 주중에 택시가, 택배원 등으로 근무하는 목회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각 교단에서도 이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추세이다. 캄보디아 목회자 들에게도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로 이미 오래전부터 고민해오는 문제이다. 발제자도 지방에서 사역하는 현지 목회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생활비는 스스로 충당해오고 있다고 본다. 물론 생활 자체가 어려운 목회자들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교인의 숫자나 교회의 재정이 넉넉하지 않기에 목회 활동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발제자는 이러한 문제를 안고 개인적인 의견으로 성결 교단 캄보디아 선교 50주년을 완전한 선교지 이양의 기간으로 본다고 조심스럽게 피력한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현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얼마의 기간 동안 사역을 하고 어느 시기에 교회를 자립 시키며 리더십을 이양해야 할까? 이 문제는 현지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의 고민이 담겨져 있다. 이러한 리더십 이양의 문제에 대하여 도움을 받기 위하여 바 이올라대학교 선교대학원의 선교학 교수인 톰 A, 스테픈 교수의 조언을 청정해본다. 필리핀 선교 사로서의 사역의 경험이 있는 그는 그의 저서에서, ‘단계적 철수 중심의 타 문화권 교회 개척 선교 전략’을 제시 하였다.⁴ 즉, 교회 개척 선교사는 개척 초기부터 단계적인 철수(이양)을 염두에 두고 타 문화권에서의 교회 개척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의 이양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교회 개척보다 중요한 것은 신실한 현지인 지도자의 양육과 준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는 모든 선교사들이 예수님의 제자 양육 방법을 배우기를 희망한다.

첫째, 예수님처럼 현지인 제자들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라. 예수님은 많은 시간을 제자들을 아는데 사용하셨다. 함께 먹고, 기도하고, 배우고, 웃고, 여행하고, 사역하면서 제자들과 지속적으로 든든한 관계를 형성하셨다.

둘째, 현지인 지도자와 성도들이 전도 사역의 주체가 되며 교회의 비전을 가지도록 하라.

4 톰 A, 스테픈 지음, 김한성 옮김, 도서출판 토기장이, 2011, p371~375

셋째, 그들의 실수를 받아들이라. 참된 성장은 실수를 통해 나온다.

넷째, 현지인 지도자를 신뢰하라.

다섯째, 준비된 부재를 늘리며 현지인 목회자가 교회를 스스로 감당하도록 이양의 바통을 넘겨라.

문제는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당도 지었으나, 예수님처럼 신실한 일군을 세우는 데에 부족함이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된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전히 제자들에게 있었으나 혹시 우리는 다른 것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지 않은지 자문해본다.

이런 점에서 성결 교단의 교회 자립과 목회 이양에 대한 고민은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고, 계속하여 함께 논의하며 풀어가야 할 과제로 생각된다.

4. 효과적인 캄보디아 선교를 위한 성결교 선교사들의 연합과 협력

재삼 성결 교단 파송 선교사들에게는 다른 교단과 약간 다른 유기적인 선교를 위한 연합의 모습이 보인다. 그것은 한국의 성결 교단과 선교 현지의 동역이 남다르다. 즉, 한국에는 ‘기독교대 한성결교회 해외선교위원회’, 캄보디아선교회(성결교회 소속 교회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 현지에는 ‘성결교단 캄보디아선교사회’, ‘캄보디아 성결교회 총회’(현재는 31개의 캄보디아 교회가 소속되어 현지 목회자 중심)가 구성되어서 때

로는 유기적으로 서로 돕고, 현지 교회에는 가능하면 독립적인 교회로 가도록 사역의 이양을 최대화 하려는 장점이 보인다. 분명 하나님의 선교는 동 역과 연합이라는 큰 틀에서 함께하되, 현지 교회의 독립성이 유지될 때에 더욱 든든한 교회로 설 수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다.

III. 나가는 말

이번에 발제자의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캄보디아 선교 발자취 및 선교 50주년을 준비하는 발걸음”의 발제를 통하여, 그동안 시간 속에 묻혀있던 성결교단 파송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선교사역을 개척기로부터 2021년 현재까지 뒤돌아볼 수 있음은, 재감 한인 선교사회 선교 30주년을 준비하며 보화와 같은 자료를 제공받는 기회가 되었음을 감사히 생각한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하나님의 사역자이며 그분의 동역자 들이다. 우리가 파송 받은 교회나 교단은 달라도 우리의 한 가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이 땅에 세우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다. 발제자가 서론에서 여러 번 강조한 것처럼, 기성 선교부 소속 선교사들 이 현지 리더십과 동반자적인 협력 선교를 지향하고 있다는 고백은 캄보디아 선교지의 희망의 소리로 들려온다. 23명의 기성 소속 캄보디아 선교사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논찬을 마무리한다.

06

주캄 한인선교사회 한인선교 30주년 포럼

송년특집 대담

여선교사가 본 선교 30년

1. 사진의 추억(지난날의 캄보디아)
2. 캄보디아에서의 에피소드
3. 캄보디아 선교와 삶의 소회
4. 가족들에게 미안한 점과 감사한 점
5. 앞으로의 각오와 기대 혹은 소망

대담자 : 윤옥, 이세금, 고정숙 선교사

주캄 한인선교사회 선교 30주년 준비위원회

송년특집 대담

제6차
포럼
6th FORUM

여선교사가 본 선교 30년

내용

1. 사진의 추억(지난날의 캄보디아)
2. 캄보디아에서의 에피소드
3. 캄보디아 선교와 삶의 소회
4. 가족들에게 미안한 점과 감사한 점
5. 앞으로의 각오와 기대 혹은 소망

2021년 12월 28일(화) am. 10시

대담자 : 윤옥, 이세금, 고정숙 선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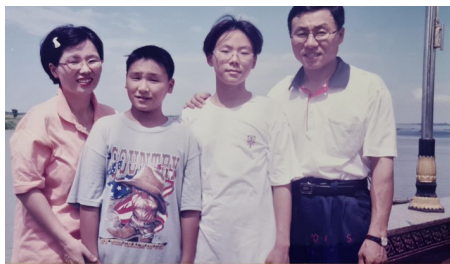
방식 : YouTube 유튜브 실시간




윤옥 선교사



이세금 선교사



고정숙 선교사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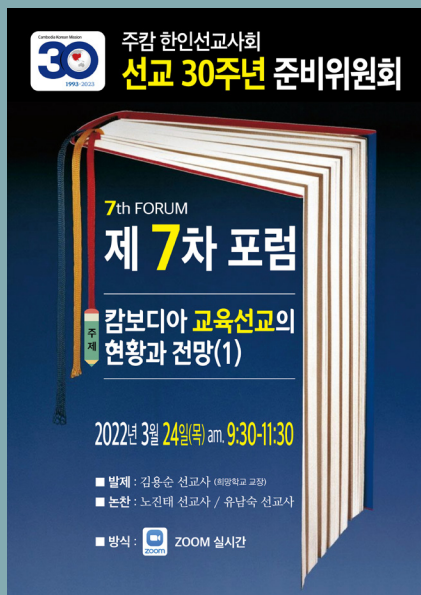
주캄 한인선교사회

한인선교 30주년 포럼

발제

캄보디아 교육선교의 현황과 전망

김용순 선교사 (희망학교 교장)



논찬1

노진태 선교사

논찬2

유남숙 선교사

캄보디아에서의 학교를 통한 교육사역

-프놈펜에 외곽에 위치한 캄보디아 희망학교를 중심으로

(*만 6세(초등1)부터 18세(고3)까지의 캄보디아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현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기준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국제학교, 선교사자녀 대상학교 제외)

김용순 선교사 (캄보디아희망학교장)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잠 1:7)

지혜가 아름다운 화관을 너의 머리에 씌워주고 영광스러운 왕관을 너에게 씌워 줄 것이다 (잠 4:9)

지혜가 있는 사람은 힘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기운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하다 (잠 24:5)

자기소개 : 2002년 8월 캄보디아로 남편 임만호선교사와 함께 파송받은 선교사 김용순입니다.

1. 캄보디아 교육부와 교육청

1) 교육부 : 캄보디아 전체 25개의 시도 교육기관을 관할함.

전국의 사립학교 인허가에 대한 최종 결정 및 허가 기간임.

학교교육에 대한 최종 의사 결정 기관임

2)교육청 : 25개 시도별로 교육청이 하나씩 있으며 학교 인허가에 관련된 서류 감사 및 중.고등학교와 관련된 업무 담당함.

매월 1회 정도 교육청 주재 중.고등학교 대표 회의가 있음.

초등학교의 경우는 칸이나 쓰룩에 교육청 산하 교육국이 있으며 주로 초등학교 관련 업무 담당하며 대표 회의 월 1회 이상 있음.

***정기 감사** : 매년 1회 이상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별도로 직접 나옴.
(교육계획안,교실 환경관 ,학교부대 시설 등등 감사가 매우 엄격함)

2.캄보디아 교육과정

1)학제: 초등 6년 중등 3년 고등 3년 12년 과정 (만 6세에 입학, 10월 생일 기준)

2)새 학기: 매년 11월 시작됨. 코로나19로 현재는 2022년은 1월에 시작함.

3)시험: 1년에 총 10회 (월말고사-년 8회, 학기말고사-년 2회)

졸업시험 : 6학년 있음/해당학교에서 자체시험.

중학교3학년 &고등학교3학년 /국가에서 관할

(2022년 / 중학교 10월/24일 고등학교 11월 14일)

*중3 졸업시험/ 출석률 좋으면 대부분 합격한다.

*고3 졸업시험/ 매년 60% 정도 합격 (상대평가) - 이과와 문과 선택

4)전학: 초등학교 까지는 학교장과 칸 교육국에 서류로 가능하며 어렵지 않

음. 중,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서류와 교육청 서류구비(1학기말,학년말 전학 가능)

5)교과목: 한국 공립학교와 유사(예체능교과서 없음)초등 4학년 영어 시작
교과서는 매년 선배들이 사용한 것을 후배들이 재사용

3.교사양성과정 및 사립학교 교사

1)공립 초등교사: 25개 시도 별로 국립 초등 교사양성학교 있음.(2년 과정)
수료 후 공립학교에서 일하며 퇴직 후 국가연금 혜택, 결원 인원만 매년
20명 내외의 소수 인원만 시험선발.

2)공립 중,고등교사: 일반대학에서 교육계열학과를 4년 과정 졸업생에
한해 국가고시 자격 부여되며 합격 후 국립 중 고등 교사양성학교(2년 과정)
수료 후 공립 중.고등 학교 교사임명가능함. 퇴직 후 국가연금 혜택.

(공립 중.고등교사 2년 과정 학교는 프놈펜에 있음)

교사 지원시 원하는 시도를 미리 정하고 시험 후 결원인원만 임용.

프놈펜경우(10명이내) 2년 과정 수료 후 지원했던 지방 학교로 발령받음.

3)사립학교

a.교육계열학과를 4년 졸업 후 사립학교 교사가 가능 함.(국가연금 없음)

사립학교 교사 충원 방법/교육부 보수교육과정 수료프로그램

매주 토요일 ,3개월~4개월과정 수료증 받음.(코비드19 잠시 중단)

b.공립학교 교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 사립학교 교사 지원 교사는 극소수
(연금,개인과외,학원강사)

c.사립학교는 공립학교 교사를 시간강사로 충원.

4. 캄보디아 희망학교 이야기

A.설립 목적 및 교육철학

가난과 다양한 이유로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로부터 소외된 저소득층 만 6세부터 ~18세까지아동들에게 기독교 세계관과 건강한 자아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라는 안전한 물리적 공간에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다. 학교 교육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든 가정 환경 속에서 꿈과 희망을 갖게하며 지성과 인성과 영성을 갖도록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여 교회와 가정, 지역사회,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크리스천과 건강한 사회인으로 준비시킨다.

B.캄보디아 저소득층 아동의 교육현실

1) 부모들은 문맹률이 높으며 저 학력인 경우가 많다. 20세 전에 결혼 또는 이혼,다자녀 출산,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일자리 등으로 기본 의.식.주 조차 유지가 어려워 자녀교육 보다는 생존문제 해결이 시급한 가정이 많아 자녀교육에 관심을 갖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2)학교에 어렵게 입학한 한 경우도 생계가 힘든 부모를 대신하여 가사노동 전담,동생돌보기, 부모님 일 돕기 등으로 하교 후 학습환경이 열악하여 특히 청소년시기에 탈선률이 높다.

C. 캄보디아희망학교의 지역사회에서의 역할과 주변 마을환경

1)프놈펜시 외곽 축와1지역에 위치해 있음. 17년 전에는 약 5천 가구의 철거민들이 이주하면서 생긴 거대 빈민촌이었고 전기,상수도 전혀 없는 천막집으로 시작되었다. 17년 동안 학교가 마을의 중심이 되어 빈민촌 주민들과 함께 꾸준히 노력했다. 2022년 현재는 과거의 빈민촌에서 벗어나 저소득층마을로 변화였다. 계속되는 도시 확장으로 새로운 주택 단지가 생기면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였고 큰 규모의 공장 및 소규모 상가, 시장 및 기타 다양한 일자리가 생기고 있다. (쪽방,천막집,작은 프페아르벵,중산층 주택단지)

2)공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가 함께 있고 대규모 프랜차이즈 영어학원 및 사립학교, 개인학원, 사립유치원,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기관들이 최근 새롭게 늘어나고 있음. (교육비가 50불 이상이라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부담되는 금액)

3)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하려 할 때 학교의 역할

- 학교를 큰 가정 공동체로 인식하고 담임교사가 부모역할과 교육자 역할 동시 감당(상담,돌봄,보충학습,숙제지도,건강관리,병원치료,특별개인지도)
- 지역사회와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지는 지역 공동체로 지속적,장기적,

계획적 사역 (희망의 집짓기 - 110채, 요셉의 창고 쌀 나누기 - 10년, 분유 나누기 (7년) 무료 의료사역,자전거 나누기,어머니 문맹퇴치교실)

4)부모들이 자녀를 학교에 어려운 상황에서 보냈을 때 질 높은 교육과 실력 있는 교육으로 부모들의 기대를 채워주고 좋은 교육환경과 교사들의 사랑 그리고 재미있는 교육 프로그램개발로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여 자퇴률을 낮춘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졸업할 수 있도록 공부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경제적 이유로 자퇴하지 않도록 교사와 학교가 함께 학생을 돕는다. (장학금지원,생활비 보조,긴급구호 등등)

예 - 3살 동생과 함께 수업,매일 개인지도

D.연혁

1)태동 1기 (2003년~2005년)

현재 나가호텔 앞과 꼬백섬 근처에 80년대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도시 빈민촌 작은 빈집(오두막형태)을 임대하여 20명으로 시작함.

2005년 부터 빈집 5채 임대하여 초등3학년까지 약200명 공부함.

2006년 정부의 강제 철거로 마을과 학교 철거되어 이주함.

2)태동 2기 (2006년~2009년)

철거민들과 함께 현재 희망학교가 있는 언동마을로 이주함.

(현재 빈민촌이 있던 썸복잡 마을은 한국대사관 외교부건물 꼬백섬 유원지 바꿈)

2006년 6월 마을 안에 현지 나무 집 임대 후 유치원 시작함.

2007년 200평 임대하여 나뭇잎으로 교실 5개를 짓고 초등과정 시작함.

*크리스천 교사 양성을 위해 기숙사형 학사 운영 (초등학생~ 대학생)시작함.

3)성장기(2009년~2016년)

*현재 장소에 한국 생명샘교회(장로님부부) 부지(약1,000평) 및 건축비 후원으로 초등학교 3층&실외강당 &교직원 숙소 (2009년 완공)

중고등학교 4층 (2014년 완공)

* 교육부 인가 없이 6년간 운영함.(2003년~2008년까지)

* 교육부 인가 (초등~고등학교) 받음. (2009년)

* 초등학교 시작하여 매년 한 학년씩 새로운 학년.

2016년 8월 (설립 14년) 고등학교 1회 (17명) 졸업생 배출.

*교사 및 교직원 양육을 위해 기숙사형 학사 운영 (중학생 ~ 대학생)

4)도약기 (2017년~ 2020년)

*졸업생들이 대학졸업 후 취업 시작 또는 결혼

(대학 진학률 약 80% ,취업 약20%)

*2003년부터 2020년 까지(약 17년) 전교생 100% 무상 지원

(교육비, 학용품, 교복 ,자전거, 생필품, 등등)

*교사 및 교직원 양육을 위해 기숙사형 학사 운영 (고등학생 ~ 대학생)

5)결실기(2021~2022년 현재)

*2022년 6회까지 졸업생(약 118명) 배출됨. (가장 역할)

*교직원 총 28명 중 25명 학사 출신

(교사 양성을 위해 졸업생 중 4명 사범대학 전공 중)

*교육부 우수학교상

*2회 졸업생 1명 & 6회 졸업생 1명 A 점 받음.

*코로나 19로 대면수업 중단으로 설립 이후 최대 위기 상황/ 기숙사형 학사사역으로 양육 받은 교직원들의 실력과 역량발휘- 전교생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을 병행하며 한층 더 성장하게 됨.

E.학생정원 및 모집요강

1)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년별 한 학급

2)학급정원은 초등학교(35명 이내) 중학교(30명이내)고등학교(25명이내)
현재 총 411명 재학 중

3) 학생 선발기준 (2022년)

*유치원 입학 경쟁률 3대 1 (제비 뽑기 선발)

*초등학교&중학교(새 학기 재 등록률이 99%이상)

*고등학교- 중학교 졸업 후 진로 지도 후 기술학교 추천 및 고등학교진학
-특별전형 입학(교직원자녀,선교사추천,현지목회자,성도자녀)

F.수업시간

1)월요일~금요일

2) 초등학교 오전 7시~ 오후3시 (점심시간 11시~1시) 주30시간 수업

3)중,고등학교 오전 7시~ 오후4시 (점심시간 11시~1시)주35시간 수업

*현재 2월부터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오전반 오후반 각각 20명이내 수업 중

G.교육프로그램

교육부 지침에 따라 공립학교와 동일한 교과목수업 및 특별활동

- 1)매주 성구암송
- 2)매주 찬양 1곡 배우기
- 3)주 1회 채플 및 성경공부 1시간
- 4)중.고등학생 컴퓨터 1대1 교육
- 5)외국어(중국어.영어)교육
- 6)특기생 외부 특별교육 (축구,미술.악기,밴드 등등)
- 7)독서지도 (도서관운영) &문화사역(영상실-영화상영)
- 8)불우이웃돕기 특별 외부후원 (부활절,성탄절)
(고아원 돕기,세계재난현장 성금보내기,자전거보내기 등에 사용)
- 9)토요일 스터디 그룹 활동 (선배가 후배 학습지도)
- 10)특별행사
(부활절,성탄절,밀알찬양제,졸업예배,도전골든벨,고3대학탐방,졸업여행)

H.학교운영비 개요 및 모금

1)교육비

2003~2020년 까지 전액 무상교육

2021년 매월 12,5\$(1년 150\$)

2022년 매월 16불 (1년 200\$) (현재 학교운영비의 40%)

2)2022년 현재 학교운영비 : 외부 후원 60% ,교육비 (40%)

3)전체 지출 : 약 60% 인건비, 약40%(기타 운영비)

4)매월 학비 납입이 어려운 경우:

현지 교회와 함께 학생 선발 및 교육비 후원은 현지 목회자를 통해 지원

5)모금방법

1.캄보디아로 후원자가 찾아오는 모금

-교육선교에 대한 비전 제시

(비전이 같으면 동역자가 된다. 걸인과 투자자는 다름)

-필요한 재정,물품,시설 등등 미리 목록 만들어서 준비/바로 알맞게 대답
가능하며 빠른 실행과 피드백으로 신뢰관계.

-마음비우기(묻기 전에 재정 요청 안 함)

2.후원자와의 신뢰관계 만들기

- 목적에 맞는 정확한 지출 (교과서후원-교과서구입)

- 학교계좌 별도(개인 생활비,교회사역비 구제비)

-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교직원,지출관리)

I. 크리스천 교사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방법은?

-폴타임 교직원 28명 중 25명 학사 및 공동체 신앙생활
(17년간 기숙사형 학사 운영)

-프놈펜 보다는 지방에서 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

-가족 공동체 (형제 자매,학사안에서 결혼)

- 교사가 자신의 자녀를 믿고 맡기는 학교
- 자녀 전액 장학제도(교사 자녀 전원 희망학교 재학 중)
- 출산 휴가 최대 1년
- 직위에 따른 상하 구조가 아닌 은사에 따라 보직 맡김
(가르치는 은사-담임교사, 건물 관리-행정 및 서무 등등)
- 공동 리더제 (중고등교감, 초등교감. 관리 및 서무담당, 예배 및 상담)
갈등이 줄고 서로 협력하게 됨.
- 인격으로 서로 존중 하며 급여는 전 직원 동일하게 인상함(청소 아주머니 포함)
- 경조사 시 한 몸으로 서로 돕고 연합
- 주일예배를 함께 드리며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녀들도 형제처럼 신안안에서 성장
- 교사에게 집중하여 섬긴다.(자녀 돌봐주기, 주택지원, 의료비지원, 구호물품 우선 지원)
- 학생은 교사가 돌보고 섬기도록 지원(불우학생 돕기 , 장학생 선발 , 부모 상담, 가정방문)

J. 현지인 교사 중심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이유와 이를 보완하는 선교사님들과의 협력사역

- 1) 단기선교사 또는 동료선교사의 경우 장기적 지속적 계획이 한계 있음.
(한국 방문, 프로그램 연결의 문제점)
- 그 동안 3명의 단기선교사와 함께 학습교재 , 찬양집만들기, 교사교육

2) 캄보디아 동료선교사님과 함께 방과 후 연합 프로그램 (원원사역 4명의 선교사님 참여)

- 선교사님의 단독 사역이며 캄보디아 희망학교생으로 선발한다.

점심시간 또는 하교 후 주말을 이용하여 선교사님 사역지에서 독립적으로 진행함.

*피아노&피리 음악교실

*기타 및 드럼 교실

*재봉 및 의상 만들기 교실

*유소년 축구교실

3) 장점: 선교사님의 독립사역이며 학교 교육의 연장선이 아니라 교사의 부담 없음.

특기생 교육으로 전문가에게 배울 수 있는 특별한 기회

4) 미술 및 성악 등등 선교사님들과의 협력 앞으로도 기대

K. 지속적인 학교 사역을 위해 미래를 위해 준비하거나 계획 중인 사역

1) 선교사의 갑작스런 질병이나 유고시 상황을 미리 대비

- 학교법인설립(2016) 및 희망학교 운영이사회 (유고시 대비) (2022년)

- 선교사 은퇴 후 차기 교장 또는 이사장 임명 (교회에 일임)

2) 지속적인 기독교사 양성(교육계열 학과 대학생 지원 및 인턴제): 장학재단 설립

3)외국(한국포함)교회 또는 기관과 장, 단기 협력관계 (코로나 이후~)

-외부 인적자원을 통한 최신 정보 와 기술을 단기간 전수 및 후방 선교사 발굴

4)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지역 주민이 사랑하는 학교 만들기

-강당 개방, 주차장 무상 대여

-지역 주민 또는 학부모와의 연합 프로그램 (계획 중)

5)교사와 학생들이 꾸준히 성장 할 수 있는 학교 만들기 (코로나 이후~)

-졸업생 동문회를 통해 선후배간 상담 및 취업 진로 등의 실제적 유대 관계 형성

-단기 선교사 및 단기 선교팀 (학생 및 청년 위주)과 함께 단기클럽활동 (축제,기도운동,소풍,요리,예체능,여행,말씀세미나,전도집회)을 통해 학습 영역 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배움의 기회를 갖도록 함

L. 20년간 교육사역을 통한 지역사회 변화와 선교적 의미

1) 빈민지역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양질의 기독교교육과 공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안에 실력으로 인정을 받아 부모들이 보내고 싶은 학교로 위상이 높아짐

2) 바른 세계관과 건강한 자아상 회복을 통해 자존감이 회복됨으로 학교 폭력 없고 수업태도 좋음

3) 교내 봉사 활동을 통해 땀 흘려 일하는 삶의 태도를 배우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성적이 아닌 가치로 자신을 사랑하며 친구와 가족을 사랑하며 감사를 아는 사람으로 성장함

4) 부모들은 일하고 자녀들은 학교에 보내는 지역사회로 변화

5) 17년 전 철거민들이 도시개발로 토지가격이 상승해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지 않고 정착하게 되면서 가난의 대물림을 막고 새로운 가능성을 가진 세대로 성장함

6) 다양한 특별활동을 통해 스스로 자신을 진로를 선택하고 어려움과 부딪히며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며 결혼을 통해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가고 있음

7) 교사에게 받는 사랑과 품어줌 기다림 그리고 오랜 시간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과의 정서적 유대로 인하여 마약 술 도박 매춘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건강한 생각과 사랑을 주는 사람으로 성장

M. 교육선교를 계획 중인 선교사님들께 드리는 제안 4가지는?

1)지리적 위치

*집중된 마을 &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인가? 차이 현저함

(도보로 통학,교통수단,점심 시간 등등)

2)교육 대상

- *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학교 (학령기인구가 충분한지)
- * 부모의 경제적 상황조사 (교육비 책정금액 기준)

3)학교 건물 및 학교 운영비 고려

건물 매입 또는 건축 또는 임대

4)누구와 함께 학교사역을 시작할 것인가?

파송교회,캄보디아 제자, 단체 선교사 등등

N. 캄보디아 희망학교에 학부모들이 자녀를 보내는 이유는?

- 1)학생들이 학교 가는 것을 좋아하고
- 2)교사들의 책임감 있는 학습지도와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
- 3)좋은 시설과 적절한 교육비

O.고등학생 70명에게 물었습니다. 캄보디아희망학교에 다니는 이유는?

- 1)교사들의 사랑과 관심
- 2)교육 프로그램
(다양한 수업 경험,좋은 학습 분위기,엄격한 교칙,우사한 교사들의 우수한 실력)

3)좋은 환경(깨끗하고 넓은 학교시설과 깨끗한 교실, 다양한 휴식공간,예쁜 정원)

4)기독교 학교

5)집에서 가까움

6)교육비가 적절함.

7)부모님의 선택

나가는 말

작은 오두막에서 시작하여 20년간 교육사역을 하면서 현재의 초,중,고등학교의 모습을 갖기까지 오늘 나누기 못한 개인적인 경험들이 더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사역의 선교적 목적은 모두가 같으나 방법이나 적용은 모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희망학교 사례가 선교사님들이 교육사역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 이후로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은 멈추지 않고 지속되었고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 중심에 학교라는 교육기관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학교와 교사는 부모와 같이 깊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따라서 학교건물,교육프로그램,교사 등등 모두 중요하지만 학교의 주인공은 학생입니다. 학생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내 자녀와 같이 사랑해야합니다. 성적이 뛰어나고 특별한 재능을 가진 그룹만 인정받는 학교가 아닌 모든 학생이 함께 행복한 학교 경쟁하지 않는 다같이 일등하는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도 최고의 시설갖추고 실력과 열성을 갖춘 교사들의 사랑을 받으며 마음껏 꿈꾸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학교들이 캄보디아에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20년을 교육현장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고 때론 땀 흘려 봉사하고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캄보디아 희망학교 학생들을 만나 행복합니다.

기도제목 한가지를 말한다면 학교는 100미터 달리기보다 이어달리기입니다. 저에게 허락된 시간을 마치게 되면 다음 주자가 다시 이어받아서 다음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며 지역사회와 함께 오래도록 캄보디아 땅에 빛과 소금이 되는 학교가 되는 것입니다100년 후 200년 후에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캄보디아 땅에서 주님께 쓰임 받는 학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가장 큰 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캄보디아에서의 학교를 통한 교육사역

- 프놈펜 외곽에 위치한 희망학교를 중심으로

노진태 선교사

(제16대 한인선교사회 회장-2010년-, 은혜기독교국제학교 이사장, 하늘영광한인교회 담임목사)

캄보디아 희망학교장 김용순교장의 캄보디아 교육부와 교육청, 교육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심에 감사하다, 희망학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난 추억의 사진첩을 돌려보는 느낌이다. 논찬자는 희망학교의 첫 사역지 빈민촌 지역을 알고 있으며 그 사역지를 방문한 적이 여러 번 있기 때문이다. 고 이시영선교사와 여러 번, 뉴스브리핑 캄보디아 정지대 사장과 방문한 기억이 난다.

도시빈민촌 작은 빈집을 임대하여 시작한 희망학교의 철학이 무엇인지 그 때도 알았지만 오늘발제자를 통해 더 깊이 있게 알게 되면서 몇 가지로 논찬한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코람데오)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한 선교사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배운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대

한 은혜의 소식을 전해준다. 신명기 30장 3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흠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빈민촌 마을의 아이들을 향한 긍휼과 눈물, 기도를 간직한 선교사이다.

둘째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며 실천한 선교사이다.

이들의 환경과 여건으로는 배움이라는 것이 낯설다. 자연스러움이 아니라 어색하고 서먹한 분위기이다. 아이들보다 부모님들이 더 낯설은 분위기이다. 배울 시간에 시내 한 바퀴 돌며 폐지와 빈 병을 모아 오면 2000-4000리얼의 수익을 보장하기에 아이들보다 부모들이 힘들어했다. 지금 이 배움의 시간이 가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자녀들을 밖으로 내 몰았다. 자녀 교육보다 일일 수입을 선택한 부모들이다. 선교사는 이 낯선 지역에서 배움이라는 기회의 분배를 통해 이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뿌렸다.

셋째로,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교육철학의 바탕에 세워진 학교이다.

희망학교의 특별활동의 중심을 보면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들을 섬기고 있음을 보게 된다. 매주 성구암송, 매주 찬양 1곡 배우기, 주 1회 채플 및 성경공부 1시간, 불우이웃돕기 특별 외부후원 등……이 모든 것이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교육이며 실천이다. 희망학교의 재학생들과 졸업생

들의 학교중심의 모임들로 이어지는 것도 일반학교와는 확연히 차이를 보이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 교육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로, 학교운영과 집 짓기 프로젝트는 섬김과 연합의 선교를 실천했다.

영적 가족이라는 울타리인 학교에서 집 짓기 프로젝트는 보호자의 존재로서 충분하다. 선교사 부부의 집이 아닌 학생들의 집을 지어준다는 것은 가족이라는 개념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선교의 지역을 확대하여 섬김과 연합의 자세는 예수님의 마음이라 본다.

캄보디아에서 선교측면에서 교육사역이 어떤 의미이며 어느 위치에 있을까?

이 교육은 2020년대 캄보디아의 일반적 상황은 교육중심의 선교를 필요로 하고 있고 그런 선교가 주도가 될 경우 캄보디아 선교의 새로운 돌파구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런데 진정한 교육선교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외적인 형태 뿐 아니라 십자가 신학에 기초를 둔 선교 신학을 가져야 하고 그 신학에 근거한 선교적 행위를 할 경우 교육선교의 진정한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이러한 선교방식이 2020년대를 향하는 캄보디아 선교 현실에 요구된다.¹고 했다.

기독교 교육사역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¹ 이교육. 캄장신 논문집 아레테이아 제2권. 서울: 캄장신 신학연구소. 2020. 54.

아니다. 기독교 교육사역 및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꼭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

일반학교와 기독교 학교는 무엇이 차이가 있는가? 이 시간 일반학교를 소개하는 시간이 아니기에 오늘이 주제인 기독교 학교에 대해서 나누고 싶다.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그 사명이 있다.

이 기독교적 관점은 교회와 그리스도인 가정의 공유하는 성경적 가치로부터 나온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진리의 핵심에 두고 삶의 전 영역과 관련하여 젊은이들을 양육하는 것이다. 기독교적 시각을 교육에 반영하는 일은 중요한데, 이 시각은 헌신되고 전문화된 교직원에게 의해 실현되며 배움과 성장의 모든 면에서 증명되어야 한다.²

제임스 W. 브랜리는 기독교 학교를 시작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일의 위대함을 깨닫는 것이다. 부모들과 그 자녀들이 함께 예수님을 나누도록 도전을 주시고 의미 있는 기회를 부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기독교 학교를 시작하기 원하는 사람이 첫 단계로 해야 하는 것은 기도이다. 기도가 첫 걸음이다. 기도가 모든 과정을 이끌어 가야 한다. 오직 기도만이 하나님의 은총을 이끌어 내기 때문이다. 두 번째 단계는 학교 설립의 가능성을 보며 책임감을 가지

² 제임스 W. 브랜리. 한국기독교교육진흥원. 기독교 학교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도서출판 CUP. 2006. 28.

고 종합적으로 연구(실천)할 연구위원회(동역자)를 구성하는 것이다.³

기독교 학교의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인격적인 인간으로 교육하고 성장시키는 것이다. 학교는 신앙적 진술을 포함하는 성경적 원리를 고집해야 한다. 기독교 학교의 목적은 이 교육이 하나님의 권위 있고 무오한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과 세계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이 통합된 교육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기초를 둔 높은 질적 교육을 제공하고자 설립되었다.⁴

기독교 학교를 운영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덕목은 지도자의 리더십이다. 기독교 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도자의 리더십이 중요한 덕목으로 자리를 차지한다.

제임스 E. 프루드만은 좋은 지도자들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강렬한 제자들로서 성령의 은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들은 사람들을 발전시키고 하나님 왕국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른 이들의 은사들을 부각(focus)하고 조화와 향상을 이루도록 선포하는 데 자신들이 받은 지도자의 은사를 사용한다.⁵

리더십의 궁극적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창조주와 충만한 관계를 맺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영화롭게

³ 제임스 W. 브렐리. 15..

⁴ 제임스 W. 브렐리. 41.

⁵ 제임스 E. 프루드만. 변진석, 김동화 역. 범세계적 교회와 선교적 리더십. 서울 : 사)한국해외선교회. 2015. 25.

하도록 창조되었다. 이러한 목적들은 궁극적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존재한다. 하나님을 알고, 영화롭게 하고, 사랑하며, 두려워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면서 또 우리의 가장 높은 동기이다.⁶

기독교교를 통해 기본적이면서 궁극적인 가르침은 신앙생활 잘 하도록 학습이라는 도구를 통해 가르치는 것이다.

박상진은 “신앙의 의미, 신앙의 변화란 무엇을 의미할까? 교리를 가르치는 것일까? 교회에 지속적으로 나오도록 돕는 것일까? 생활 속에서 선을 행하도록 격려하는 것인가? 먼저 신앙의 의미를 살펴보자. 신앙이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라틴어 크레도(credo)는 cor나 cordis(마음), 그리고 do(두다, 위치시키다. 놓다, 주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이다. 그레도는 ‘~에게 내 마음을 두다’ 또는 ‘~에게 내 마음을 드린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어원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은 머리의 문제라기보다는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다.”⁷라고 했다.

희망학교의 설립자인 임만호, 김용순선교사는 머리의 선교사라기보다 마음의 움직임에 반응하신 가슴이 뜨거운 선교사이다. 선교현장(희망학교)의 환경과 여건,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학교 살림살이의 입출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며 학교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마음으로

⁶ 제임스 E. 프루드만. 233.

⁷ 박상진. 기독교 교육과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머리의 교육에서 마음의 교육으로. 서울 :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17. 277.

한 학생 한 학생을 자녀로 보고 교사들을 내 형제와 자매로 여기며 학교 주변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은 지체로 보듬고 그들과 함께 진행한 학교요, 마음으로 희망학교를 섬긴 선교사이다.

혹자는 선교의 범위로 ‘교육사역도 들어가는가?’라고 질문을 한다.

선교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만들기 위한 교차문화적 과업이다. 그렇다면 교육사역이야 말로 선교의 중심에 두고 사역에 임해야 할 것이다.

캄보디아에서는 더 말할 것 없이 교육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할 때라고 본다. 이 땅에 기독교 학교가 더 많이 설립 운영되기를 바란다. 교회의 작은 공간이 주어진다면 작게는 2-3명의 어린이들로 어린이 집부터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교육을 운영해 보길 바란다.

그러나 준비된 선교사가……

캄보디아에서의 학교를 통한 교육사역 발제에 대한 논찬

유남숙 선교사

소속 : GMP/PCKWM 캄보디아 선교사 (2003년/18년차) 따까유 뜨람크나 외
5지역 희망교회 개척 희망시온국제학교 설립 (2012년) 현 희망시온국제학교 교장

희망학교를 통하여 캄보디아 기독교 교육사역을 이루어나가는 김용순 선교사님의 글을 읽고 많은 도전과 여전히 캄보디아의 희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잘 자라고 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특별히 본인은 후발 주자로 학교 사역을 해 나가는 한 사람으로 많은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스스로 사역 방향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가야 할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힘을 얻고 함께 한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 많은 동료 선교사님들이 있기에 또한 발 내디디고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감히 김용순 선교사님의 발제에 논찬을 하게 되었기에 더욱 정독했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 땅의 어린 학생들을 교육하여 세계관을 변화시키고 캄보디아의 진정한 기독교인으로 또는 리더로 잘 양육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함께 느끼며 이 글을 적어 나가하고자 합니다.

희망학교의 사역을 통하여

1. 오직 한 길을 걸어오신 것을 치하합니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17년간을 오직 한가지 목표를 가지고 달려온 희망학교의 역사를 높이 평가합니다. 소외되고 버림받고 있던 도시 빈민을 찾아 사랑으로 품어주었고 가족이 되어 주며 교육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희망을 펼치고 있는 선교사님의 사역을 응원합니다.

특히

-학교를 큰 가정 공동체로 인식하고 담임교사가 부모 역할과 교육자 역할 동시 감당(상담, 돌봄, 보충학습, 숙제 지도, 건강관리, 병원 치료, 특별 개인지도)

-지역사회와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지는 지역 공동체로 지속적, 장기적, 계획적 사역(희망의 집짓기 -110채, 요셉의 창고 쌀 나누기 -10년, 분유 나누기(7년) 무료 의료사 역, 자전거 나누기, 어머니 문맹 퇴치 교실)

이러한 학교의 형태는 캄보디아 공립 학교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희망학교이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임만호, 김용순 선교사님의 학교 사역 초기에 빈민가 판자촌에서 공부방으로 학 생들을 교육하고 있을 때 사역 현장을 방문하여 많은 감명과 도전을 받았던 기억을 되살려 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빈민가 아이들 한명 한명을 안아주며 그 어린 영

혼들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던 임만호 선교사님의 그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아버지께서 주신 그 첫 사랑과 마음으로 목표를 잃지 않고 더 단단하게 달려나가고 계신 두 분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기도 합니다. 또한 희망학교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욱 번창하고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그런 명예로운 학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 다양한 사역을 통하여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에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캄보디아 교육의 현장에서는 늘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체능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없이 정해진 교과서만을 가지고 지식을 전달에만 치중하는 것이 캄보디아 공교육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많이 학교 사역에 집중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창의력과 재능 활동에 많은 부분을 투자한다고 생각합니다. 희망 학교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을 돕고 지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며 선교사님의 노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성구를 암송하고 성경 공부와 채플 시간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매주 찬양을 배우며 학생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갖도록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교육 사역을 하는 선교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컴퓨터 1대1 교육과 외국어 및 특기생 교육에도 힘쓰고 있는 것과 선배가 후배를 위하여 공부 모임을 만들어 지도하는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3. 현지 교사 중심과 다른 선교사님들과 협력으로 win-win 사역을 진행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코로나19는 선교지의 환경을 많이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단기 선교사들이 오기에 어렵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현지 교사를 발굴하고 교육하여 우리가 목표로 하는 사역에 가장 잘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로 세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희망학교는 철저하게 준비되고 양육된 교사들이 학교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학교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선교사님은 그동안 학교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을 교육하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학교를 세워나가기 위한 동역자를 양육하는 사역에 집중하여 현재의 명문 학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도전을 받습니다. 앞으로도 장기적인 학교 발전을 위한 선교사님의 끝없는 노력을 기대합니다.

또한 동료 선교사님들과의 협력 사역을 진행하며 서로에게 win-win이 되도록 하는 사역은 고무적입니다. 선교사들 간의 협력이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분명 서로에게 많은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일이기에 더욱 지지하며 응원합니다.

4. 학교의 자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희망학교는 캄보디아 도시 빈민을 위하여 세워진 학교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학교의 모든 교육은 무상으로 이루어졌고 오히려 많은 지원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선교의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한국 교회의 어려운 현실이 선교지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의 후원에 의지 하여 사역하던 선교는 어려운 현실이 되었고 선교지에서의 자립 선교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현실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희망학교도 학교의 자립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무상교육에서 벗어나 소액의 수업료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한국에서의 후원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더라도 학교 사역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희망학교가 계속 질 좋은 학교로 학생들을 사랑으로 품으며 그 명성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5. 교육 선교를 준비하는 선교사를 위한 좋은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용순 선교사님의 발제를 통하여 앞으로 학교 사역을 준비하는 선교사들에게 많은 도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캄보디아 교육 환경에 대한 다양한 정보, 실제적인 사역 현장의 많은 기술, 학교 운영에 대한 솔직한 내용 공개, 학교 사역을 준비하는 선교사들을 위한 4가지 제안도 학교 사역을 준비하는 선교사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

니다. 그 동안의 사역 기술은 앞으로 교육 선교를 계획하며 노력하는 많은 선교사님을 위한 귀한 가이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희망학교를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고 캄보디아 복음화에 앞장 서 일하는 귀한 교육 선교의 장이 될 것을 기대하며 지지합니다.

급격하게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캄보디아 선교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는데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면서 더욱 어렵고 힘든 선교의 환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선교 초기 나무 그늘에서 복음을 전하고 빈 땅에 밭갈을 쫓아 교회를 세우면 사람들이 몰려왔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런 선교의 시대는 지났고 우리는 새로운 시대와 환경에 맞는 선교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러한 고민은 많은 선교사들이 교육 사역에 눈을 돌리게 되었고 유치원, 학교를 통하여 새로운 선교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학교 사역은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하여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교, 힌두교, 샤머니즘 등의 세계관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기독교 학교나 교육을 통하여 캄보디아 어린 영혼들이 기독교 세계관, 가치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들의 영향력은 충분히 이 땅을 변화시킬 힘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희망 학교는 이미 17년 전 먼저 고민하고 그 사역

에 헌신하였고 많은 기독교인 제자들을 키웠고 그들이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제자를 세워나가며 캄보디아 희망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고 더 귀하게 더 많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수고하고 헌신하신 두 분 선교사님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08

주캄 한인선교사회 한인선교 30주년 포럼

주제

캄보디아에서의 의료선교

발표

1. KMAC 30년 의료선교사역의 전략적 유형
최정규 선교사
2. 캄보디아 의료선교 (진료와 교육)
김우정 선교사
3. 지역사회보건 선교
이철희 선교사

주캄 한인선교사회
선교 30주년 준비위원회

8th FORUM

제 8차 포럼

■ 주제 : 캄보디아에서의 **의료선교**

■ 발표

1. 캄보디아 의료선교의 전략적 유형들 (최정규)
2. 캄보디아 병원 선교 진료와 교육 (김우정)
3. 보건진료소 선교사역 (이철희)

질의.응답

■ 일시 : 2022년 4월 21일(목) am. 9:30-11:30

■ 장소 : 목양한인교회

■ 방식 : 온라인 ZOOM 실시간

KMAC 30년 의료선교사역의 전략적 유형

최정규 선교사

1. 종합병원, 의학교육 중심의 의료 선교

- 생명을 살리는 선교의 의미를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
- 높은 수준의 진료, 고급 의료 인력의 활동.
- 헤브론 병원 (김우정), 라이프 간호대학 (구견희)

2. 지역 복음화 중심의 의료 선교

- 총체적 선교의 실질적 구현 모습 : 교회, 학교, 병원등이 한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공동사역
- 이철희(캄풍스프), 김동구(캄풍툼), 정광수, 손영옥(바탐방), 오테근, 김인애(캄풍스프), 서진원(캄풍스프), 김정룡(한방진료), 이철

3. 교회 개척 중심의 의료 선교

- 선교병원이 교회 개척을 위한 센터 역할 : 교회 개척 이후에는 그 지역에는 병원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 남는 사역
- 최정규(좋은의치과), 손영옥(바탐방)

캄보디아 의료선교 (진료와 교육)

김우정 선교사 (헤브론 의료원)

한국에서의 선교 병원들

- 1885년-1910년 사이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진 한국에서의 선교 병원은 30여 개
- 현재 유지 운영되는 대표적인 선교병원들에는 세브란스 병원, 동산 병원, 전주 예수 병원, 광주 기독 병원 등이 있음
- 선교 병원들은 대부분 진료와 교육을 동시에 수행함
- 의료 선교 병원의 역할과 의미
 - 1) 최초의 서양 의료의 도입과 발전
 - 2) 크리스찬 의료 인재 양성
 - 3) 선교의 저변 확대에 지대한 공헌

헤브론 의료원(병원과 간호대학) 목표

- 지속 가능성
- 가난한 캄보디아 환자들을 향하여
(가난과 킬링필드로 인한 의료환경의 열악함)
- 크리스찬 의료 인재 양성



2020년 통계

| 소중한 나눔으로 함께 만든 기적을 한 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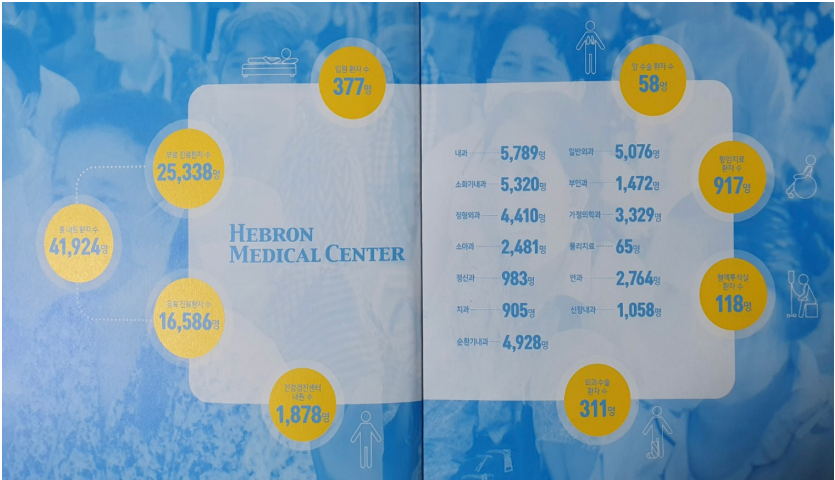
헤브론의료원 사업

2020년은 헤브론의료원의 책무를 잘실시 실감하는 한 해였습니다. COVID-19와 홍수 피해로 대규모 실직, 주거 상실로 이어졌고 이는 취약계층 확대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취약계층 주인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역할을 하였고 캄보디아의 의료 인재 양성을 위해 레지던트 전문의 프로그램 운영과 더불어 휴교령 속에서도 온라인 강의를 통해 간호대학생 육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캄보디아에서 헤브론의료원의 역할이 점점 커지는 만큼 조직개편을 통해 효율적인 병원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내실을 다졌습니다.

■ 헤브론의료원의 존재 이유, 캄보디아 소외계층환자를 위한 의료지원

57,041명	내원환자 수	35,461 명	무료 진료 환자	21,580 명	유료 진료 환자
■ 내과	7,743 명	■ 순환기내과	10,029 명	■ 일반외과	5,969 명
■ 정형외과	6,789 명	■ 소아과	1,997 명	■ 가정의학과	2,732 명
■ 정신과	1,187 명	■ 치과	466 명	■ 안과	4,342 명
■ 소화기내과	6,721 명				
■ 소아과	3,808 명				
■ 치과	1,943 명				
655명	입원 환자 수	3,315명	건강검진센터 내원 수		
406명	외과수술 환자 수	87명	암수술 환자 수		
10명	심장수술 환자 수	706명	항암치료 환자 수		
33명	시술 환자 수				

2021년 통계





전망과 과제

- 진료 역량의 강화
- 호스피스 병동의 활성화
- 간호대학의 사립대 인가의 가능성
- 시앰립 본원의 발전
- 성공적인 이양(15-20년 후) 과 지속가능성
- 현재 진행형

지역사회보건 선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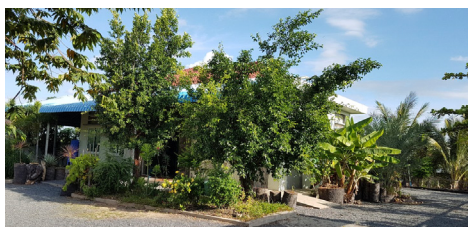


이철희 선교사

아시아교육봉사회 소속 (2016년 10월~2022년 4월 현재)



스렁이화보건진료소 2016년 10월 -> 2022년 현재



선교사역 방향

1. 간접선교

- 보건진료소의 의료사역
- 지역사회 보건사역
- 학교보건사역

2. 직접선교

- 어린이 청소년 전도와 양육
- 지역교회 섬기기
- 주민들 전도

보건진료소의 비전

1. 일차의료서비스에 대해 주민들이 신뢰하는 곳

(치료효과, 근무시간 준수, 의약품 부족하지 않게 하기, 위생적이고 청결한 상태 유지, 친절하게 대하기, 보건교육)

2.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을 함께 만들어 가는 곳

(진료소 조경과 화단 가꾸기, 진료소 주변 깨끗하게 유지, 도로에 나무와 꽃나무 심기, 주변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 환경보호 운동 - 비닐 사용 줄이기, 마을 쓰레기 줍기 활동 주도, 비닐 플라스틱 쓰레기 처리시설구상)

3. 좋은 것을 나누는 곳

(선한 영향력이 확산되며 구제와, 전도가 이루어져 하나님 나라가 확장 되는데 도구로 쓰임 받는 곳)

4.영적 상담을 하는 곳

(마을 주민들의 심신이 위로 받고 진리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도록 자극하고 돕기)

5. 신앙과 삶이 일치하도록 차세대 양육과 공동체 훈련이 이루어지는 곳

(어린이 청소년의 신앙과 보건교육, 건전한 활동, 장학사업)

1. 진료소 보건 의료 사역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유료-실비)

- 증상에 따라 혈당, 혈중 뇨산, 혈색소(빈혈), 콜레스테롤, 장티푸스, 헬리코박터, 간염 ,당기열 등 검사와 투약, 수액요법
- 만성질환자 관리: 고혈압, 당뇨, 위장병 -식이요법 교육, 약물투여
- 극빈자에게 무료로 진료와 투약 /구제
- 응급 시 처치와 투약(사고, 개 고양이)-상처소독, 파상풍, 광견병 예방주사
- 대체요법 병용하며 약물남용을 방지하고 빠른 치유도모
(숯요법, 침술법, 음식 섭취 교육)

단기의료선교팀, 의료엔지오팀과 연합 사역

직원 근무시간 - 오전 7;30~10;30 / 월~목요일 , 선교사-당직

현지인 의사와 간호사 선교사, 미화원으로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

치료의 효과가 있는 곳



의료서비스 제공



2. 학교보건 사역

보건진료소 인근 국립 4개 초등학교

1. 교무실에 응급처치 박스 제공, 내용물 확인과 보충
2. 매년 한 학년 어린이 신체검사(BMI- 2020년 결과 15.3)
3. 건강 검진 (95%의 충치-심각), 필요 시 투약
4. 보건교육

신체적,정신적 건강 유지하고 강화하도록

환경오염 최소화하고, 좋은 환경 만들기 교육

4개 초등학교 교장 회의



응급처치박스



신체 검사, 건강 검진, 보건 교육

3. 어린이 청소년 사역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고,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게 이끌기’

- 저학년 어린이 문해교육 - 성경공부교재 사용

- 청소년- 성경공부, 교리서적 공부, 근로장학금 지급
- 주일 오후 예배 훈련 모임
- 보건교육, 윤리교육, 신앙교육
- 영양보충- 식빵과 과일, 고구마, 옥수수 등으로 간식제공
- 식품지원- 근로 어린이들에게 야채, 과일 제공
- 의류지원- 속옷, 옷, 신발, 모자 등
- 체력강화 활동- 자전거 타고 저수지 다녀오기, 산밀 돌기, 산 오르기
- 환경보호운동 - 공공장소 쓰레기 줍기, 버리지 않기 ,분리수거
- 유기농 야채 재배하여 나누기-진료소 텃밭

3개 마을에서 어린이 전도와 보건교육-1년간





육신의 필요와 영의 양식



공동체 활동- 유기농 야채재배와 나눔



즐거운 놀이마당



4. 지역사회보건 사업

깨끗한 마을 만들기 운동

1. 주민교육 6개 마을 별로 환경교육

- 비닐 쓰레기의 해로움, 쓰레기 문제감소 위한 대안 제시
- 형짚시장가방 ,장바구니 사용하기 운동

2. 어린이 청소년 그룹 활동

- 마을 도로의 쓰레기 줍기 , 분리하여 recycle
- 진료소 앞 도로를 꽃 길로 만들기 -> 해마다 수로 정비로 인해 보류 중
- 꽃나무 씨앗, 과일나무 묘목 나누기

2021년 6개 마을 주민 환경보호 교육- 마을회관, 이장님댁, 진료소



주민교육/ 형견 시장가방



깨끗한 마을 만들기 위한 쓰레기 줍기 활동(1회/격주)



마을 뒷 산에서 쓰레기 줍기와 분리하기



5. 현지교회 지원

지역 교회 섬기기

- 주일오전 예배 드리기
- 주일학교 인도하기
- 현지 자비량목회자 성경공부 (1회/주)
- 예배당 건축 (진행 중)
- 스룽면 인근지역의 현지인 목회자 - 성경교리공부 모임 계획

가정교회 -> 예배당 건축 위한 모임



주일학교 사역



고려할 점

1. 시골에서 적응하는 기간 필요
2. 진료소를 운영하며 유지, up grade하고, 국내 엔지오로 등록하는 과정
3. 동역 선교사 필요- 마을방문, 학교보건을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음
4. 진료소의 장기적 방향 설정과 현지인 지도자 육성

감사합니다.

09

주감 한인선교사회

한인선교 30주년 포럼

발제

캄보디아에서의 학사선교의 실제와 전망

박훈용 선교사

논찬1

유창준 선교사

논찬2

김동구 선교사

주감 한인선교사회
선교 30주년 준비위원회

30th ANNIVERSARY FORUM
1993-2023

9th FORUM
제 9차 포럼

- 주제 : 캄보디아에서의
학사선교의 실제와 전망
- 발제 : 박훈용 선교사
- 논찬 : 유창준/김동구 선교사
- 일시 : 2022년 6월 2일(목) am. 9:30-11:30
- 장소 : 목양한인교회
- 방식 : 온라인 ZOOM 실시간

캄보디아 학사 사역의 회고와 방향에 대한 소고

박훈용 선교사 (캄보디아 GMS)

들어가는 말

코로나 이후 전 세계 선교 사역에 일대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동안 해 왔던 선교 사역들이 일순간에 사라지거나 아니면 축소되어지고 있으며 나아가 선교사들이 선교지를 철수해야만 하는 사례들이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동안 선교지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사역들이 과연 제대로 방향을 잡고 나아가고 있었는지 각 선교지마다 선교 사역들을 평가하며 반성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별히 주님께서 명령하신 마지막 지상명령의 주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그동안 우리의 선교는 “가서”라는 명령은 적극적으로 순종했지만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명령은 오히려 소홀히 하거나 아예 우리의 사역의 관심밖에 있었던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보게 된다. 선교 현장에서 제자 삼는 사역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본 발제자는 지난 약 16년간 캄보디아에서 진행했던 학사사역의 경험을 통해 나타난 결과와 개선방향 및 발전방향에 대해 함께 나누며 본 발제를 통해 현재 학사 사역을 하고 계신 후배 선교사님들이나 이제 학사 사역을 준비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현재 필자는 2019년 코로나 사태를 기점으로 학사 사역을 일시 중단한 상태에 있지만 다시 학사 를 시작한다면 어떤 형태로 시작해야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가운데 있다. 왜냐하면 현재 캄보디아 대학생들은 우리가 사역하던 초기의 대학생들의 사고와는 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또한 캄보디아 사회가 급속도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창의적이고 현 상황에 맞는 학사 사역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포럼은 학사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생각도 함께 나누는 포럼이 되길 바라며 아울러 현재 학사 사역이 코로나 이후에는 어떻게 새로운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할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1. 초기 학사 사역(2003년-2004년)

우리가 학사 사역을 시작한 것은 첫 번째 팀(1997-2002)을 국제 선교단체(OMF)와 교회개척사역을 마치고 안식년을 가진 후 두 번째 팀(2003년)을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처음 학사 사역을 시작할 때 가졌던 우리의 목표는 학사 공동체를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고 장차 캄보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경제, 각계 각층의 분야에서 크리스찬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리더를 세우는 것이었다. 당시에 저희보다 학사 사역을 몇 년 일찍 시작한 한국 선교사님들이 소수 있었고 몇몇 국제 선교단체 소속 선교사들이 막 학사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었다. 천주교에서는 큰 건물을 건축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학사가 있었다. 우리는 초기에 프놈펜 왕립 대학교에 광고를 내고 신입생들을 모집하였고 모집 기준은 가급적 프놈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들, 예를 들어 본 띠민찌이, 라따나끼리, 몬돈끼리 지역에서 온 학생들이 우선 대상이 되었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도 우선 대상이 되었다. 이런 기준에 근거하여 초창기에는 여학생 2명이 선발되어 학사에 들어

와 저희와 함께 공동체 생활하였다. 매일 새벽 5시에는 함께 말씀묵상 시간을 가지고 주중에 2회 정도 성경공부를 함께 하며 말씀을 통한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주일에는 학사 학생들이 뿐만 아니라 학사 학생들의 친구들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 드리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사 생활 규칙도 마련하였는데 귀가 시간은 저녁8시 이전으로 제한하였고 혹시 밖에서 외박을 할 경우는 미리 알려주어야 하며 그것도 한 달에 한번 정도로 제한하였다. 또한 학사 관리와 청소과 관련된 규정들도 만들어서 서로가 함께 공동체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2. 학사 사역의 확장 (2005-2007)

학사 사역을 시작한 후 매년마다 새로운 신입생들을 선발하였고 학생수도 증가함(남,녀 25명-30명)에 따라 조금 더 넓은 학사를 구하게 되었고 남학생 학사와 여학생 학사를 분리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또한 시골 지역 목회자 자녀들 가운데 프놈펜에 소재한 대학에 진학할 경우 우리 학사에 지원을 하면 받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초기에 학사에 들어왔던 시니어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신입생들을 관리하고 지도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초기에 저희 부부에게서 양육 받고 세례를 받은 시니어 학생들은 새로 들어온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기초양육 성경공부를 인도하도록 하였다. 물론 저희 부부는 계속해서 시니어 학생들을 케어하며 이들이 학사 운영에 대한 권한도 일부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였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학사 안에 질서가 잡히게 되고 자체적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어서 감사했다.

3. 학사 졸업생들의 진로와 리더십 개발(2007-2010)

앞에서 언급했던 초기 학사에 들어왔던 2명의 여학생 중 1명이 오랫동안 학사 운영 전반에 관한 책임을 맡고 있다가 졸업 후 진로를 고민하던 중 당시 한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의 소개로 한국 고신대 대학원에 외국인 전형 을 지원하여 전액 장학금을 받고 유학을 하게 되었다. 특별히 고신 대 기독교 교육학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공부하면서 <캄보디아 기독교 학교 운영에 관한 커리큘럼>으로 논문을 작성하고 통과하여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그 후 캄보디아로 돌아와 저희 학사에서 대표 리더로 학사를 운영에 참여하였고 잠시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 기독교 교육학과에서 교수 사역을 감당하기도 하였다. 현재는 고신대 유학시 만난 필리핀 목회자와 결혼하여 함께 캄보디아에 돌아와서 가정을 이루고 저희로부터 독립하여 프레벵 지역에 교회개척을 시작하였고 CIA국제학교에서 크메르어 담당 교사로 일을 하면서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뒤이어 들어온 학사 학생들 가운데 다른 한 여학생은 학업 성적이 우수했고 신앙생활도 모범적으로 잘하여 학사 학생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였다. 이 학생도 졸업 후 헤브론 병원에서 임상병리과에서 1년정도 일을 한 후 한국 일산에 소재한 국제 암 대학원에서 매년 해외 우수 대학생들을 선발하여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학업을 지원하는 석사 과정에 합격하게 되었고 캄보디아인들 가운데 최초로 뇌종양학 분야에서 학위를 받고 현재는 캄보디아로 돌아와 의료와 관련된 연구소에서 일을 감당하고 있다. 최근에 이 자매는 한국에서 신학대학원 과정을 마친 캄보디아 출신 전도사와 결혼하여 올해 초 프놈펜에서 교회개척 사역을 함께 시작하였다. 이 외에도 몇몇 저희 학사 출신 졸업생들이 지방에 흩어져 크리스찬 고등학교 교사로 또는 지방에 소재한 현지교회 사역자 연

합회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이처럼 저희 학사 출신 청년들이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크리스찬 리더로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

4. 학사 학생들을 통한 지방교회 개척사역 (2010-2019)

학사 사역이 말씀 양육과 전도를 통해 도전 받은 학생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프놈펜 근교 시골지역이나 무교회 지역의 복음전도 사역으로 확장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학사 학생들이 함께 개척한 프놈펜 근교 한 지역은 이제 막 사역지를 찾고 계신 선교사님에게 이양을 해드렸고 지금 그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잘 정착되어졌다. 최근에는 교회도 건축하여 예배당을 헌당하는 시간도 가졌다. 저희 학사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주일 오전에는 프놈펜에 개척한 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프놈펜 근교에 새롭게 개척한 두 곳의 교회에 그룹을 나누어 학사 학생들이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다. 이렇게 학사 학생들 가운데 말씀을 통해 변화 받은 몇몇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두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 사역이 주의 은혜로 잘 진행되고 있어서 감사하다.

5. 앞으로의 학사 사역에 대한 몇가지 제안들

A.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사 사역을 할 것인가?

저희가 처음 학사 학생들을 모집할 때는 대상에 대한 구분을 생각하지 않고 막연히 시골지역 가난한 학생들과 가급적 먼 거리에서 오는 학생들 그

리고 불신자 학생들을 대상을 기준으로 삼았다. 최근에 학사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면 대학 캠퍼스에서 학사 모집 광고를 통해 모집하기 보다는 주로 시골 지역에서 교회 사역을 하시면서 그 가운데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프놈펜에 올라 오면 이들을 대상으로 학사 사역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다. 즉 이미 교회에서 쭉 자라서 이미 신앙을 가졌고 교회 생활에 익숙한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학사 형태는 출발부터 이미 신앙을 가졌고 이미 서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학사생활을 하기 때문에 양육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고 또한 이미 익숙한 신앙생활에 젖어서 신앙에 계속적인 발전과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불신 학생들을 모집하여 말씀 양육을 할 경우 처음에는 많은 시행착오와 인내가 필요하고 때로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발생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앙이 조금씩 자라가는 학생들도 있어서 보람을 느끼는 경우를 보게 된다. 물론 말씀 양육을 정기적으로 하지만 선교사 자신이 그만큼 마음을 쏟고 영적 민감함을 유지해야 하기에 때로는 개인적으로는 자주 힘들 때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 현재 저희들과 관계를 가지고 남아 있는 학사 출신 청년들은 대부분 처음에는 불신자였다가 꾸준한 말씀 사역을 통해 지금까지 어느 곳에 있어도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다. 따라서 학사 사역을 시작할 때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먼저 생각해 보고 사역의 대상에 따라 학사 운영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B. 학사 리더십 구성에 대한 제안

일반적으로 학사를 시작하게 되면 처음에는 선교사가 주도적으로 학사

운영에 관여하게 된다. 학사 운영지침, 그리고 학사 학생들의 모든 생활 전반에 걸쳐 기초를 세우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시작하게 된 학사가 매년 신입생들을 받게 되면 자연적으로 학생들의 숫자가 증가하게 되고 선교사 혼자 운영하기에는 많은 부분 벅차게 된다. 이 때 학사 학생들이 가운데 리더쉽을 가진 학생을 대표 리더로 세워서 운영하게 되는데 필자의 경험을 좀 나누고자 한다.

캄보디아 사회는 대부분 계층적 리더쉽 구조를 띄고 있다. 이것은 어느 집단이든지 그 집단 안에 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리더가 세워지게 되고 그 리더의 영향이 대단히 크게 미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필자의 경우도 학사를 운영하면서 처음에는 이러한 구조를 이해하지 못 해서 크게 당황하고 학사 사역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되었다. 즉 학사에서 리더를 세울 때 선교사가 하기 쉬운 시행착오 중에 하나는 학생들 가운데 유능하고 영향력 있는 리더가 발견되면 그 한 사람을 단독으로 세우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이 한 사람의 리더가 선교사와 좋은 관계 속에서 사역을 이어가면 학사 사역에 더 없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이 리더가 선교사와의 관계가 틀어진다면 자신의 생각과 다를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이 리더 학생이 다른 학생들을 선동하여 학사를 떠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리더쉽은 가급적이면 다중 리더쉽을 세우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도 반드시 다중 리더쉽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선교사들은 가이드를 해야 한다. 이런 구조로 가게 되면 학사 내에 문제가 발생할 때 함께 의논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어떤 학생 한 명이 학사 전체를 좌지우지 하지 않게 된다.

C. 학사 연합 모임의 활성화를 위한 제안

초두에도 잠시 언급했듯이 초기 필자의 주위에는 학사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소수였다. 몇몇 국제 선교단체에서 운영하는 학사가 있었고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대형 학사가 하나 있었다. 따라서 학사 사역을 구상하는데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고 시간이 갈수록 학사 사역을 단독으로 감당하는 것은 선교사 자신이 번아웃되기 쉬운 사역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학사사역을 시작한지 5년쯤 지났을 때 주위에서 학사사역을 시작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생겨나고 자연스럽게 이 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학사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 몇 가정과 기도모임을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기도모임과 교제를 통해 학사 사역의 고충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 격려하는 시간들을 가졌고 이 기도모임이 자연스럽게 학사연합 기도모임과 학사연합 수련회로 발전하면서 모임이 점점 더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학사연합 기도회는 매달 한 차례 학사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의 학사관에서 돌아가며 기도회로 모였는데 이 때는 선교사가 설교하는 것 외에 다른 모든 기도회 인도는 학사 학생들이 주도하게 하였으며 기도회 후 다과를 함께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은 크리스찬 대학생으로서 하나됨을 느끼게 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본다.

아울러 매년 한 차례 학사 연합 수련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때는 지방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선교센터를 빌려서 3박4일동안 현지 목회자를 초청하여 오전 특강과 오후에는 각 조별발표회를 가졌고 저녁에는 말씀 집회를 통해 젊은 청년 대학생들이 말씀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도전받는 시간을 가졌다.

필자의 생각에는 학사 연합 수련회는 학사를 운영중인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 큰 그림을 그려주고 프로그램이나 진행은 가급적이면 각 학사의 리더급 학생들이 준비위원회를 조직해서 운영하면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또한 조별 구성도 각 학사에 소속한 학생들과 섞어서 구성하면 함께 3박 4 일동안 서로를 깊이 알아가고 좋은 교제권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학사 수련회 재정은 학생들이 회비로 전체 경비의 50%정도를 감당하게 하고 나머지는 각 학사 운영비에서 감당하면 무리없이 수련회를 운영할 수 있었다. 이것도 상황에 맞게 재정운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

D. 학사를 어디에 둘 것인가?(교회 내부 혹은 교회 외부)

학사 사역을 하면서 필자는 학사와 교회를 같은 장소에서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때로는 교회의 사역의 성격과 학사사역의 성격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물론 교회는 장소와 상황에 구애받지 않지만 당시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 교회의 멤버 대부분이 학사 학생들이었기에 때로는 외부에서 오는 새신자들이 적응을 하지 못해서 다른 교회로 가거나 신앙 생활을 중단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었다. 따라서 필자의 견해는 만약에 교회 사역과 학사 사역을 병행하고자 하는 경우는 가급적 장소를 따로 분리해서 모임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나가는 글

지금까지 필자와 아내가 함께 학사 사역과 교회 사역만 거의 16년동안 집중해서 해 온 것 같다 뒤를 돌아보니 많은 시행착오와 또한 어려움들도 있

었지만 그래도 지금 남아 있는 청년들이 사회 각 다양한 분야에서 크리스찬 리더로서 선한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는 자신들이 종종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전화를 주거나 SNS를 통해서 자문을 구하기도 한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이들의 영적 멘토로서의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학사 사역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많은 열매를 거두기 힘들고 오랜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사역이다. 복음서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들을 보면서 나름 적용하려고 노력했지만 많이 부족했던 것을 느낀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이런 예수님의 방법이 시간이 지나면서 옳은 방법이었다는 것을 몸소 학사 사역을 통해 느끼게 되었다.

코로나 이후 선교의 환경이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우리 선교사들이 준비해야 할 것이 많이 있겠지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세우는 것이 장차 캄보디아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역이라고 생각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교사 개인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고 더 나아가 언어적, 문화적으로 캄보디아를 깊이있게 더 연구하고 공부해야 한다. 왜냐하면 학사 사역은 한 영혼 한 영혼을 말씀으로 세우고 전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전처럼 많은 숫자의 학생들을 받기 보다는 소수의 학생들을 모집하여 집중적으로 말씀을 훈련과 공동체 훈련을 통해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인내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할 준비가 학사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필요하다고 본다. 아무쪼록 현재 학사 사역을 진행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나 학사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준비하시는 선교사님에게 필자의 조그마한 경험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주님이 바라시는 제자들이 학사 사역을 통해 계속해서 배출되길 진심으로 소망한다.

박훈용 선교사의 글에 대한 논찬

유창준 선교사

본 논평자는 캄보디아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미 캄보디아에 오랫동안 선교를 해온 선교사들에게 선교에 대하여 질문과 함께 어떻게 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며,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했다. 그리고 논평자는 2010년 캄보디아 선교사로 와서 지속적으로 선배 선교사들에게 이를 위해 질문하고 조언을 구했다.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한결같이 이 야기한 내용들은 교회 건축보다 먼저 사람을 세우라는 말이었다. 그래서 본 논평자는 언어 시작과 동시에 선배 선교사 두 명과 함께 학사 사역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독자적으로 지금까지 학사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다양한 사역 가운데 그 중 학사 사역은 ‘제자를 세우고 제자들이 세상을 향하여 또 다른 제자를 세우고 섬기는 사역’에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박훈용 선교사의 발제에 동의를 한다. 그러나 학사 사역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지속성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다. 학사 사역은 그 어떤 사역보다도 선교사의 집중이 필요하며 깊은 고민과 함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사역이다. 그 이유는 현지인들의 마음을 나누고 그들의 삶을 개입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함께 거주하거나 매일 소통하며 삶을 보여 줘야 하기 때문이다. 제자는 교육과 훈련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더 배우며 세워진다. 그 어떤 형태의 사역보다도 현지인들이 선교사의 삶과 메시지를 잘 들여다보는 사역이다. 그럼에도 복음화가 더디며 급변해 가고 있는 캄보디아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 중요해진 사역이 학사 사역이

다. 그렇기에 박 훈용 선교사의 오랜 학사 사역의 경험과 열매는 후배 선교사들에게 학사 사역의 매력과 동시에 많은 고민과 도전을 준다.

본 논찬자는 선교 후배로서 기나긴 시간들 속에 나타난 귀한 경험의 글을 논평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캄보디아 한국 선교가 30년이 되어 가는 가운데, 박훈용 선교사는 한인 캄보디아 선교 초기부터 25년간 선교를 하신 분으로 오랫동안 학사 선교와 교회개척 선교를 집중해 왔다. 발제자는 캄보디아 학사 사역의 회고와 방향에 대한 소고를 통해 학사의 경험과 사례를 정리하고, 학사 사역에 관심을 두고 계획하는 후배 선교사들에 대한 학사의 방향을 제안한 것은 캄보디아 선교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발제자의 진심이 느껴진다. 이에 발제자는 크게 두 개의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하나는 학사 사역의 경험들을 시기를 나누어 기술한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학사 사역에 대한 방향들을 제안한다. 본 논찬자는 각각의 발제의 논지 속에 학사 사역의 경험을 논찬하고 운영에 대한 방안의 관점에서 더 많은 논평하고자 한다.

박훈용 선교사는 본인의 학사 사역을 기간별로 나누어 구분하고 단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발제자의 오랜 사역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알 수 있도록 한다. 처음 학사를 시도하는 선교사들에게는 발제자의 이러한 정리를 통해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사의 이해를 돕는다. 발제자의 초기 학사 사역은 한 팀을 마친 후 첫번째(2003-2004) 두번째 시기(2005-2007)는 학사 학생들의 모집 시기이다. 초기 학사 사역에 대한 사례가 없기에 프놈펜 왕립 대학교에 광고를 내고 신입생을 모집하였다. 그 결과 2명의 여학생을 선발하여서 학사

를 시작하였다. 성경공부를 하고 학사 친구들을 초청하여 예배를 드리고 학사 규칙도 세워 나가며 학사 기초를 마련해 간다. 그리고 두번째 시기에 매년 학사 학생들을 모집하여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이 시기에는 남자 학사 여자 학사를 분리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지방 목회자의 자녀들이 지원을 하면 받아 주었다. 처음 시작보다 폭 넓은 학사의 구성원이 공동체 생활을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니어 학생들이 새로운 신입생들에게 기초양육 성경공부를 인도하도록 하게 한 것은 리더들의 리더십 배양을 위해 매우 잘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는 책임을 지려는 문화가 아니다. 아니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역량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가 시킨 일은 잘 할 수 있지만 능동적으로 어떤 일을 담당하는 일은 매우 어려워한다. 발제자는 이러한 캄보디아 상황에 리더십을 현지인에게 부여한 것은 지속적인 학사 사역에 큰 영향을 주는 것에 탁월한 결정이고 자율적인 시스템으로 가는 출발이 되었을 것이다.

세번째(2007-2010)와 네번째 시기((2010-2019)는 학사 졸업생들의 리더십을 키워준 시기이다. 학사 학생들의 역량강화가 진행되는 사례들을 통해 각자의 상황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잘 성장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학생들의 헌신으로 개척된 교회가 지역교회로 세워지는 과정 들을 사례로 설명하고 있다. 2010년부터 개척되어 온 교회들이 캄보디아의 어려운 사역의 현실 속에서도 지금까지 지역교회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학사 사역이 교회 사역에 동력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발제에서는 학사 학생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 선교사의 개입과 또한 지역교회 의 유지가 자립이 되었는지 아니면 선교사의 영향이 여전히 미치고

있으며 지속적인 후원이 필요한 상황인지는 거론되고 있지 않지만 교회 개척이 학생들의 자발적인 헌신에 의하여 개척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캄보디아 선교 역사에 큰 모델이 되기에 충분한 사역이라 할 수 있다.

발제자의 글은 학사 사역이 캄보디아의 어떤 선교 사역보다 열매가 맺히는 스펙트럼이 넓은 사역임을 느끼게 한다. 캄보디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변화되면 선교사 몇 명보다 실제적 결과를 얻어내는 선교를 할 수 있는 예가 된다. 그런데 본 발제에서는 학사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시행착오와 좌절감과 어려움의 사례가 제시되지 않고, 그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극복 했는지, 혹은 극복이 되지 못한 상황도 있었는지를 다루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왜냐하면 학사 사역을 경험한 선교사들은 시간과 재정에 비해 사역의 지속성과 효율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순수한 학사 사역만을 하기보다는 교회 개척이나 유치원 등 교육사역을 병행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기에 학사 사역의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는 방안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들이 발제자의 경험에 포함됐다면 또 다른 의미에서 학사 사역을 이해했을 것이다.

박훈용 선교사는 학사 사역의 시작과 열매의 경험들을 나눈 후 앞으로 학사 사역의 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한다. 우선 발제자는 이미 신자나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의 학생들로 학사를 구성하기 보다는 불신 학생들을 모집하여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제안한다. 발제자가 이 논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출발부터 이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매너리즘에 빠져, 지속적인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반면에 불신자는 힘이 들고 많은 시

행 착오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앙이 조금씩 자라는 학생들로 인해 보람을 느끼는 것을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부분은 논증에 있어 몇 가지 질문을 강력하게 받을 수 있다. 상좌부 불교를 연구하고 학위를 받은 캄보디아 신학교 교수 선교사의 이야기와 인도 선교를 경험한 폴 히버트 박사는 종교성이 강한 국가에서 그 종교 성을 배경으로 하는 세계관과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일은 하루 아침에 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기독교 세계관으로의 변화는 오랜 시간 참고 인내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 그러기에 캄보디아 사람들을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온전한 예수의 제자로 세우는 일은 그만큼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학사를 하는 선교사들은 다양한 목적으로 학사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교회에서 고등학교를 졸업 하고 프놈펜 대학을 진학하면 신앙의 연속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학사의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신앙교육과 지도를 통해 선교사역과 개인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 그래서 더 강력한 신앙의 연속성을 가져 잃어버린 양이 없도록 하는 사례들도 있다. 위의 논지는 아마도 발제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발제를 한 것이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성장시키는 것에 발제자의 관심에서 나온 제안이라 생각한다.

발제자의 또 다른 제안들 가운데 리더십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대한 제안과 학사의 연합 모임의 활성화에 대한 제안이다. 이 두 가지에 나타난 논지는 사역의 중심에 현지인을 세우고 현지인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사역을 결정하게 하는 능동적 사고와 리더십의 역량을 강화하는 제안들이다. 특히 캄보디아의 사회는 대부분 계층적 리더십 구조를 띄고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이러한 사회 구조 속에 다중 리더십을 통해서 사역이 한 개인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지 않고, 학사의 결정권이 집단 리더십

을 통해 결정되는 것은 리더들의 리더십 역량 강화에 매우 큰 결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학사들 간의 연합 수련회를 통해 가급적 각 학사 리더자들로 하여금 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운영하게 하는 제안은 선교사의 부재시에도 학사 사역을 지속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현지인들 간의 신앙적 소통으로 통해 스스로 사역을 주도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발제자의 이러한 제안은 전적으로 동의할 뿐 아니라 앞으로 학사 사역을 계획하는 선교사들은 반드시 연구를 해보아야 한다. 능동적 리더십은 스스로 결정권을 가질 때 발휘된다.

논평을 마무리하면서 박훈용 선교사의 발제를 읽으면서 캄보디아 학사 사역의 황무지 시절부터 16년간 학사 사역과 교회 사역에 집중하며 경험된 것들은 캄보디아 선교의 큰 자산으로서 연구 가치가 있으며 급변하는 세계속에 미래 선교에 큰 공헌을 하기에 충분하다. 캄보디아 선교가 시작된 지 100년, 한인 선교가 30년이다. 그럼에도 캄보디아의 개신교 기독교 인구가 1%에도 못 미친다는 통계가 있다. 선교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닌 이 척박한 땅에 본 논평자는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박훈용 선교사와 같이 오랜 세월 학사를 한 경험과 여러 선교사들의 학사의 상황들을 사회 과학 연구 조사 방법론을 사용하여 양적, 질적 연구를 통해 객관화하고 자료화해서 학사 사역에 구체적인 결과물을 보고하는 것은 선교의 큰 유산으로 남을 것이다. 선교사들 뿐 아니라 학사를 거쳐간 많은 현지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 학사가 제자 양육에 왜 탁월한지, 그리고 왜 캄보디아 선교에 필요한 사역인지 의문과 기대를 하는 모든 선교사들에게 논증이 되고 설득될 뿐 아니라 그 길을 따라 갈 것이다.

박훈용 선교사의 발제에 대한 논찬

김동구 선교사 (캄보디아 GMS)

들어가는 말

학사선교는 선교사의 문화와 생활권의 영향 아래로 현지인을 끌어들이 그들의 문 화와 생활권으로부터 분리를 초래한다는 것과 같은 서구선교에 대한 반성 때문에 부 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었습니다. 학사에 참여하는 현지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의 문 화와 생활로부터 단절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선교현장에서의 현실은 이런 우려와 달리 학사선교를 통한 선교에 많은 선교사들이 관심을 갖고 진 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놈펜 안에서도 웨슬리, 메소디스트, 뉴라이프 처치 그리고 최근에 오로지 학사사역을 통해 학생들에게 크리스찬의 삶을 익히고 배우게 하며 프놈펜 각 곳에 학사사역을 확장하고 있는 transform cambodia 등이 있습니다. 한 인선교사회에 등록된 선교사들 가운데 학사사역을 하는 선교사들은 거의 52유닛 이상입니다. 비단 기독교뿐 아니라, 캄보디아에서 일직이 불교는 농촌 유학생들을 위해 사원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오고 있습니다. 2013년 통계에 따르면 현재 프놈펜에는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 사원을 기숙사로 사용하는 학생이 4000여명에 이 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https://nextcity.org>) 지금은 이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본 논찬자 역시 캄땡툼과 프놈펜에 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현재 캄보디아 안에서 이루

어지고 있는 학사선교에 대한 현황과 과제들을 한인선교사회 안에서 환기를 시키고 좀 더 질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의 필요성을 느껴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고 판단하기에 캄보디아 교회의 미래를 전망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학사를 통한 선교에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프놈펜이나 중소도시의 도청소재지에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이 이 학사사역을 통한 선교를 연합하여 함께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때 문입니다. 다행히 때마침 오늘 박훈용 선교사님이 발제를 통해 이 여정과 관련된 첫 삽을 뜨게 된 것 같아 개인적으로 너무 기쁩니다.

1. 박훈용 선교사 학사사역에 대한 스케치

(1) 역사 - 박훈용 선교사님은 본인이 직접 진행해 오신 학사사역을 년도별로 구분해서 학사사역의 전반적인 모습을 밀도있게 볼 수 있도록 정리를 잘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짧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 학사사역 가운데 구체적으로 학생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기 위해 학업과 관련된 도움이나 프로그램 그리고 신앙과 관련된 훈련 프로그램이 제시되자 앓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2) 제안 - 박훈용 선교사님은 학사사역에 대한 제안을 주셨습니다. 16년간의 오랜 경험을 통해 주신 귀한 제안들임을 한 순간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째, 다중리더십에 대한 강조입니다. 무엇보다 소수의 학생들로 이루어진 한국 선교사들의 학사사역에서 주의해야할 다중리더십에 대한 강조는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캄보디아 사역에

있어 봉툼의 구조를 바탕으로 한 다중리더십에 대한 이해는 모든 사역에 성공을 좌우하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특히 매일의 삶을 함께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학사사역에 있어 다중리더십에 대한 이해는 가히 절대적입니다. 현지 리더십이 한 명일 경우,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에 따른 문제해결과 상호간의 협의가 중요한 학사사역에 있어 선교사의 실수나 혹은 선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한순간에 학사사역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지인 리더십 한 명이 학생들을 선동해서 선교사에게 동시다발로 반기를 들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학사사역을 하는 선교사들 간의 네트워크를 제안한 것입니다. 특히 중소도시와 프놈펜 학사사역의 연계는 선교사들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3)평가 - 발제를 통해 학사사역을 오픈해 주시고 귀한 제안을 주신 박훈용 선교사님께 먼저 감사드리며, 특히 그 간의 경험들을 중심으로 학사사역에 대한 귀한 제안을 주셔서 선교사님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 학사사역의 유익

(1) 농촌 유학생을 위한 효과적인 전도수단

현 총리인 훈센이 시골지역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프놈펜에서 유학을 하기 위해 사원에 머물렀다는 것은 그의 영웅담 가운데 하나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경제발전과 교육문화의 발전도상에 접어들

고 있는 캄보디아의 프놈펜에 농촌 유학생들의 수는 갈수록 증가될 전망이다. 이 학생들의 숙식의 대부분을 책 임지고 있는 것이 현재는 사원입니다. 캄보디아 도시선교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이 사실을 깊이 살펴보고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캄보디아 한 언론사에서 인터뷰한 사원에 기거하고 있는 소카라는 한 학생의 말은 농촌 유학생을 위해 선교사가 주의 깊게 들어야 할 경고라 생각합니다.

“여기(사원)은 살기 좋은 곳이에요. 다른 월세 집보다 훨씬 안전해요. 서로 서로 흠치는 것도 없어요. 많은 친구들이 여기 있어요. 위치도 너무 좋아요. 우리는 도시 중심에 있어요.”

(2) 기독교 지도자 양성의 요람

기독교 학사관의 일정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칩니다.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생활하는 곳입니다. 학사관을 통해 기독교의 정신과 가치를 중심으로 한 삶의 훈련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것은 곧 기독교 리더십의 훈련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운영하는 많은 학사관들이 지향하는 것은 미래의 기독교 지도자 양성을 위한 요람이 되는 것입니다. 캄보디아 선교에 있어 훌륭한 리더십을 배양하고 배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긴급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역은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 지도자의 꿈과 자질을 배양하고 개발하는 데 학사관만큼 유용한 도구는 없을 것입니다.

(3) 캠퍼스 선교의 메카

학사관은 캠퍼스 선교의 거점과 접촉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네비게이트나 유비에프 선교회는 각 대학의 주변에 학사관을 마련하고 그것

을 캠퍼스 선교의 거점과 접촉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4) 도시교회 부흥의 디딤돌

학사관들은 지역 도시 교회를 훌륭하게 섬기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랜 동안 이어온 학생들을 학사관을 통해서 잘 훈련해서 지역 도시교회의 주일학교 교사 혹은 청년부 활동 등을 통해 지역 도시 교회의 성장과 부흥에 견인차 역할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민일보, <http://news.kmib.co.kr>)

(5) 기독교 문화 공간

학사관은 기독교 문화를 선교 현지에 소개하는 첨병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잘 정돈되고 위생적인 학사관들은 현지의 또래의 친구들에게 방문하고 싶고 함께 하고픈 로망을 불러일으키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공간에 기독교를 상징하는 다양한 명화와 조각 그리고 사진 등을 통해 기독교 문화를 전파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사관내에 아름다운 찬양과 찬송이 울려 퍼지도록 해서 기독교의 아름다운 음악도 접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학사사역의 선교전략적 가치 (1) 학사사역과 제자훈련

(1) 학사사역과 제자훈련

박훈용 선교사가 발제에 앞부분에서 주장했듯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것은 각 나라와 문화권에서 제자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제자훈련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캄보디아 상황에서 교회를 통해 제자훈련을 실시하거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성하는 일은 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한국교회처럼 주일성수 훈련이 철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한 C&MA 선교회는 캄보디아에 상황화 선교전략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캄보디아 안에서 현지인 예배를 현지인들을 존중하는 예배의 형태로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지인들이 이해한 예배는 결혼식이나 어떤 중요한 행사에서 행하는 이벤트로 여겨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쓰는 예배를 지칭하는 ‘빠티 트와 이봉꿈’이라는 용어에서 ‘비티’는 이벤트로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들어가는 순서도 ‘깜프빠티’라는 말로 ‘프로그램’으로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예배는 이벤트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예배 현장에서 드러나는 현상은 캄보디아 교회 성도들이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주에 한 번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도록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꾸준한 예배 참석이 어려우므로 이들에게 제자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둘째, 현지 목회자들 대부분이 목회자들의 역할이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만 강조되는 분위기를 조장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제자 훈련과 심방과 같은 캄보디아 미래교회 사역에 핵심적인 부분들이 약화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미래 캄보디아 선교사역을 생각할 때, 치명적인 부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초창기의 한국 선교사들 역시 교회개척에만 중심을 크게 두고 제자훈련을 등한시한 나머지 교회 사역의 지속성에 심각한 위기를 현재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

부분의 선교사들은 교회 환경 안에서 제자훈련을 통해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요원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셋째, 신학교에 대한 필요이상의 의존입니다. 현재 캄보디아 안에서 대부분 신학교는 선교사들의 위탁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사역자의 훈련과 리더십의 성장을 신학교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학교는 신학교대로 훈련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학생들이 신학 교로 진학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학교는 학생들을 훈련하고 책 임지는 곳이 아니라 신학적 소양을 쌓게 하는 곳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역자의 삶의 훈련과 사역자로서의 태도자세는 위탁한 선교사들로부터 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주장이 맞다고 감히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삶의 훈련과 신학적 소양 쌓기는 조금 분리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신학생들의 삶의 훈련까지 신학교에 위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기대와 바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한 열악한 상황에서 제자훈련을 통해 리더십을 양성하고 미래의 캄보디아 교회를 전망할 수 있게 하는 사역은 단연코 학사선교사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에서 학사선교사역은 봉툼의 구조로 인해 보호와 공급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선교사의 책무에 가장 적합하고 캄보디아 봉툼의 구조를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 안에서만 시간이 경과해 가면서 삶을 주고받는 관계의 형성을 통해 리더십이 세워지고 양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캄보디아 사회에서 학사사역 외에 다른 사역을 통해 리더십을 세우고 양성하는 일은 거의 요원합니다. 자칫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사역의 내용에 관계없이 1년 혹은 2년 마다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하는 어려움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2) 학사사역과 교회개척

학사사역은 교회개척과 관련해서 굉장히 유용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훈용 선 교사께서 발제를 통해 학사사역으로 교회를 개척한 경험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학사 사역은 교회개척의 일군들을 양성하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학사사역을 하는 곳은 예배의 처소로 개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훈용 선교사와 마찬가지로 저 역시 학사사역 하는 곳을 예배의 처소로 삼는 것은 반대입니다. 학사사역은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어느 정도 자신들의 문화와 삶의 공간에서 분리되어 선교사의 문화와 삶의 공간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 안에서 외부의 현지인들이 그들만의 예배 공간에 참여하게 될 때 느낄 수 있는 이질감과 생경함은 생각 보다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사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처소로 사용하 기 보다는 인근 교회, 선교사나 현지 목회자가 사역하는 교회에 출석하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지역교회와 접촉면을 넓히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학사사역의 학생들을 통해 인근 지역의 마을에 나아가 교회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박훈용 선교사는 이것을 통해 두 교회를 개척하고 심지어 동료 선교사에게 교회를 위임한 아름다운 사례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저 역시 감뎡툼에서 학사사역을 하면서 주 위에 여섯 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여섯 교회는 외부의 현지 사역자의 도움없이 순전히 학사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과 학사를 통해 프놈펜 신학교를 졸업한 사역자들과 학업 중에 있는 신학생을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셋째, 학사에 있는 학생들을 사역도우미로 다른 지역 선교사님들과 지역 교회에 파송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는 프놈펜에서도 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학사에는 캄땡툼 학사에서 대학을 진학하고 직장을 가진 청년들과 대학을 현재 다니는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학생들 가운데 몇 명을 현재 저는 한국 선교사님들의 사역지에 사역도우미로 보내고 있습니다.

(3) 학사사역과 신앙공동체

학사사역은 신앙공동체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캄보디아 사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철저한 개인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보면 철저한 공동체 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속해 있는 사회나 동료집단으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무시받거나 제외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신경을 많이 씁니다. 지인들의 결혼이나 다양한 이벤트를 주일에배보다 더 중요시하는 부분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고 판단하기로는 현재 캄보디아 교회는 사역자의 가족들과 그들의 친지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조직안에 외부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혈연을 뛰어넘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하면 캄보디아 교회는 미래를 장담하지 못하는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혈연을 뛰어넘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길이 학사사역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캄땡툼에 학사사역을 시작하고 학생들을 프놈펜 대학에 진학을 시켰습니다. 대학에 진학을 시킬 때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프놈펜에 학사관을 마련하고, 모든 학생들을 NPIC에만 진학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을 3학년 때까지 자기들이 자라

고 섬긴, 캄땡툼에 위치한 교회들을 매주 섬기게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이들을 직장을 갖게 되었고, 직장을 다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100over scholarship를 결성했습니다. 이 장학금으로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고, 후배들은 그들의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작년 12월 크리스마스 때 프놈펜에 PCC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PCC 교회는 캄땡툼으로부터 시작해서 NPIC의 선후배 그리고 PCC교회의 선후배로 형성된 어진 강력한 공동체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조차 건강하고 역동적인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직장을 가진 선배들은 대학을 졸업한 후배들의 진로를 고민해 주고 진로를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몇몇 선배들은 후배들의 장학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를 쉬고 다른 직장을 찾는 일조차 때로는 기간을 줄일 때가 있습니다. 한 학생은 후배들의 장학금 그리고 앞으로 PCC 교회에 참석하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4) 학사사역과 협력사역

학사사역은 협력사역을 가능하게 합니다. 첫째, 학사사역은 주위의 선교사나 현지 교회의 성장과 활력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현지 교회 안에 청년들을 찾아 보는 것은 하늘에 별을 따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학사에는 최소 10~20여 명이 중고청년들이 생활합니다. 이 청년들이 선교사가 사역하는 교회들이나 현지교회에 출석하게 되면 많은 선교사님들이나 현지 목회자들이 힘을 얻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둘째, 중소도시에서 학사사역을 하시는 분이나 교회 사역을 하시는 분은 프놈펜에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학사를 프

놈펜에서 다시 시 작해야 할지, 아니면 학사를 하시는 선교사님에게 학생을 맡겨야 할지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곤란한 상황에서 학생들을 맡길 수 있는 학사가 있으면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기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셋째, 학사사역은 통일된 규정이나 규율을 제정함으로써 동일한 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현지의 문화와 습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교사 개인의 기준과 목표에 따라 학사사역의 규정과 규율을 제정하면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학사사역은 학사사역을 하는 선교사들 간의 논의와 협력을 통해 캄보디아 문화와 사회에 맞는 규정과 규율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소도시와 프놈펜에서 학사의 연계를 꾀할 때, 특히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가는 말

저는 지금까지 박훈용 선교사의 발제를 중심으로 논찬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논찬을 마치면서 저는 먼저, 학사사역에 대한 선교사들의 관심과 열정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둘째, 현재 학사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선교사들에게는 서로의 관심사와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장이 되기 바라며 셋째, 선교현장에서 학사사역의 선교전략 적 가치를 확인하고 다가오는 새로운 30년의 캄보디아 선교에 있어 핵심 선교전략으로 자리잡아야 할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피력하며 논찬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10

주캄 한인선교사회 한인선교 30주년 포럼

발제

캄보디아 신학교 사역
캄보디아 신학교육의 현황과 진단
그리고 미래과제들

표명대 선교사

논찬1

조봉기 선교사

논찬2

김동구 선교사

주캄 한인선교사회
선교 30주년 준비위원회

30
1993-2023

■ 주제 :

캄보디아 신학교 사역

10th FORUM
제 10차 포럼

- 발제 : 표명대 선교사
- 논찬 : 박영웅 선교사 (광복회 신학교 총무차장)
- 일시 : 2022년 11월 17일(목) am. 9:30-11:30
- 장소 : 목양한인교회
- 방식 : 온라인(ZOOM) / 오프라인(현장참여)
현장참여하신 분께 점심식사를 제공합니다 (사전신청 요망)

캄보디아 신학교육의 현황과 진단 그리고 미래과제들

표명대 선교사 (캄감신 학생처장)

I. 서론

캄보디아 종교부는 새로운 종교법을 제정하고 내년에 실행하려고 하고 있다. 내년에 새로운 종교법이 실행된다면 앞으로 현지교회들이 예배허가서를 취득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필자가 속한 캄보디아 감리교회도 내년부터 실행될 새로운 종교법¹⁾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우리 선교 사들이 주목해야 할 새종교법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는 예배허가서에 기재될 교회대표를 외국인이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류상 교회대표는 현지인이 하고 담임목사는 계속 선교사가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편법도 생각하고 있지만 종교부에서 새종교법을 어느 수준으로 시행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외국 선교사가 교회의 대표가 될 수 없고 현지인이 되어야 하는 이 시점에 캄보디아 현지 목회자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다. 1992년 외국선교사들이 캄보디아에 파송되어 들어온 즈음부터 세워진 신학교들을 통해 배출된 현지 목회자들이 이미 수백명에 달한다.²⁾ 랄프 윈터(Ralph D.

1) 캄보디아 새종교법에는 예배허가서 등록을 위해 교인 50명의 명단과 지장, 교회부지가 교회명의로 되어 있을 것과 교회대표가 현지인이어야 한다.

2) 캄보디아 감리교 신학교는 지난 23년동안 약18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도 지난 19년의 시간동안 350 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프놈펜 신학교도 200여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캄보디아 성경 학원(CBI)도, 웨스터민스터 신학교 그리고 라이프대학 신학과, 바탐방 신학교, 침례교 신학교, 성결교 신학교의 졸업생들의 수는 천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Winter) 박사가 제시한 선 교회와 교회의 관계³⁾에 있어서 캄보디아 교회들은 1단계인 개척자(Pioneer) 단계와 2단계인 부모(Parent) 단계를 지나 3단계인 협력자(Partner)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일부 선교사들은 이미 이양을 마치고 4단계인 참여자(Participant)의 입장에서 현지교회 목회자에게 리더십을 넘겼다.

좋은 목회자는 결국 좋은 신학교육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현재 캄보디아에 있는 신학교들의 현황을 알아보고 그 문제점들을 진단해 본 후에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에 대하여 논의 하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II. 본론

1. 캄보디아 신학교육의 역사

캄보디아 최초의 성경학교는 1925년 9월에 데이빗 엘리슨(David W. Ellison) 선교사에 의해 개교된 바 탐방 성경학교이다. 1923년 1월에 캄보디아 최초의 선교사인 아더 하몬드(Arthur L.Hammond) 선교사가 들어온지 불과 2년이 되던 해에 성경학교를 시작하게 된 것은 당시 C&MA 선교회(Christian & Missionary Alliance) 인도차이나 책임자로 있었던 제프리(R.A.Jaffrey) 선교사의 영향이 컸는데, 그는 성경학교를 통해서

3) 랄프 윈터, “네 사람, 세 시대, 두 전환기: 현대선교” 『Mission Perspectives』, 정육배 역, 예수전도단 p218-219

양성되는 현지인 사역자들이 복음전도의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⁴⁾ 바탐방 성경학교는 안수목사(ordained pastor)를 양성하기보다는 평신도 설교자를 양성하는 것이었다. 수 업도 정규과정이지 아닌 1년에 2회(1회에 6주) 집중 수업을 하였다. 그 당시 성경번역이 이루어지지 않았 기에 첫 졸업생은 1947년 12월에 이루어졌다. 세계 제2차 대전으로 인해 캄보디아 북부가 태국으로 편입 되면서 1948년에 바탐방 성경학교는 프놈펜 근처인 따끄마으로 이전하였다.⁵⁾ 따끄마으로 이전한 성경학교 는 1959년에 4명, 1960년에 6명, 1961년에 12명, 1962년에 16명의 학생들이 수학하며⁶⁾ 캄보디아 교회의 지도자들을 양성하였으나 3년 9개월동안의 크메르 루즈(Khmer Rouge)기간을 거치면서 공부를 마친 40의 학생중에 4명을 제외하고 모두 순교를 당하였다.⁷⁾

1991년 10월 23일 파리평화협정에 의해 캄보디아는 유엔평화유지군(UNTAC)의 통치하에 들어가면서 점차 안정을 찾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외국선교사들이 캄보디아에 파송되어 들어오면서 성경학교 사역도 다시 시작되게 되었다.

1992년 3월 16일, 다니엘 이-와 램(Daniel Yee-Wah Lam) 선교사에 의해 프놈펜 신학교(Phnom Penh Bible School)가 개교하였고, 1994년에는 하나님의 성회(Assembly of God) 교단에서 캄보디아 성 경학원

4) 주캄한인선교사회, 「캄보디아 선교역사」 서울:도서출판 침탐, 2013, p53

5) 위의 책, p56

6) 장완익, 「100 Years of Khmer Mission」, 프놈펜:Institute for Cambodia Church History, 2020, p58

7) 위의 책, p77

(Cambodia Bible Institute)을 개교하였다. 1997년 11월 16일에 송진 섭 선교사에 의해 캄보디아 감리교 성경학교(Cambodia Methodist Bible School)가 2년제 성경학교로 시작되었다가 2000년 10월에 종교 부인가 3년제 신학교로 등록되었다. 1999년도에 성서침례교 신학교가 개교하여 김조동 선교사가 사 역자로 합류하였고, 2001년 성결교단으로부터 신학교 허가를 받은 홍철원 선교사가 성결교 신학교를 시작 하였다.⁸⁾ 2003년 7월 9일에 7개 장로교단(합동, 통합, 고신, 고려, 대신, 개혁, 합신) 23명의 선교사가 캄 보디아장로교공의회를 세웠고, 2004년 10월 5일에 캄보디아 장로교회 목회자 양성을 위하여 캄보디아 장 로교신학교 가 개교하였다.⁹⁾ 웨스터민스터 신학대학이 2011년에, 2006년에 시아누 크빌에 라이프대학 신학 과가 세워지고, 바탐방신학교, 시소폰 신학교, 시 엠립 신학교 등 캄보디아 주요도시에 신학교들이 세워졌다.

2. 신학교육의 현황

1) 설립목적/ 비전

신학교들의 설립목적과 비전은 일차적으로 목회자를 양성하는 데에 있다. 초기 교회개척을 통해 세워진 현지교회를 섬길 수 있는 현지목회자의 필요성에 따라 초창기 신학교들은 목회자 양성에 초점을 맞추어 신학교육을 실시하였다.

8) 주캄한인선교사회, 「캄보디아 선교역사」 p216-217

9) 위의 책, p238

프놈펜 신학교의 비전은 “위대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캄보디아 교회에 건전한 기독교 인성과 능력을 갖춘 지도자들을 제공하기 위하기 위한 미션을 가지고 있다. 교회를 섬길 수 있고, 효과적으로 성경을 가르칠 수 있으며, 말과 행동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의 리더들을 양육하는 것이 프놈펜 신학교의 미션이다.¹⁰⁾ 캄보디아 감리교신학교의 비전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캄보디아 장로교신학교는 설립목표를 학칙에 명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보수적 개혁주의에 입각하여 국가와 사회 및 세계 발전에 기여할 기독교 인 재양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어서 교육목표를 “캄보디아에 있는 장로교회를 섬길 목사와 선교사를 양성하는 것이다.”라고 명시하였다.¹¹⁾

그 외의 신학교들도 신학교 설립목적이나 비전은 대동소이하리라 생각한다. 대부분의 신학교의 비전은 캄보디아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길러내는 것이다. 영성과 지성과 실천력을 갖춘 목회자들이 교회와 사회에서 영적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각 신학교들의 목표이다.

2) 커리큘럼

신학교의 학문을 크게 이론신학과 실천신학으로 구분한다. 이론신학은 조직신학, 역사신학, 성서신학으로 세분화되며 실천신학은 설교학, 예배

10) PhnomPenh bible school Homepage. <https://www.ppbs.edu.kr>

11) 김재규, 『함께 온 열두 발자국』, 프놈펜: 캄보디아 장로교신학대학교, 2016, p72

학, 상담학, 선교학(전도학)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외에 기독교교 육과 기독교윤리도 신학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각 신학교의 커리큘럼은 성서신학 과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성경을 모세오경, 역사서, 대예언서, 소예언서, 지혜문학, 복음서, 사도행전과 바울서신, 일반서신, 목시문학 등으로 세분화하여 학생들이 깊이 공부하도록 하고 있다. 각 신학교마다 성경과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예를 들어 캄 감신의 경우 4년동안 이수해야 할 142학점 중에 성서신학과 관련된 과목이 50학점에 이르렀다. 프놈펜 신 학교도 4년 이수학점 150학점 중에 51학점이 성경관련 과목이다. 캄장신의 경우 학부 1,2학년때는 성경읽 기 과목을 통하여 신학생들이 성경을 차근차근 다시 읽으며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캄보디아 신학교에 입학하는 대부분의 신학생들의 성경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조직신학 분야에서는 조직신학, 종말론, 아시아신학, 기독교변증론 등의 과목이 있고, 역사신학 분야는 기독교 교리사, 교회사, 아시아교회사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다. 실천신학 분야의 과목으로는 설교학과 예 배학, 전도학, 목회상담, 선교와 교회성장, 교회행정 등이 있고, 이외에 기독교교육, 기독교윤리와 교양과 목으로 철학사, 세계종교사 등을 가르치고 있다.

3) 교육방법

캄감신이나 프놈펜 성경학교의 경우 1년에 2학기제로 운영이 되고 있으나 캄장신의 경우 1년 3학기제 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신학교가

1년에 30주 이상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한 과목을 수료하기 위해 15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학점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15시간의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3학점 한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45시간의 수업시간이 필요하다.

각 신학교들은 매주 수업을 하고 있다. 다만, 해외 초청 교수들로 인해 몇 과목들은 집중수업(인텐시브)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해외 교수들에 의존적인 몇몇 신학교들은 대부분의 수업을 집중수업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후에 줌(zoom)을 통한 강의가 일반화되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교수의 강의도 인텐시브 대신에 매주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¹²⁾

4) 학생

(1) 입학학생들의 자격

각 신학교들의 입시공고를 보면 신학사(Bachelor of Theology) 전공을 위해서는 12학년을 졸업하고 졸업시험을 합격한 학생들을 받고 있다. 신학사 과정이 아닌 교단인정 학력과정(Diploma of Theology)을 위해서는 10학년 이상을 수학한 학생들을 선발한다. 캄장신의 경우 목회학석사

12) 2021-2022학년도 캄감신은 3과목이 해외교수에 의해서 zoom을 통해 매주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Master of Divinity)과정과 신학석사(Master of Theology)과정이 있으며 정규대학 졸업자들을 받고 있다. 신앙적으로는 교회를 다닌 지 2년 이상이 되고, 세례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캄감신의 경우 지원학생의 소명감과 간증이 입학시험 이 후 면접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쓰이고 있다.

(2) 학생들의 입학/졸업비율

입학한 학생들이 졸업하는 비율은 감신의 경우 2,000년 이후에 192명이 입학하여 158명이 졸업하여 졸업율이 82% 정도가 된다. 중도탈락은 34명으로 약 18%이다. 캄장신의 경우에는 2004년 개교부터 2019년까지 729명이 입학하여 316명이 졸업하였는데, 입학생중에서 재학중인 학생 198명을 제외할 때, 입학후 중도탈락한 학생은 215명이다. 따라서, 졸업율은 60% 정도가 되며, 중도탈락율은 40%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입학한 학생들이 졸업을 하지 못하고 중도탈락하는 이유에 대하여 캄장신 윤계민 학장은 개인 적으로 학습능력이 준비되지 못하여 신학교육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이거나 후원이 부족하여 학업과 사역 그리고 가정을 돌보기에 부족하여 경제적인 이유로 중도탈락을 한다고 하였다. 또한, 학업도중 후원하는 목회자나 선교사와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개인이나 가정의 질병, 사건 사고 등의 문제와 소명감의 부족, 원거리 통학생들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¹³⁾

13) 윤계민, “캄보디아에서의 지속 가능한 신학교육 방안”, 「인도차이나 연구: 맥도사역백서 제4호」, GMS 메콩개발기구, 2020, p90-91

(3) 졸업 후 진로

졸업 후 대부분이 교회의 목회자로 사역을 한다. 일부는 기독교 엔지오 (Christian N.G.O)의 직원으로도 일한다. 일반 직장을 갖고 일하는 사람도 있으며, 졸업후 처음에는 목회를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목회 를 그만두는 경우도 있다.

캄감신의 경우 1999년 1회 졸업생부터 2021년까지의 졸업생 약 180여명 중에 감리교단과 타교단 기타 독립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졸업생이 약 110여명 정도이다. 캄장신이나 프놈펜 신학교, 캄보디아 성경학 원, 웨스터민스터 신학교, 라이프대학 신학과 등의 졸업생들이 목회자로 사역하는 비율은 각 신학교와 각 교단의 협조를 통해 파악해 볼 만한 사항이다.

(4) 영성훈련 상황

캄감신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8시에 예배가 있다.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매 일 새벽기도와 일주일에 2회 저녁기도회가 있다. 캄장신은 일주일에 두 번 채플이 있으며 일주일에 1회 저녁 집회가 있고, 학생들의 자체기도모임이 있다.

캄감신은 현재 재학생 21명중에 18명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다. 각 신학교 신학생들의 기숙사 거주 학생비율은 대략 80%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신학생들이 수학기간 동안 제대로 된 영성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캄장신은 월요일 오후 수업시작 전에 채플이 있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이 끝나면 전교생 기도 회가 있다.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매일 밤 9시에 기도회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매일 새벽기도회로 하루를 시작한다. 특히 코로나 전까지 매주 화요일 밤 찬양기도회가 활성화되었고 주변 현지교회들도 함께 참여하여 200여명에 이르기도 하였다.

5) 교수현황

각 신학교의 신학석사(Master of Theology) 이상의 학위를 지닌 전임교수들이 몇 명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전임교수들이 자신의 전공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또한, 중요한 과목 들이 그 분야를 전공한 교수에 의해 강의되고 있는지 하는 것은 신학교육에 있어서 중요하다. 물론 학부 기초과목들은 전공한 분야가 아니어도 신학석사 이상의 학위자는 얼마든지 강의를 가능하며, 목회학석사 (M-Div) 출신 강사들도 학부수업은 가능하다. 하지만, 학생들의 다양한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나 강의 의 깊이를 위해서는 전공분야를 연구한 교수가 강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지교수들은 몇 명이고 학위는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캄보디아에 소재한 현지신학교의 미래를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 캄장신의 경우 강의를 하는 교수 중에 캄보디아 거주 선교사가 9명, 외국거주 교수가 7명, 현지인 교수가 2명이다. 캄보디아 거주 선교사 중 신학석사 이상 학위자가 4명이며, 목회학석사가 5명, 외국거주 교수는 대부분 신학박사(Ph.D)이며 영어로 강의를 하고 통역을 한다. 현지인 교수는 각각 목회학

석사와 신학사이다. 캄장신의 경우에는 두터운 교수진을 두고 있다. 학과장과 처장(Dean) 및 보직을 담당하는 풀타임 교수진만 12명에 달하고, 10여명의 교수진 이외에도 60여명의 강사진이 함께 협력을 하고 있다. 전임교수진에는 두 명의 캄보디아 교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국 선교사들이지만 강사진에는 약 20여명의 현지인 강사들이 강의를 하고 있다.

6) 도서관 현황

캄장신의 도서관에는 6,000여권의 책이 있다. 그 중에 크메르어 책은 200권이 채 되지 않으며 나머지는 모두 영어원서이다. 지금까지 캄장신에서 번역한 책은 교재를 포함하여 10여권이며, 20여권의 캄보디아 교재들을 발간하였다. 아직 전자도서관은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전자도서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책들이 대부분 영어원서이어서 아직까지 학생들의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캄장신의 도서관에는 9,000권의 영어원서와 1,000권의 크메르어 책들이 있다. 이미 2만 여권의 책을 비치할 도서관을 준비하였고, 앞으로 더 많은 크메르어 도서들을 준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외에도 각 신학교들마다 도서들을 준비하고 있고, 특히 번역한 책과 교재들이 수집권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3. 신학교육의 문제점들

1) 현지 교수진의 부재

현지 캄보디아인 교수의 부족이 캄보디아 신학교의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한다. 선교사들이 강의를 하 지만 크마에로 강의하기에 강의 내용을 완벽하게 전달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영어로 강의를 하면 통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통역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또한 강의 내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준비된 현지 교수진에 의해 강의를 된다면 무엇보다 현지인의 언어와 감성으로 강의를 할 수 있기에 신학생들에게 더 깊고 더 정확하게 강의 내용들이 전달될 수 있다.

2) 전공교수의 부족

신학교의 일부 교수님들은 철학박사나 신학박사로서 전공한 분야를 가르친다. 전공한 과목이다 보니 양질의 강의를 하게 된다. 하지만, 그 외 대다수 교수들은 신학석사(Th.M)나 목회학석사(M.Div) 출신이기에 전공하지 않은 과목을 가르치기에 강의의 깊이가 다르다. 이런 현상은 강사 수준이 잘되지 않고, 그 과목은 가르쳐야 하니 선교사들이 급하게 준비하여 가르치기 때문이다.

3) 준비되지 않은 학생들 : 중도탈락 비율 높음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소명감이 철저하지 않은 학생들을 걸러내야 한다.

신학교 인원을 늘리기 위해 신 양경력이 너무 낮거나 소명감이 확실하지 않은 학생들을 받으면 중도탈락의 확률이 높아진다. 물론, 입학 후에 신앙 훈련을 통해 소명감을 발견하도록 할 수도 있지만 그런 학생이 정착할 비율은 그리 높지 않다. 캄감신의 경우 중도탈락 비율이 낮은 것은 선발과정에서 소명감이 확실하지 않은 학생들을 바로 선발하지 않기 때문이다.¹⁴⁾ 하지만 수준이하의 신입생을 선발하는 이유는 신학교의 운영을 위해 많은 신학생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또한, 외부에 많은 신학생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이유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4) 캄보디아 신학서적 부족

캄보디아어 신학서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신학교마다 강의할 내용을 정리한 책자들을 만들어 내기 도 하지만 각 과목에 필요한 필수도서들이 캄보디아어로 번역되어 있지 않다. 각 신학교의 도서관에 영어 로 된 신학서적들은 넘쳐나지만 문제는 신학생들이 원서를 읽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지혜의 샘 출판사에서 계속 번역을 해나가고 있지만 각 신학교에서도 번역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

5) 신학용어 정리

캄보디아에서 사용하는 기독교 신학용어를 통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각 신학교별로 신학용어를 각기 다르게 번역하여 강의를 하거나 교재를

14) 캄감신 2000년 이후 지원자는 총 375명이고, 그 중 합격자는 192명이다. 합격률이 51%이며 경쟁률은 1.9:1 정도이다.

만들어 낸다면 나중에 목회현장에서 신학교를 졸업한 현목회자들 사이에 큰 혼란과 이로 인한 갈등이 올 것이다. 이미 그 신학용어 정리의 필요성을 알고 캄장신에서 신학 용어사전을 만들기 위해 작업을 해 오고 있다.¹⁵⁾ 사실 이 일은 현지 기독교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 선교사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어 내면 나중에 현지 지도자들이 사용하지 않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현지 기독교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신학용어를 번역하여 통일해야 한다.

4. 자신학화를 위한 신학교육의 나아갈 길

캄보디아 한인 선교사회는 현지 목회자로의 지도력 이양과 현지교회의 자립 방안을 위해 여러 연구들을 진행한바 있다. 소위 네이우스(John L. Nevius) 선교정책이라는 ‘자전’(self-propagation), ‘자립’(self-supporting), ‘자치’(self-governing)가 캄보디아 교회에도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폴 히버트(Paul Hiebert)가 말한 자신학화(Self theologizing)의 개념에 대해서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1) 캄보디아 신학자에 의한 캄보디아 신학형성

캄보디아인 신학자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해외 유학을 통해 학위를 취

5) 캄장신 권효상 교수의 주도하에 2019년 12월 17일 신학용어번역을 위한 모임을 가졌고, 그 이후 썩미은 목사, 김 정호 목사, 표명대 목사, 살리 나렛(캄장신 통역)이 몇차례 모임을 통해 번역 작업을 하였으나 코로나 사태이후 잠정 중단되었다.

득하여 전공분야를 연구할 수 있는 전임교수들이 세워져야 한다. 이러한 캄보디아인 신학자를 통해서 서구신학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캄보디아의 상황에 맞는 신학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신학교 전공교수들의 학회 결성

각 신학교의 교수들이 자신이 연구하는 전공분야학회를 결성하고,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토의하는 일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문의 발달과 더불어 교수 연구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해외의 신학교처럼 구약 학회, 신약 학회, 조직신학 학회, 역사신학 학회, 목회상담 학회 등등 교수들이 학회를 중심으로 연구에 열심을 낸다면 학회를 통해 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3) 아시아신학교협의회(ATA: Asia Theological Association) 또는 동남아시아신학교협의회(ATESEA: Association for Theological Education in South East Asia), 인준(Accreditation) 신학교로 발전

신학교협회를 통해 신학교가 인준을 받는다는 것은 그 신학교가 정식 신학교로서의 수준을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 인준받은 신학교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해외의 신학교에서 유학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진다. 인준절차조건의 핵심인 현지교수요원 양성에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그 목표를 향해 계속 달려나가야만 신학교의 수준이 계속 발전할 수 있게 된다.

4) 학문과 영성과 실천의 균형을 갖춘 신학교육

캄보디아 신학교들은 신학생들의 지적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기에 학문으로서의 신학보다는 영성과 실천 위주의 신학교육을 시켜왔다. 신학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소양을 길러주기보다는 졸업후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주의적인 학문들을 가르치는 데에 집중하지 않았나 싶다. 교회를 성장시키는 방법이나 노하우 또는 성도들을 은혜받게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 등에 관심을 더 가지지 않았나 생각한다. 한국의 신학교들이 학문위주로 치우친 것과는 반대의 모습이다.

그러나, 캄보디아의 중,고등학교 교육 시스템이 조금씩 나이지면서 보다 양질의 신학생들이 신학교에 입학 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이제는 세계의 역사와 사상의 흐름을 이해하고, 인간의 심리적 문제도 파악할 수 있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기독교 사상사 속에서 폭넓게 이해함으로 오늘날 캄보디아 상황에 적합한 신학을 할 수 있는 신학자들을 키워내는 것이 중요하다.

III. 결론

최근 백석교단을 중심으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외침이 일어나고 있다. 그 의미는 신학을 학문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신학은 학문만이 아니라 학문 그 이상이라는 것일 것이다. 신학교육에 있어서 학문적

탐구와 영성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말이다.

캄보디아의 신학교들은 영성훈련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고, 학문적인 면에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위의 글에서 지적한 캄보디아 신학교들의 문제점들을 조금씩 보완해 나간다면 캄보디아 교회들을 이끌어갈 학문과 영성과 실천을 겸비한 좋은 목회자들이 많이 배출되리라 믿는다. 그 목회자들을 통해 부흥할 캄보디아 교회들과 캄보디아 전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실 날을 기대해 본다.

캄보디아 신학교육의 현황과 진단 그리고 미래과제들

조봉기 선교사 (캄장신 교목)

<서론>

하루이틀의 짧은 시간 속에서 따로 자료를 찾고, 정리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해서 표명대 선교사님의 여섯쪽 발제 소논문 만을 교과서로 했습니다.

비록 소논문이지만, 풍성한 내용, 때론 날카로운 지적을 곁들이셨기에, 함께 신학교육에 몸 담고 있는 필자(논찬자)를 두드리고 깨우기에 충분한 발제였습니다. 논문을 쓰기위해 발품을 팔며, 땀흘려 수고하셨던 발제자 표선교사님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와 치하를 표합니다.

소논문의 곳곳에 숨겨져 있는 보석같은 명제들을 찾아내면서 큰 희열을 느꼈습니다. 때론 큰 공감으로 때론 약간의 이견과 함께 많은 것을 깨달으면서 여러 번 읽었습니다.

아래는 그 명제 중 열 곳을 따로 인용하면서, 약간의 설명을 곁들여서 혹은 공감, 혹은 이견을 적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I. “좋은 목회자는 결국 좋은 신학교육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첫쪽, 서론중에서)

1. 신학교육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우쳐 주는 귀한 명제이다.
2. 동시에 신학교교수직으로 선교사역을 삼게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II. “...3년 9개월 동안 크메르루즈 기간을 거치면서 공부를 마친 40 명의 학생 중에 4명을 제외하고 모두 순교를 당하였다”

(첫쪽, 캄보디아 신학교육의 역사)¹

1. 캄보디아 초장기 선교사들은 선교에 대 성공을 거두었음을 알 수 있다. 졸업생 주의 중 중 90 %가 순교의 피를 흘려 이 땅의 생명의 씨앗을 뿌렸으니 말이다.

물론 이 외에도, 수 많은 평신도들이 교회 가다가, 성경책 소지했다고, 이웃의 고발로 체포되어 순교했을테니 그 수효가 얼마였을까?

2. 그들은 이 땅의 생명을 위해 뿌려진 씨앗들이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히 11:4)

장완익, <100 Years of Khmer Mission>, 프놈펜: Institute for Cambodia Church History, 2020, p 77. 재인용

III. “프놈펜 신학교, 캄보디아 성경학원, 캄감신, 성서침례교신학교, 성결교신학교, 캄장신, 웨스터민스터 신학교, 라이프대학 신학과, 바탐방 신학교, 시소폰신학교, 씨엠립신학교 등 캄보디아 주요 도시에 신학교들이 세워졌다.” (제 2쪽, 캄보디아 신학교육의 역사).

1. 총 11 개의 신학교가 세워졌으며, 한 두 곳을 제외하고, 큰 어려움 없이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그 존재가 있으니, 이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닌가!

2. 이웃나라, 베트남, 타이, 라오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공산주의 및 무슬림 나라에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종교자유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IV. “영성과 지성과 실천력을 갖춘 목회자들이 교회와 사회에서 영적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훈련 시키는 것이 각 신학교의 목표이다.”

(제 2쪽, 신학교육의 현황, 설립목적/ 비전)

1. 필자의 캄보디아 사역 18년 (캄장신학교 사역) 내내 위의 명제를 추구했다고 할 수 있다.

1) 영성이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 영에 속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신/ 성도의 자질, 인품, 지성, 하나님 말씀 및 경건생활의 총체를 말한다.

2) 그러므로, 영성과 지성과 실천력, 이 셋 모두가 큰 개념의 “영성” 안에 포함되어 있다 할 수 있다.

3) 이 세 개념의 한 복판에는 지성이 버티고 있다. 만약 이 지성에 영성이 없으면, 우리가 말하는 영적지성이 아니기에 무익하다.

(바울은 이를 “세상의 초등학문”이라 했다, 골 2:8)

4) 영성이 없는 실천력은 세상종교에 혼한 도덕에 불과하다.

5) 영성은 있는 것 같은데, 지성과 실천력이 약하면, 이단으로 빠질 위험이 있다.

V. “캄장신의 경우 학부 1,2 학년 때는 성경읽기 과목을 통하여 신학생들이 성경을 차근차근 다시 읽으며 이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캄보디아 신학교에 입학하는 대부분의 신학생들의 성경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제2쪽, 커리큘럼, 최하단)

1. 위의 결정은 캄장신에서 7,8년 전에 내렸다. 특히 1 학년 1년 동안, 한 주에 90분짜리 수업 두 번 씩, 3학기를 마쳐야 하며, 신약과 구약을 따로 가르친다.

2. 필자는 구약부분을 맡아 가르친다. 물론 구약 뿐 아니라, 성경 전체, 말씀체계를 깊이 있게 가르쳐 주는 시간이다.

3. 1학년 입학생 중에는 20~30%가 아직 불신자에 가깝다. 성경이 무엇인지, 무엇을 믿는 것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흐릿하게 안다. 이 상태로 2,3,4학년에 가서 이런저런 과목을 배워도 그 뜻을 정확히 모른 채 졸업을 하면, 졸업장 받는 것에 만족한다.

4. 어제 이 번 학기에 입학하는 한 나이든 학생이 와서, 이런저런 이유로, 2학년부터 공부하게 되었다. 1년을 줄여서 졸업하려는 의도였다. 본인은 단호히 충고해 주었다. “차라리 3학년 1년을 건너 뛰도록 하라…” 왜냐하면, 그만큼 성경말씀에 기초지식이 견고하여, 진리를 확실히 알고 진급 및 졸업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VI. “실천신학 분야의 과목으로는……전도학…”

1. 전도는 수영과 같다. 실내에서 아무리 머리로 공부를 해도, 수영장에 가면 가라 앉는다. 전도도 나가지 않으면, 전도를 배우지 못한다. 신학교에서 전도를 배워서 전도자로 세상에 나가야 한다.

2. 예수님은 3년 동안 열 두 제자를 매일 밖으로 인도하여 나가셨다. 주님께서 전도하시는 모습을 직접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다. 물론 나중에 사도들은 모두가 전도자, 선교사가 되었다.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3. 학기가 시작하면, 매 화요일 아침 식사 이전, 수 많은 공장직공들이 출근하는 학교 앞 대로변으로 학생들을 인솔하여 나간다. 찬양도 하고, 외

치기도 하고, 전도지도 나눈다. 학교에는 전도지 수 만 장이 언제나 비치되어 학생들이 쓰도록 했다.

4. 성령님은 이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오셨다 (요 15:26).

VII. “캄장신의 경우 목회학석사 (M Div) 과정과 신학석사 (Th M) 과정이 있으며, 정규대학 졸업자들을 받고 있다”

(제 3 쪽, 학생/ 입학생들의 자격)

1. Th M 졸업생 한 명은, 우리 학교의 정교수가 되었고, 올 해 현지인으로는 첫 노회장으로 선출 되었다.

2. Th M 재학생들 7,8 명은 거의 강사로서 가르치며, 강사료를 받고 있다.

VIII. “캄장신은 일주일에 두 번 채플이 있으며...학생들의 자체 기도모임이 있다” (제 3쪽, 학생/영성훈련상황, 최하단)

1. 위의 보고는 코로나 이전의 영성훈련이다.

2. 현재는 매일(월 -목) 자체 새벽기도와 낮, 11:30에, 학교에 거의 상주하는 Th M 학생들, 및 직원들, 그리고 zoom 을 통하여 예배를 드린다. 학기가 시작이 되면 밤 9시로 변경할 예정이다.

3. 예배의 중요성: 좌우만 보면서 사는 보통사람들. 예배가 시작이 되면서 “하늘의 통로가 열린다. 모두가 하늘을 바라본다.” 하늘에서는 말씀과 은혜와 깨달음과 축복이 쏟아져 내려온다. 예배 끝에는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다. 간구와 감사와 찬양을... 매일 예배가 중요한 이유이다.

IX. “준비된 현지 교수진에 의해 강의가 된다면 무엇보다도 현지인의 언어와 감성으로 강의를 할 수 있기에 신학생들에게 더 깊고 더 정확하게 강의 내용들이 전달 될 수 있다.”

(제 4쪽, 신학교육의 문제점들/ 현지 교수진의 부재)

1. 상당히 수공이 가는 부분이다.

2. 하지만, 조금은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 즉, 현지인 강사의 영성수준에 관한 부분이다. 언어가 상당히 중요하지만, 언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언어가 좀 부족해도, 영성이 있는 강사가 학생들에게 더 큰 영향을 준다. 언어가 있어도, 영성이 약하면, 학생들이 줄게 되고, 줄면 모든 것이 무의하다.

X. “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신학은 학문만이 아니라, 학문 그 이상이 라는 것일 것이다…캄보디아 교회를 이끌어 갈 학문과 영성과 실천을 겸비한 좋은 목회자들이 많이 배출 되리라 믿는다.” (제 6 쪽, 결론)

1. 매우 유효하고 시의 적절한 명제이며 또한 훌륭한 결론이다.

2. 다시 한 번, 수고를 많이 하시고, 많이 가르쳐주신 캄감신 학생처장 표명대 선교사님께 심심한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논찬자의 결론> 은퇴 교수가 동료 교수님들에게 조심스럽게 드리는 제언

1) 많은 기도생활과 지속적인 성령충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성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0세 성령을 받기까지 사역을 하지 않으셨으며,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고, 성령을 받아 능력을 받은 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행1:4-8)

2) 거룩한 삶의 모본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있는 세속적인 삶은, 주로 돈문제와 이성 문제입니다. 교수님들이 거룩한 부부생활, 가정 생활을 잘 한다면, 이성 문제 본이 되는 데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하지만, 교수님들은 학생들이 물질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삶의 본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학생들에게 물질을 이기는 삶을 가르쳐 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안됩니다. 늘 나누기를 좋아하는 물질생활을….

3) 기도생활, 전도생활, 말씀연구, 성령충만, 거룩한 사랑의 삶의 본을 보이는 것이 최대의 교육이라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우리의 본을 보아 변화가 된다면, 그들은 온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훌륭한 사역자들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물론 여러 학생들에게서 그런 가능성을 이미 확인한 바가 있기도 합니다.

4) 논찬자의 눈에 비쳐진 캄보디아 선교의 장래는 밝고 희망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한국 선교사들을 캄보디아에 보내어 수 많은 교회, 일반학교, 그리고 신학교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신학교에서 훌륭한 주의 종들을 배출하여 캄보디아 복음화에 일조를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우리가 맡은 신학교사역은 하나님 세계선교사역의 한 부분을 감당하는 큰 사건 중 하나임을 확신하면서 논찬을 맺습니다. 감사합니다.

캄보디아 신학교육의 현황과 진단 그리고 미래과제들

김동구 선교사

감리교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교수사역을 감당해 오신 귀한 표명대선교사의 발제를 신학교의 틀 안에 잠깐 있었던 경험만 있는 본 선교사가 논찬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질문이 먼저 든다. 그러나 그 후 꽤 오랫동안 신학교의 틀 바깥에서 신학교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기대와 아쉬움을 본 논찬자가 나름 느낀 것을 귀한 발제에 대한 논찬을 통해 함께 나누다면, 선교사들 안에서 캄보디아 신학교육에 대한 좀 더 많은 관심과 공감대를 일으키는 데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소망 가운데 본 논찬자는 용기를 내어본다. 그래서 본 논찬자는 발제자의 의도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발제자가 제시하는 각 부분별로 좀 더 발전된 논의와 협의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질의와 의견 혹은 비평과 평가를 개진하는 식으로 본 논찬을 진행하려고 한다.

표명대 선교사는 캄보디아 신학교육의 현황과 진단 그리고 미래 과제들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 발제를 통해 신학교육을 목회자 양성으로 보고, 목회자의 양성이 앞으로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을 새롭게 시행되는 종교법을 제시함으로써 논지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공감하게 해 주고 있다. 이어 발제자는 먼저 세 꼭지로 나누어 캄보디아 신학교육의 현황을 진단한다. 발제자는 첫째 꼭지에서 캄보디아 신학교육의 역사를 간략히 정리한다. 1925년 데이빗 엘리슨에 의해 시작된 바탐방 성경학교를 필두로 무려 70년 지나서 다니엘이 와람 선교사에 의해 세워진 프놈펜 신학교, 1994년 캄보디아 성경

학원, 1997년 송진섭 선교사에 의해 시작된 캄보디아 감리교 성경학교, 2001년 홍철원 선교사가 시작한 성결교 신학교, 2003년 7월 9일에 장로교 단 23명의 선교사가 장로교 공의회를 세우고, 2004년 10월 5일에 시작된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 그 외의 지방에서 시작된 신학교 혹은 신학교의 분교들의 역사를 차례로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각 신학교들이 신학교육의 어떤 부분과 어떤 목적을 위해 시작된 배경이나 신학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동기들에 대한 분석이 앞으로 더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둘째 꼭지에서 현재 신학교육의 현황을 다룬다. 현재 신학교육의 현황을 발제자는 크게 신학교의 설립목적과 비전, 커리큘럼, 교육방법, 학생, 교수현황, 도서관 현황으로 6가지의 분야로 나누어 살피고 있다. 먼저, 신학교의 설립목적과 비전이다. 이 부분은 각 신학교가 지향하는 방향과 발제자가 현황진단으로 선택한 6가지 분야를 측량하는 다림줄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이다. 우리는 발제자의 수고로 각각의 신학교의 설립목적과 비전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발제자가 언급한 대로 각 신학교의 목적과 비전이 그렇게 차이가 없고 결국 캄보디아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길러내는 것이라는 것에 공감을 할 수 있다.

둘째, 각 신학교의 커리큘럼을 열거한다. 발제자가 각 신학교의 커리큘럼을 나열하는 부분에서 각 신학교마다 시행하고 있는 1-4 년까지의 커리큘럼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보여주었다더라면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과 더불어 각 신학교가 시행하고 있는 커리큘럼이 각 신학교의 설립목적과 비전에 어떻게 상응되고 있는지 분석도 좀 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셋째, 교육방법을 진단한다. 각 신학교의 교육방법을 한 눈에 알게 해 주어도움이 된다. 교육방법은 커리큘럼과 상응해야 한다. 각 신학교의 교육방법이 커리큘럼과 어떻게 상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발제자의 분석과 의견이 있었다면, 다음 단계에 제시될 문제해결에 대한 발제자의 제안에 더 큰 기대를 가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넷째, 신학생들을 진단한다. 신학생들을 진단하는 것은 현재의 신학교육에 대한 진단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발제자가 언급한 것처럼 신학교를 진학하는 학생들의 자격이나 입학졸업비율 그리고 졸업 후 진로 등을 보면, 현재의 신학교육이 상당부분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공감할 수 있다. 또한 이 사실을 통해 발제자는 캄보디아 선교 30주년을 맞고 있는 한인 선교사들에게 신학교육이 선교 30주년 포럼에 다루어져야 할 만한 큰 주제라는 것에 공감하고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인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해 주고 있다.

다음으로 발제자는 각 신학교의 교수현황을 진단한다. 발제자는 교수현황을 살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캄보디아에 소재한 현지신학교의 미래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요한 부분을 주장함에 있어 발제자는 충분한 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본 논찬자는 각 신학교 안에서 학위와 교수과목이 일치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의 유의미한 차이, 또한 학위가 없는 현장 선교사와 교수 선교사의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현장 사역에 미치는 유의미한 차이가 실증적 연구를 통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발제자는 각 신학교의 도서관 현황을 진단한다. 하지만 각 신학분야별로 장서가 어느 정도 구비되어 있고, 어느 신학자의 책이 주로 사용되고 대출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없는 것도 아쉽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지면, 캄보디아 내에서 목회자들이 갖게 될 신학적인 관점에 대한 선교사들의 이해도가 더 깊어지고, 신학적인 대화도 가능할 것이다. 세 번째 꼭지로 표명대 선교사는 현황을 진단한 후 현재 신학교육의 문제점들을 열거한다. 현지 교수진의 부족, 전공교수의 부족, 준비되지 않는 학생들, 캄보디아 신학서적 부족, 신학 용어정리와 같은 5가지의 문제점들을 열거한다. 선교사들이 거의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거시적인 문제가 현재 선교사들과 현지교회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혹은 신학교육에 대한 한국중심적 신학교육이해에서 비롯된 현황진단으로 말미암은 문제인식 때문은 아닌가? 라는 반문이 제기된다.

그래서 본 논찬자는 신학교의 틀 바깥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의 입장에서 신학교 교수들에게 각 교수들이 생각하는 캄보디아 신학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다. 일반적으로 서구식 신학교육은 다양한 신학자들을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신학적 관점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비평하는 능력을 갖게 하는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제자가 제시한 것이 신학교육에 있어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캄보디아 신학교육은 이런 능력을 갖추게 하는 데 있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비록 이 질문에 십분 동의한다 하더라도 이런 능력을 갖게 하는 데 있어 신학생들의 수학능력과 준비가 터무니 없이 부족하고 교수들의 역량 또한 부족하

다는 것이 발제자의 분석결과이다. 그러므로 본 논찬자는 발제자가 제시한 신학교육의 현 문제점들을 신학교육이 캄보디아에서 서구식 신학교육을 지향함으로 발생하는 필연적인 문제 점들로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표명대 선교사는 신학교육의 문제점들에서 그 근본적인 원인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마지막 장에서 자신학화를 언급함으로써 캄보디아에서 서구식 신학교육의 근본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신학화는 폴 히버트¹⁾가 제안한 것으로 상황화를 넘어 신학의 상황화까지 이루어질 때 온전한 자립과 토착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자신학화에 대한 논의는 한국선교학회 안에서도 거의 최근에야 제기되고 논의되고 있는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²⁾ 이 런 이슈를 금 번의 발제를 통해 제시해 보인 것은 발제자가 현지신학교의 교수 경험을 통해 현 신학교육이 안고 있는 현실적 장벽을 느꼈고 느끼고 있음을 충분히 짐작하게 한다. 아무튼 발제자는 자신학화를 위한 4가지의 길을 제시한다. 발제자는 이 자신학화가 현지의 신학자의 양성에서 비롯된다고 먼저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은 한국에서 수많은 한국인 신 학자가 배출되었고 수많은 우수한 신학교가 있지만, 진정 자신학화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반론에 부딪힐 위

1) 폴 히버트는 자신학화가 토착교회 자립요건으로 알려진 '3자'(자치, 자급, 자전)에 추가돼야 할 '제4 자'(The Forth Self라고 말했다) Paul G. Hiebert, *Anthropological Insights for Missionaries* (Grand Rapids: Baker, 1985), 216

2) 한국 교회의 자신학화 논의는 2012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동안 한국 복음주의 선교계의 선교학 연구사에서 집단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나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시기로 평가된다. 그 이후 간헐적으로 자신학화 논의가 등장했다. 그러다 2020년에 '자신학화 포럼'이라는 이름의 '반추하는 실천가들의 모임'이 탄생하면서, 정기적으로 생산적인 토 론과 대화가 가능한 장이 열렸다. 이재근, 자신학화와 한국 기독교 역사: 연구사, 전체 재고, '제3의 길'을 참고하라

힘이 있다. 따라서 자신학화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부터 할 필요가 있다.

본 논찬자는 캄보디아가 한국 선교사들에 의해 자신학화에 대한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 될 수 있는 곳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서구식 신학의 근간이 되는 헬라적 철학에 기반한 이데아와 현실세계에 대한 구분이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죽음과 생명이 뒤엉켜있고, 현실과 이데아가 뒤섞여 있다. 불교는 실제 인생 너 머에 있는 불가변한 이데아의 탐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현실세계의 가장 절실한 해방의 문제인 인생의 고의 문제의 탐구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한 종교이다. 브라만교는 실제적인 신의 힘을 빌어 통치와 사회 통합과 질서유지에 활용하는 길을 이 땅에 제시한 종교이다. 캄보디아에서 데바라자의 예식이 그 한 예로 볼 수 있다. 즉 신과의 합일을 중요한 이슈로 제기한다. 그러므로 서구의 이원론적 세계관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세상과 세계를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례로 신관에서도 그렇다. 헬라적 신관은 신과 인간을 구분한다. 그래서 첫 신학적 문제로 대두되어 이어지는 공의회회의 발단이 된 예수의 인성과 신성의 문제도 이 신관으로 말미암았다. 하지만 캄보디아 신관인 빠레아는 신과 인간을 구분하지 않는다. 따라서 예수의 인성과 신성의 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다. 캄보디아 신관에 따르면, 예수는 신과 인간의 특성이 분리되는 존재가 아니라 신이면서 인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표명대 선교사는 학문과 영성을 겸비한 신학자들이 신학교를 통해 배출될 것을 기대하는 소망과 더불어 발제를 마무리한다. 발제자에게 있어 신학교육은 이 두 가지의 목적 실현에 있다는 견해와 확신을 그의 소

망을 통해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논찬자는 서구 신 학의 특징인 이분법적 사고가 여전히 자신학화를 주장하는 발제자에게도 지배적인 사고체계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영성과 학문이 구분되는 것은 서구식 신학 교육이 가져오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이 짧은 글에서 메타주제를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잠시나마 언급해 본다면, 서구식 신학교육에서 신학은 서구철학이 추구하는 과학적 이성적 합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인문사회과학의 한 분야이다. 그러므로 서구신학은 각 비평을 토대로 해서 성경에 대한 유 일무이한 진리와 계시로서의 자격을 먼저 문제 삼는다. 하지만 이문장 교수가 말한 것처럼 동양은 자신과 경전을 객체로서 보지 않는다. 자신과 경전을 일체화시키는 것이 동양의 특징이다. 즉 동양은 배운 만큼 실천하게 되는 것을 원리로 삼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동양에서 학문과 영성의 구분은 전혀 옳지 않은 이야기이다. 학문과 영성이 구분되는 현상이 동양에서 벌어 진다면, 자칫 동양 즉 아시아에서는 신학교육이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비판과 논란과 의구심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찬자는 표명대의 선교사의 발제가 캄보디아 신학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와 분석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하는데 귀한 공헌을 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한다. 그리고 이 발제를 통해 신학교 교수들 뿐만 아니라 한인 선교사 모두가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음을 보게 하는 계기를 제공한 수고를 또한 높게 평가한다. 그리고 또한 발제자는 이 문제해결에 대한 관심과 열정도 한 사람의 탁월한 천재가 아니라 신학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이들의 논의와 토론을 통해 진척되고 진전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발제자가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과 제안을 하지 않은 것도 이런 논의와 토론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발제자의 소망 때문일 것이다. 본 논찬자

역시 문제점들을 위한 해결책에 대한 개인의 의견보다 이 포럼을 계기로 캄보디아 각 신학교들 뿐만 아니라 신학교들 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캄보디아 신학교육에 대한 논의와 토론들이 일어나는 소망을 피력하며 본 논찬을 마치는 것이 발제의 취지에 더 합당하게 여겨진다고 하겠다.

하지만 신학교 틀 바깥의 현장 선교사로 굳이 본 논찬을 통해 제안을 한다면, 첫째, 현장이 원하는 신학교육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모든 학문은 현재 현장에 답이 있다는 명제로 귀결되고 있다. 후방의 신학교육도 현장을 우선시하고 현장이 기반이 되는 선교학을 중심으로 조직신학 성경신학 등의 신학분야들이 유기적 통합을 지향하도록 새롭게 설계되고 있는 것은 눈여겨볼 부분이다. 선교지는 최전방이다. 최전방에서 후방에서 이루어지는 신학교육을 모방하는 것은 다시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캄보디아 선교지는 하나님이 한국 선교사에 주신 자신학화의 보고라는 것이다. 자신학화는 동양 특히 아시아에서 서양 신학자들에게 줄 수 있는 새로운 도전과 통찰력이 될 수 있다. 서구식 신학교육은 서구 문화의 산물이다. 동양은(아시아는) 동양에 합당한 신학교육을 고안해 낼 필요가 있다. 이것이 표명대 선교사가 제시한 현 캄보디아 신학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의 진정한 해결책이 될지도 모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논찬을 마치려 한다. 귀한 발제를 하신 표명대 선교사, 논찬으로 수고하신 조봉기 선교사 그리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30주년 준비위원회에게 감사드리며 특히 바쁘신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귀한 자리를 빛내 주신 감장신 김재호 총장께도 감사드리며 논찬에 갈음한다.

부록

주캄 한인선교사회

한인선교 30주년 포럼

선교 대담

호산나 축구 선교회

- 축구를 통한 선교

대담 : 하종필 선교사
오태근 선교사
노진태 선교사

사회 : 김태권 선교사



주캄 한인선교사회 선교 30주년 준비위원회 선교 대담

호산나 축구 선교회 - 축구를 통한 선교

대담 : 하종필 선교사/오태근 선교사/노진태 선교사

사회 : 김태권 선교사 (30주년 준비위 총무)

일시 : 2022년 4월 7일 오전 9:00

장소 : 목양한인교회(강령면 목사 사무)



호산나 축구 선교회 <축구를 통한 선교>

대담 : 하종필 선교사, 오테근 선교사, 노진태 선교사

사회 : 김태권 선교사(30주년 준비위 총무)

일시 : 2022년 4월 7일 오전 9:00

장소 : 목양한인교회(김정빈 목사 시무)



들어가는 인사

사랑하는 캄보디아 한인 선교사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하여 시청하시는 선교 동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캄보디아 선교 30주년 준비위원회 총무를 맡고 있는 김태권 선교사입니다.

지난 29년 동안 캄보디아 선교는 이곳 저곳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의 선교 사역을 돌아보며 또한 내일의 30년 선교 역사를 생각해 보기 위해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0주년 준비위에서는 캄보디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한인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조명하고 개발하여 여러 선교사님들과 정보를 나누고, 더 효과적인 사역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 포럼을 열고 있으며, 또한 오늘과 같은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더 생각하는 시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분들은 20여년 동안 축구를 통하여 캄보디아 선교를 다지고 있는 호산나 축구선교회의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호산나 축구선교회 하종필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원년 멤버이신 오태근 선교사님과 노진태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신의 소개와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회장님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축구를 통한 선교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종필 회장님께서 호산나 축구 선교회에 대해서 선교사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호축선은 그냥 취미로 공만 차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사역한다는 것을 로고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노진태 선교사님께서 로고를 직접 만드신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는 호축선의 선교 정신이 들어 있겠지요?

호축선의 나이가 이제 20살이 되었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이제 한참 힘이 넘치는 시기인데,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요?

그런데 5월에 호축선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행사가 있는지요?

청소년 축구대회가 18년을 이어오고 있는데 그 역사만큼이나 열매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선교의 열매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졌다고 하는데...

이것을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축구는 여러 명이 모여서 하는 운동인데 어떤 한 사람이 주인이 아닌 모든 회원들이 주인되어 취미와 운동과 교제를 하면서도 선교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의미와 역할을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간에는 호축선의 사역과 관련된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중요한 행사가 있지요? 할렐루야컵 축구대회. 오태근 선교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실제로 할렐루야 축구팀이 캄보디아에 여러 번 방문하여 친선 경기도 했지요? 수상 경력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축선의 활동 가운데 캄보디아 각 중요부서와 축구를 통하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교류들이 있나요? 호축선의 정신인 “연합, 섬김, 나눔”은 선교를 위한 중요한 중심인 것 같습니다. 호축선의 선 교적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장시간 호축선의 축구를 통한 선교사역과 활동을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축선을 통한 하나님의 선교, 또는 소망에 대해서 자유롭게 한 말씀씩 해 주시지요.

오태근, 노진태 그리고 마지막에 하종필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

습니다. 같이 운동하며 선교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장시간 호산나 축구선교회의 축구를 통한 캄보디아 선교사역을 이야기를 통하여 나누어 보았습니다. 축구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건강을 위한 운동일 수 있고, 취미 생활일 수 있으나 생각을 바꾸고 고민하면 그것으로 통한 선교의 다리가 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호산나 축구선교회를 통하여 알아봤습니다.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물으십니다.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축구공을 통한 선교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는 호축선과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교의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음을 확인하시고 여러 선교사님들이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시고 그것을 통한 선교의 모델을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대담에 참여해 주신 하종필 호축선 회장님 그리고 원년 멤버이신 오태근 선교사님과 노진태 선교사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인선교 30주년 포럼집

Cambodia Korean Mission



1993-2023